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文學碩士 學位論文

삼국시대 관련 서사문학작품의 여성 형상 연구

- 정통론 및 여성관을 중심으로 -

2023年 8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文學專攻

宋 蕊

삼국시대 관련 서사문학작품의 여성 형상 연구

- 정통론 및 여성관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창숙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文學專攻
宋 蕊

宋蕊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23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서사문학작품의 비교연구에서 남성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형상 변화 연구는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상대적으로 여성 형상에 대한 변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문학작품 사이에 여성 형상이 불변하였다거나 그 변화의 폭이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에 시대에 따라 역사, 평화, 잡극, 소설에서 각 여성 형상의 변화된 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초선, 감부인, 미부인과 손부인에 대한 각 장르에서의 형상 변화 연구를 통해 여성 형상이 가진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 형상이 적극적으로 개인의 면모를 표출하도록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성이 지켜야 하는 정절에 대한 관념 역시 전변하며 여성 인물이 대의를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독자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탐지하였다. 이러한 여성 인물 형상의 몇몇 변화는 서사적 요구에 따른 작가들의 여성관이나 정통론 입장에 기반한 작가들의 여성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과거 여성 인물은 이야기 전개나 남성 형상의 표현을 위해 복무한다고 여겨져 왔다. 오늘날 여성 형상 역시 각종 문화콘텐츠에서 부속적인 지위에 종종 처하곤 한다. 이에 여성 형상에 대한 분석은 여성 인물의 지위를 재설정하여 여성 인물이 서사문학작품에서 갖는 의미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여성 형상에 대한 분석으로 역사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문학작품의 필연적 규칙을 탐구할 수 있다. 이에 서사문학작품 내 여성 인물 연구는 문학작품 비교연구에서 광범위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본고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초선, 감부인, 미부인, 손부인, 여성관, 정통론
학　번: 2018-23065

〈목 차〉

【국문초록】 ····· i

제1장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방법 및 범위 ····· 3
1.3 선행연구 검토 ····· 7

제2장 여성 형상 형성의 배경 ····· 11

2.1 사회적 배경 ····· 11
2.2 사상적 배경 ····· 14
2.3 문학적 배경 ····· 17

제3장 여성 형상 양상 ····· 19

3.1 貂蟬 ····· 19
3.1.1 정사 ≪三國志≫ 속의 초선 ····· 19
3.1.2 平話 속의 초선 ····· 20
3.1.3 雜劇 속의 초선 ····· 24
3.1.4 小說 속의 초선 ····· 32
3.2 甘夫人 및 糜夫人 ····· 42
3.2.1 정사 ≪三國志≫ 속의 감부인 및 미부인 ····· 42
3.2.2 平話 속의 감부인 및 미부인 ····· 44
3.2.3 雜劇 속의 감부인 및 미부인 ····· 47
3.2.4 小說 속의 감부인 및 미부인 ····· 55

3.3 孫夫人 ····· 65
3.3.1 정사 ≪三國志≫ 속의 손부인 ····· 65
3.3.2 平話 속의 손부인 ····· 68
3.3.3 雜劇 속의 손부인 ····· 74
3.3.4 小說 속의 손부인 ····· 87

제4장 삼국시대 관련 서사문학작품의 여성 형상이 가진 의미 ····· 108

4.1 주도적 면모의 표출 ····· 108
4.1.1 적극적 태도의 반영 ····· 108
4.1.2 정절에 대한 관념 변화 ····· 110
4.1.3 대의를 위한 실천 ····· 111
4.2 작가들의 여성관 반영 ····· 113
4.2.1 “擁劉反曹”의 정통론에 기반한 여성관 ····· 113
4.2.2 서사적 요구로 인한 여성관 ····· 118
4.3 현대에 가지는 의미 ····· 121

제5장 결론 ····· 123

참고자료 ····· 125

中文摘要 ····· 127

제 1 장 서론

1.1 연구 목적

後漢 이후 晉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까지 중국 역사에는 魏, 蜀, 吳 세 나라가 공존하였다. 陳壽의 ≪三國志≫ 편찬 이후 이 시기를 '삼국시대'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1] 세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위나라는 220년에 등장하였고 가장 마지막까지 존립했던 오나라는 265년에 멸망하였다. 이렇게 보면 삼국시대는 60년 안팎의 역사이다.[2] 삼국시대는 비교적 그 시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희곡, 소설 등 다양한 문학 콘텐츠의 자원으로써 오랜 시간 활발하게 활용되어왔다.

시대의 변화는 특정 대상에 대한 관념을 변화시킨다. 변화된 관념은 문학작품 속에 반영된다. 창작 시기에 따라 시대적 변화와 그에 따른 관념의 변화로 인해 동일한 주제를 다룬 문학작품이라도 차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 재생산된 삼국시대 관련 서사문학작품은 주목할 만하다. 특징 지워질 수 있는 시대별 서사문학작품의 비교는 시대에 따른 관념 변화를 추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서사문학작품 비교연구에서 諸葛亮, 曹操와 같은 남성 형상 변화 연구는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 반면, 여성 형상에 대한 변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문학작품 사이에 여성 형상이 불변하였거나 그 변화의 폭이 미미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인의식

---

1) 중국문학인 易中天(1947-今)이 ≪品三國≫라는 책에서의 관점을 따르면 斷代史와 紀年의 측면에서 모두 漢獻帝의 建安25년(220년)이 위나라의 黃初元年이라고 보았는데, 그렇기에 삼국시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서진시대의 진수가 ≪삼국지≫를 편찬하지 않았더라면 삼국시대가 독립된 역사시기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 본고에서 다루는 '삼국시대'는 정사 ≪삼국지≫나 소설≪삼국지연의≫에서 다루는 확장된 시기인 '황건적의 난~西晉 삼국통일'까지이다.

이 약하거나 없던 한 여성 인물이 다른 시대에 창작된 작품에서는 주체성을 획득하거나 개인 의지를 발양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대에 따라 변화된 여성 형상이 서사문학작품에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서사문학작품 내 여성 형상의 변화된 양상을 살펴 남성 형상을 중심으로 전개된 기존 연구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한편 삼국시대와 관련된 서사문학작품 연구에서는 '정통론'과 '擁劉反曹'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마주치게 된다. 이 논의는 대부분 劉備와 曹操의 입장에서 분석된 것이 대다수이다. 그런데 남성 인물이 아닌 여성 인물을 통해서 역시 '정통론' 및 '옹유반조'를 방증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성별과 상관없이 하나의 인물은 문학작품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시대별로 창작된 서사문학작품에서 드러나는 여성 형상의 변화가 당대에 널리 받아들인 사상에 따른 것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문학의 본질에는 인간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문학은 인간의 감정과 생활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각각의 작품에서 여성 형상을 분석하고, 인물들이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탐구하는 일은 문학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가능케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적극적인 여성의 자기 표출, 정절에 대한 관념 변화, 그리고 대의를 위한 실천으로 구분하여 여성 형상이 가진 의미를 조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여성에 대한 작가의 관점에 따라 여성 형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살피고자 한다. 삼국시대 서사문학작품에서 작가들이 드러낸 여성 형상은 작가마다 같지 않다. 그 다름은 크게 '옹유반조'의 정통론에 기반한 차이와 서사적 요구로 인한 차이로 구분된다. 작가의 관점 차이가 여성 인물을 형상하는 데에 있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작가들이 어떠한 영향으로 이런 여성관을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삼국시대 서사문학작품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한나라 말기에 曹操, 劉備, 孫權이 천하통일을 위해 각각 魏・蜀・吳 세 나라를 세웠던 시기를 배경으로 삼아 正史 ≪삼국지≫를 기반으로 하여 이들 간의 정치・외교・전쟁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삼국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학자인 진수가 삼국시대 6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이다.[3] 비교적 간략하게 기술된 진수의 ≪삼국지≫에 남조 송나라 裴松之가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주를 달아 주석본을 편찬하였다. 이후 배송지의 ≪삼국지≫ 주석본이 널리 읽혔으며 삼국시대에 관한 다량의 역사 자료들이 전해지게 되었다.

삼국시대와 관련된 서사문학작품은 唐・宋 시기를 거치면서 주로 화본 및 희곡의 형식으로 활발하게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說話人의 등장과 함께 宋・元 시기에는 삼국시대의 고사를 이야기한 說三分이 유행하였다. 이후 설화인의 이야기는 책으로 엮이게 되었다. 원 초에는 ≪三分事略≫이, 원 말에는 ≪全相三國志平話≫(이하 ≪평화≫로 약칭)가 출간된 바 있다.

원 시기에 발전했던 문학 형식 가운데에는 曲도 있는데, 원의 곡을 정리한 ≪全元曲≫에서 삼국시대와 관련된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잡극 ≪兩軍師隔江鬪智≫는 적벽대전 이후 형주를 둘러싼 촉과 오의 갈등을 다룬 것이다. 이는 正旦인 손부인을 극본의 주인공으로 삼으므로 旦本 잡극이다.

正末인 왕윤을 주인공으로 삼는 잡극 ≪錦雲堂暗定連環計≫는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죽이게 만든 초선의 이간질과 미인계를 다룬 末本잡극이다. 감부인을 주인공으로 삼는 잡극 ≪關雲長千里獨行≫은 관우가 조조에게 가짜 항복하여 감부인과 미부인을 데리고 돌아와 다시 유비와 감부인, 미부인이

3)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이미 위나라에는 <위서>가 있었고, 오나라에는 <오서>가 있었다. 진수가 <촉서>를 완성한 뒤에 이 셋을 합쳐서 ≪삼국지≫라고 한다.

회합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진 旦本잡극이다.

삼국시대와 관련한 소설 역시 활발하게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소설 삼국지의 최초 판본에 대해서는 중국 학술계에서 오랫동안 의견이 분분하였다. 일찍이 통속소설의 형성 및 발전에 대해 연구한 鄭振鐸(1898-1958)은 1929년에 출판한 <三國志演義的演化>에서 소설 삼국지의 13개 판본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였다. 여기에서 그가 '≪三國演義≫의 모든 판본들이 필히 다 가정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라 단정하였으므로 그 후로부터 羅貫中(1330-1400)이 편선[4]한 ≪三國志通俗演義≫ (이하 ≪가정본≫[5]으로 약칭)은 현존하는 삼국지의 최초 판본으로 학술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았다. 明, 淸 시기에 삼국지가 널리 퍼졌으므로 문인들이 나름대로 첨삭한 판본들이 여럿 출간되었다. 당시의 문인들은 나관중의 이름을 假託하여 평을 붙이기도 하였는데, 명 중엽에 이르러 이러한 평개본도 대거 등장하였다. 오늘날까지 전해온 판본 중에는 명나라 때 사상가인 李卓吾(1527-1602)[6]의 평개본이 가장 많다. 청나라 毛宗崗(1632-1709)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가정본에 과감한 수정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240회에서 120회로 축소된 毛本 ≪三國志演義≫(이하 ≪모종강본≫으로 약칭)은 소설 삼국지의 문학성을 제고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읽히는 판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평화와 잡극은 중국문학사에서 통속문화가 크게 발전했다는 표지가 된다. 뿐만 아니라 평화와 잡극은 민간의 전설과 이야기에 그 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색채를 농후하게 지니고 있었다. 삼국시대 이야기를 다룬 잡극은 평화를 계승하면서도 문인의 예술적 가공을 통해 풍부한 인물의 형상이 창작되었다. 이로 인해 삼국희는 잡극에서 견고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

---

4) 나관중이 가정본을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정본의 표지에 따르면 "晉平陽侯陳壽史傳, 後學羅本貫中編次"라 되어 있어, 나관중은 관련 작품의 편선만 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가정본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명나라 가정 연간에 간행되었기도 하고 권두에 가정 임무원년(壬午元年 1522) 修髯子의 引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6) 李贄의 별호.

었다고 보인다. “元雜劇은 중국 연극사에서 첫 번째 황금기를 만들었다. 역사극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삼국희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장르 중 하나이다. …… 현전하는 원 잡극 작품 제목의 십 분의 일을 차지한다.”[7]평화-잡극-연의라는 순차적 발전 관계를 상기하면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의 창작은 보다 주목할 만한 하다.

≪삼국지연의≫는 중국 최초의 장편 章回體 역사연의소설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모종강은 <≪삼국지≫를 읽는 법(讀三國志法)>에서 奇書 가운데 ≪삼국지연의≫를 첫째로 꼽는 것이 마땅하다[8]고 밝힌 바 있으며, 후대에는 ≪삼국지연의≫를 第一才子書라고 일컫기도 하였다. 이미 문학 평론 및 연구가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삼국지연의≫가 고전인 이유를 흥미로운 역사 사료와 과장 및 은유 등의 다양한 예술 기법의 결합으로 개괄할 수 있다. 청나라 장학성은 “≪삼국지연의≫는, 즉 7분의 사실과 3분의 허구가 섞여 있어 독자로 하여금 때때로 혼란을 일으킨다”[9]라 주장하며 부정적인 입장에서 ≪삼국지연의≫를 평가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오히려 ≪삼국지연의≫가 갖는 소설로서의 문학적 가치를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사실을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가공하면서도 사람들이 이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허구와 사실을 혼동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본고는 시대에 따른 작품 속 인식 변화를 살피기 위해 원・명・청 시기에 나타났던 다양한 문학 장르 즉 평화, 잡극, 소설을 함께 비교 분석하고

---

7) 元雜劇作爲中國戲劇史的第一個黃金時代, 歷史劇佔了相當大的比重, 而三國戲是其中一個重要類別, 傳世劇目有60來個, 佔全部元雜劇傳世劇目的十分之一. (元雜劇은 중국 연극사에서 첫 번째 황금기를 만들었고, 역사극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삼국희는 그 중에서의 중요한 분류이다. (삼국희의) 현재 전해온 극작품은 약 60편 정도이며, 현전 원 잡극 작품 전체의 십분의 일을 차지한다.) 譚邦和, ≪明淸小說歷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16쪽.

8) 吾謂才子書之目, 宜以≪三國演義≫爲第一. (내 생각에 기서들 가운데 ≪삼국지연의≫를 첫째로 꼽는 것이 마땅하다.) 毛宗崗, <讀三國志法>, 魯玉川、宋祥瑞等(輯校), ≪三國演義會評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19쪽.

9) 惟≪三國演義≫, 則七分實事, 三分虛構, 以致觀者, 往往爲所惑亂. 章學誠, ≪章氏遺書外編・丙辰箚記≫, 北京: 文物出版社, 1985, 396-397쪽.

자 한다. 해당 텍스트는 아래의 표와 같다.

시대	편찬자	종류	텍스트
西晉	陳壽	史書	三國志
元	未詳	平話	全相三國志平話
元	未詳	雜劇[10]	兩軍師隔江鬪智 錦雲堂暗定連環計 關雲長千里獨行
元末明初	羅貫中	小說	三國志通俗演義(가정본)
明末淸初	毛宗崗		三國志演義(모종강본)

상기의 연구 텍스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여성 인물은 貂蟬, 甘夫人, 糜夫人 및 孫夫人이다. 여성 인물은 문학작품 속에 대부분 등장하지만 정통론을 살피기 위해서는 촉나라에 관한 여성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스토리의 전개 순서로 초선, 감·미 부인과 손부인을 다루고자 한다. 우선 초선으로 인해 동탁이 죽게 되면서 비로소 삼국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감부인과 미부인의 죽음으로 인해 유비는 손부인과 결혼하게 되었으므로 유비는 촉나라를 수성할 수 있었다. 작가의 여성관에 대해 논증하는 장에서 앞서 언급한 4명의 여성만으로는 이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소설에 등장하는 다른 여성 인물들을 함께 살피고자 한다. 4명의 여성을 중심으로 소설 삼국지 여성 인물 전반을 분석하는 방법은 작가의 여성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고는 각각의 연구 텍스트 속에 초선, 감부인과 미부인, 손부인의 형상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각 작품에서 작가들의 여성관을 도출하고자 한다.

10) 잡극 작품은 희곡이지만 본고에서는 인물과 사건, 즉 서사적 요소를 분석대상으로 삼으므로 서사문학작품의 범주에 넣는다.

1.3 선행연구 검토

삼국시대 관련 서사문학작품에 대한 연구 가운데 여성 형상 변화에 관한 것은 그 수가 많지 않다. 소설에 출연하는 여성 인물 전체를 분석하며, 이들에 대한 분류 체계를 확립한 연구로는 楊鑫, 高燦, 張競丹, 이민경의 연구가 있다.

우선 楊鑫은 ≪三國演義女性形象研究≫에서 여성 인물들이 지닌 특징으로 "貞烈守節, 捨生取義", "才貌過人, 智勇雙全", "嫉妒成性, 趨利忘義", "政治工具"라는 기준에 따라 소설 속 여성 인물을 분류하였다.[11] 분류에 따라 여성 형상을 분석하고 비슷한 시대에 등장한 소설인 ≪水滸傳≫과 ≪紅樓夢≫ 속의 여성 인물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는 ≪삼국지연의≫는 여성 인물의 도덕적인 면을 다른 작품에 비해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高燦은 ≪三國演義中的女性形象和女性觀研究≫에서 여성 인물을 신분에 따라 궁녀, 제후의 아내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12] 이 연구에서 저자는 정사 ≪三國志≫와 ≪後漢書≫를 비교 분석하여 여성 인물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을 특징을 밝히고 작가가 가진 진보적인 여성관을 지적하였다.

張競丹은 ≪三國演義中的女性形象和女性觀研究≫에서 여성 형상의 실제 역사와 작품 간의 진실, 허구 여부를 분석하였다.[13] 그는 작가가 실제 ≪삼국지≫ 속 묘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여성 형상이 있는 반면, 유비 세력의 옹

---

11) "정절을 유지하며,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포기할 수 있다." "재능과 미모가 다른 사람을 능가하고, 지혜와 용기를 갖추었다." "질투가 본성이 되어 이익을 좇으며 의리를 잊는다." 楊鑫, ≪三國演義女性形象研究≫, 長沙理工大學, 2013, 각각 9쪽, 11쪽, 13쪽, 15쪽.

12) "後宮女性", "諸侯之妻", "政治聯姻" ("궁궐 속에 있는 여성", "제후들의 아내", "정략결혼"), 高燦, ≪<三國演義>中的女性形象和女性觀研究≫, 天津師範大學, 2015, 각각 15쪽, 57쪽, 38쪽.

13) "完全沿用≪三國志≫的女性形象", "作者塑造的擁劉女性", "作者塑造的其他女性形象" ("실제 ≪삼국지≫ 속 묘사를 그대로 차용한 여성 형상", "작가가 창작한 유비를 옹호하는 여성 형상" "작가가 창작한 다른 여성 형상"), 張競丹, ≪<三國演義>女性形象新論≫, 山西大學, 2016, 각각 5쪽, 8쪽, 11쪽.

호를 위해 혹은 기타 목적을 위해 만들어낸 여성 형상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분류는 작품 내부 분석을 넘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민경은 ≪여성 형상 분석을 통한 <三國演義> 서사전략 고찰≫에서 여성 형상들을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분류하여 각 여성 형상이 전체 작품의 서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하였다.[14] 이 연구에서 여성 인물들을 보조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 속 여성 인물을 '감정이 지워진 존재'로 본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위의 연구는 소설 속의 여성 인물 전체를 다루고, 이들을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여성 인물 개개인의 개성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謝文學[15], 康俊平[16], 杜小琴[17] 등이 소수의 여성 인물에 집중하여 그 여성의 특성, 성격 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謝文學은 ≪論孫夫人(손부인을 논하다)≫에서 각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는 손부인에 대한 서술 방식을 정리하였다. 그가 손부인을 지혜로운 인물로 평가한 부분은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손부인이 사랑에 충실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손부인이 강에 뛰어들어 죽음을 맞이한다는 구절을 제시하였으나 그 소설의 판본을 밝히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康俊平도 ≪論元雜劇<隔江鬪智>中孫夫人形象的文化內涵(원잡극 <격강투지> 속 손부인 형상 형상에 대한 문화적 함의)≫에서 잡극 속 손부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손부인은 개인의식이 형성되어 있으며 반항 정신이 투철한 인물이라고 평가한 점에서는 본고와 시각을 같이한다. 그러나 잡극 속 손부인도 '여장부'의 면모를 지닌다는 점, 손부인과 유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

14) 이민경, ≪여성형상 분석을 통한 <三國演義> 서사전략 고찰≫, <中國學> 第72輯, 2020.

15) 謝文學, ≪論孫夫人≫, 許昌師專學報, 第一期, 1987.

16) 康俊平, ≪論元雜劇<隔江鬪智>中孫夫人形象的文化內涵≫, 平頂山學院學報, 第21卷, 第1期, 2006.

17) 杜小琴, ≪三國文藝作品中孫尙香的演變≫, 華中師範大學, 2011.

杜小琴도 ≪三國文藝作品中孫尙香的演變(삼국 문예작품 속에서 손상향의 변화)≫에서 각 문학작품 속 손부인의 형상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각 작품마다 형상을 단독적으로 도출하는 것보다 모든 형상을 종합해서 복합된 형상을 도출한다는 점, 역사 기록과 문학작품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소설 판본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도 역시 아쉬운 점이다.

초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작품에서의 구체적인 형상이나 연환계에 대한 분석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王麗娟은 ≪貂蟬'連環計'故事的源流演變(초선 '연환계' 이야기의 원류 변화)≫[18]에서 초선이 실존 인물인가에 대해 주목하였다. 초선이라는 이름이 후세 문인들에 의해 부연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있지만 초선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만들어진 허구의 인물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따른다.

劉永濤는 ≪論三國文藝作品中貂蟬形象的演變(삼국 문예작품 속에서 초선의 형상 변화를 논하다)≫[19]에서 초선의 형상 발전을 연구하였다. 소설의 초선은 연환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초선이 연환계 이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시로써 초선을 칭찬하는 부분에서 역시 판본을 밝히지 못했다.

감부인에 대한 연구는 적으며 구체적인 작품에서의 형상을 분석하는 데에 머물고 있다. 미부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문학작품에서 감부인의 형상 변화를 살펴보면 미부인의 형상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金霞는 ≪三國志通俗演義中甘夫人形象分析(삼국지통속연의 속에서 감부인의 형상 분석)≫[20]에서 감부인이 소설에서 연약한 여성이라는 전통적인 여성 형상과 달리, 식견이 있는 여성이자 남편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아내라 보았다. 王瑩雪은 ≪論三國演義中女性的陽剛美(삼국연의 속에서 여성의 양강미를 논하다)≫[21]에서 부분적으로 미부인의 예를 들어 여성 인물 역시도 양강미를

18) 王麗娟, ≪貂蟬'連環計'故事的源流演變≫, 明淸小說硏究, 第4期, 2005.
19) 劉永濤, ≪論三國文藝作品中貂蟬形象的演變≫, 成都大學學報, 第4期, 2018.8.
20) 金霞, ≪三國志通俗演義中甘夫人形象分析≫, 小說論叢, 2013, 111-112쪽.
21) 王瑩雪, ≪論三國演義中女性的陽剛美≫, 文學硏究, 第8期, 2013, 18쪽.

갖추었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는 미부인이 사생취의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나 미부인의 전체 형상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제 2 장 여성 형상 형성의 배경

2.1 사회적 배경

元代(1271-1370)는 이민족이었던 몽골족이 지배했던 시기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의 사회 분위기는 과거에 비해 개방적이었다. 그러나 원은 피지배층이었던 한족을 사회적으로 억압하였다. 일례로 당시의 창기는 8등급에 해당하였는데 한족 문인은 그보다 낮은 9등급에 머물렀다.[22] 정치 참여에 여러 제한을 두어 한족이 정치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23] 특히 주요 출세 경로였던 과거 시험이 폐지되어 꾸준한 학업 수행을 통해 입신양명을 꿈꾸던 지식인 계층은 몰락하였고 문인들은 失意에 빠지게 되었다. 문인은 이러한 상황에 벗어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 각종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중 극본 창작도 있었다. 이때의 문인들이 하층계급 여성의 삶을 목도하게 된 일은 여성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24]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은 극 작품들이 증가하였으며, 작가들은 자신들의 정치 참여에 배제되었다는 분노와 일상생활의 우울함 등

---

22) 我大元制典, 人有十等: 一官二吏, 先之者, 貴也. 貴之者, 謂其有益於國也. 七匠八娼, 九儒十丐, 賤之也. (우리 원나라의 법에 사람들은 10가지 등급이 있다. 관리는 1, 2 등급으로 앞서 귀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은 나라에 유익하다고 말한다. 7번째 등급은 장인, 8번째는 기생, 9번째는 유생, 10번째는 거지이며, 이들은 모두 천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謝坊得, ≪疊山集≫ 卷2 <送方伯載歸三山序>, 台北商務印書館, 년도 미상, 3쪽.

23) 官有常職, 位有常員, 其長則蒙古人爲之, 而漢人、南人貳焉, 於是一代之制始備, 百年之間子孫有所憑藉矣. (벼슬에는 정규직이 있고, 직위에는 고정된 인원을 두었는데, 그 우두머리는 몽고인이 하였고, 한족과 남인은 그 다음이었다. 이리하여 한 시대의 제도가 마련되었고 후손들은 백 년 동안 의거하는 바를 갖게 되었다.) 宋濂, ≪元史・百官志≫, 北京: 中華書局, 1974, 2120쪽.

24) 극 작가인 關漢卿은 평생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흔히 戲院, 妓館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에 그가 지은 작품 중에 여성 생활을 주제로 하는 <詐妮子>, <拜月亭>과 같은 극들이 있고 기녀의 생활을 다루는 <救風塵>과 같은 극들이 있다.

을 극 속 여성 인물들을 통해 표현하였다. 당시에는 문인뿐만 아니라, 사대부나 일반 예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잡극 창작에 종사하였다. 이로써 원대에 잡극이 대단히 유행하였고, 대중에 널리 보급 되어 일반인까지도 잡극을 창작했다.[25)]

경제적인 측면의 발전 또한 잡극의 중심에 여성 인물이 서게 된 원인이 되었다. 원나라 중엽부터 도시경제가 번영하고[26)] 도시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시민계층도 통속문화를 즐기게 되었다. 상업 및 수공업의 발달로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생계 활동에 참여하여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갖게 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도 상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잡극 ≪朱太守風雪漁樵記≫에서 玉天仙이 가난한 현실에 안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뛰어난 바느질 기술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확신하기 때문이었다.[27)] 이 잡극은 능숙한 기술을 가진 것만으로도 자유롭게 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성 인물을 보여주었다. 여성이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면서 결혼에 대한 선택권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25) ≪중국문학사≫, 이수웅, 다락원, 2010, 284-285쪽 참조.

26)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의 기록을 통해 원나라 도시의 번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대도의 내부와 외부에 굉장히 많은 가옥과 주민들이 있다. ……성 외곽에 거주하는 이들 중에는 각 지역에서 온 외국인들이 있는데, 어떤 이는 토산품을 바치러 온 것이고 어떤 이는 궁에 물건을 팔러 온 것이다. ……외국산 고가의 기이한 물건과 갖가지 물건이 이 도시로 들어오는 상황은 세계의 어느 성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비단을 실은 1, 000량 이상의 수레가 매일 같이 이 도시로 들어온다. 이는 금실과 비단으로 된 많은 옷들과 여러 종류의 물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도의 주위에는 멀리 혹은 가까이에 200개 이상의 도시들이 있다. 이 도시들 에서도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물건을 사고파는데 모두 상업이 번창한 도시들이다.” 김호동 역주, ≪동방견문록≫, 사계절, 2002, 268-269쪽.

27) 憑着我好描條, 好眉面, 善裁剪, 善針線, 我又無兒女廝牽連, 那裏不嫁個大官員? (나는 좋은 손재주, 아름다운 얼굴, 탁월한 마름질과 바느질에 대한 능력에 기대고 있고, 또 자식으로 인해 얽매이지 않으니 어디에서든 큰 관직의 사내와 결혼하지 않을까요?) 臧懋循(編), ≪元曲選≫, 中華書局, 1979, 867쪽.

이후 明나라(1368-1644)가 들어서자 통치 집단에서는 몽골족의 지배로 인하여 잃어버린 한족의 문화를 재건하기에 힘썼다. 학교도 세우고 과거시험을 시행하며 전통적 학문을 부흥시키고자 하였다. 결국 程朱理學이 다시 중국을 지배하는 주된 사상이 되었다. 명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바탕으로 상업과 수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상업 도시가 형성되어 경제적으로 번영하였다.[28] 이에 따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시민들은 문화적인 욕구도 늘어나 소설과 같은 민간연예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소설이 곧 성행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소설은 전통적으로 중국을 지배했던 詩文의 독점적 지위를 깨고 문단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여 다양한 사회의 모습, 풍부한 정치사상, 다량의 창작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唐詩, 宋詞, 元曲과 나란히 세워져 명・청의 대표 문학 장르로 소설이 꼽히는 까닭이다.

淸(1616-1911)은 만주족의 왕조였으나 漢族의 전통적인 문화 가치를 인정하였고 사회 풍속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29] 이에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학술적으로 부흥하였다. 청나라는 정주 이학을 중시하였다. 康熙(1661-1722)에서 乾隆(1735-1795) 시기에는 정주 이학을 매우 존중하기도 하였다. 강희제가 직접 ≪주자전서(朱子全書)≫에 서문을 지어 주자야말로 공자, 맹자 이후 "斯文"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것이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30] 주자의 글과 말은 "천지의 정기, 우주의 대도"로 가득 차 있으며, "국가를 다스리려면 인심과 풍습이 기초이며, 인심을 바르게 하고 풍속을 후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학을 숭배해야 한다"는 것이 강희제의 평가이다.[31] 이에 문인은 문학 창작에 있어 권선징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회적 교화 목적을 담았다.

---

28) ≪중국문학사≫, 김학주, 신아사, 1989, 386쪽 참조.

29) 앞의 책, 442쪽.

30) 朕以爲孔孟之後、有裨斯文者朱子之功、最爲弘鉅, ≪官修・淸實錄・聖祖實錄≫, 中華書局, 1985, 170-171쪽.

31) 治天下以人心風俗爲本, 欲正人心, 厚風俗, 必崇尙經學. 앞의 책, 같은 쪽.

2.2 사상적 배경

혼인문화에 있어 원나라 시대에는 전통적 유가 사상을 엄격히 계승하지 않았다. 이에 정주 이학에서 강조하는 "정절을 지켜는(守節)" 관념도 영향력이 약해졌다. 긴 시간 동안 전통 유가 사상에 따른 男尊女卑, 三從四德 등 여성에 관한 억압적 관념은 중국인의 혼인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남편이 죽더라도 아내는 재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32] 정주 이학이 지배적인 관념 체계로 자리매김했던 송나라에서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었다. 烈女를 찬송하고 貞節牌坊을 세워 타인의 모범이라고 표창했던 일은 정주 이학이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이다.[33]

그러나 원나라 시기의 혼인에 대한 관념은 송나라와 달랐다. 정부가 理學을 중시하여 ≪元典章≫에서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에게 재혼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지만 죽은 남편을 위해 수절한 여성은 지극히 적고 심지어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재혼하였으니 이러한 현상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34] 이 시기 문학작품 속에서는 여성들이 재혼하는 모습을 흔히 볼

---

32) 一與之齊, 終身不改, 故夫死不嫁. (한번 (그와) 함께 가지런히 하여 부부가 되면 몸이 다 할 때까지 바꾸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편이 죽더라도 다시 시집가지 않는다.) ≪禮記集解≫, 孫希旦, 北京: 中華書局, 2009, 214쪽.

33) 열녀를 표창하여 그 인물이 사는 마을 입구나 집 앞에 세웠던 문이다. 綽楔, 旌門이라고도 한다. 大者賜祠祀, 次亦樹坊表, 烏頭綽楔, 照耀井閭. (정절을 제일 엄격히 지킨 사람에게 제단을 수여하고, 다음 순위에게 패방을 세우며, 오두(오두문을 가리킨다)나 작설은 온 마을을 비추어준다.) ≪明史・列女傳一・卷301≫, 張延玉, 北京: 中華書局, 1974, 7689-7690쪽.

34) 命婦夫死不許改嫁. 近年以來, 婦人夫亡守節者甚少, 改嫁者歷歷有之, 乃至齊衰之淚未乾, 花燭之筵復盛, 傷風敗俗, 莫此爲甚. (봉호를 받은 여인은 남편이 죽었더라도 개가를 허락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이래로, 부인의 남편이 죽어도 절개를 지키는 사람은 심히 적고 개가하는 사람은 줄줄이 있으며 이에 상복의 눈물도 마르지 않는 상기에, 화촉을 밝히는 잔치가 다시 성대하게 열리니, 풍속을 해침에 있어서 이보다 심함이 없다.) ≪元典章≫ 卷十八, 陳高華(校), 天津古籍出版社, 2011年, 627쪽.

수 있다. 원나라의 여성들은 이전 시기에 비하여 자유로운 혼인이 가능했고 합법적으로 데릴사위를 들일 수 있었다는(招贅)[35] 점도 여성의 지위가 신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잡극 역시 작품 속에서 작가들이 여성을 대변하여 여성 인물의 목소리를 관객에게 들려준다. 반항 정신을 드러내는 여성 인물에게서 과거의 도덕적인 관념에 머무르기보다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잡극은 여성 인물이 외부의 개입에 대하여 반항하고 자유로운 혼인을 위해 투쟁하는 용감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는 원 잡극에서 잘 나타난다. 원 잡극의 작가는 여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여성 인물에게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관객의 공감을 얻기 위해 반항 정신을 가진 여성 형상을 만들어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반항은 예컨대 정절관념의 대한 반항, '女子無才便是德(여자는 재주가 없는 것이 덕이다)'라는 관념에 대한 반항, 자유로운 연애와 혼인에 대한 추구를 통해 전통적인 혼인풍습에 대한 반항 등이 있다.[36] 나아가 여성이 직접 이혼을 요구하는 모습은 여성이 인격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7] 요컨대 문학 속에서 여성 인물은 개인의식을 보여준다.

물론 明代에 정주 이학은 다시 사회 전반을 운용하는 사상으로 여겨졌으며 여성들은 명 정부로부터 도덕적으로 교화를 당했다. 貞節 관념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인해 명나라에서는 재혼하는 여성이 거의 없었으며 남편이

---

35) 今作贅召婿之家往往甚多, 蓋是貧窮不能娶婦, 故使作贅, 雖非古禮, 亦難革撥, 此等之家, 合令權依時俗而行. (최근에 데릴사위를 보내거나 삼는 집들이 종종 있다. 대개 궁핍함으로 인해 아내를 맞이할 수 없어서 데릴사위가 되도록 하였다. 비록 옛 예법이 아니지만, 또한 이를 없애기는 어렵다. 이러한 집안에서는 지금의 풍속을 따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元婚禮貢擧考・至元婚禮≫, 王頲點(校), 浙江古籍出版社, 1992, 151쪽.

36) 王理超, ≪元雜劇中叛逆女性形象的文化解讀≫, 文史論苑, 2018, 208-209쪽.

37) <秋胡戲妻>는 원나라 문학가 石君寶(1191-1276)가 창작한 작품이다. <秋胡戲妻>의 주인공 추후는 10년 동안 從軍하고 집에 돌아와 아내인 羅梅英을 찾아왔으나 서로 알아보지 못한다. 뽕나무밭에서 추후는 나매영을 희롱하다가 욕을 실컷 먹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여인이 바로 자기 아내였다. 곧바로 나매영은 추후에게 이혼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죽었더라도 여성은 再嫁하지 않고 정절을 지켜야 했다. ≪明會典≫[38]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 寡婦들이 정절을 지키면 집안의 노역을 면해주겠다고 하면서 국가는 사회적인 혼인 관념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아래의 표로 명·청 때 節婦의 인원수가 수배로 급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정주 이학의 강화로 인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시대	周	秦	漢	六朝	隋唐	五代	宋	元	明	淸
인수	6	1	22	29	32	2	152	359	27141	9482

〔각 시대에서의 節婦 인원수[39]〕

정절에 대한 관념이 강조된 시기 중 초기에는 여성을 교화하는 도덕적인 사상으로 정절 관념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갈수록 정절 관념의 실천은 육체적 정절을 지키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민간에서는 ≪閨範≫과 같은 여성 교화를 위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어 "여성들의 명예와 절조는 일신상에 있으니, 이미 작은 흠이 있다면 만 가지 선한 것으로도 가릴 수 없다[40]"라 하면서 여성들이 엄격한 규율에 얽매이게 했다. 여성의 정절 관념은 명·청 시대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정절은 지식인들이 만든 문화적 전통에서 출발하여 대중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관념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정절 관념을 가진 여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절을 보편적인 행위로 받아들이는 지역이 점차 확대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정절의 방식을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여성은 정신적인 정절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여성은 도덕적인 성품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상적 강조를 뛰어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여성이

38) 凡民間寡婦, 三十以前夫亡守制者, 五十以後不改節者, 旌表門閭, 免除本家差役. (무릇 민간의 과부들 중에서 30세 이전에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도 수절을 지키는 사람과 50세 이후까지도 개가하지 않는 사람은 마을 어귀에서 표창을 하고 친정집의 노역을 면제해준다.) ≪明會典≫, 北京: 中華書局, 1989, 457쪽.

39) ≪中國古代婚姻史硏究≫, 廣東人民出版社, 1998, 246쪽.

40) 女子名節在一身, 稍有微瑕, 萬善不能相掩. 呂坤(明), ≪閨範≫, 中華書局, 1984, 27쪽.

절개를 지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었으므로 소설 등의 작품에서도 守節을 강조하는 관념이 널리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2.3 문학적 배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대에는 도시 경제의 번영으로 인해 시민 계층도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면서 공연예술을 즐기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요구가 급증함으로 속문학은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또한 통일된 국토 안에서 함께 살게 된 여러 민족은 서로 자주 접촉하고 교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원나라 문화는 번영하였으며 문화의 통속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원대는 다른 시대와 달리 관객이나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白話文으로 창작된 작품이 등장하였다. 백화문으로 된 작품은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많은 양의 우수한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종합적 공연예술 형태인 원 잡극이 형성되었다.[41]

문학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극본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된다. 이는 사회적 지위가 급격히 떨어진 문인들이 극본을 창작했을 때 자기 자신의 懷才不遇, 분노 등 감정을 극 속 인물들에게 투사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극 속의 여성 인물은 개인 의지를 표출하고 반항 정신을 보여준다. 잘 알려진 잡극 ≪感天動力竇娥冤≫에서 두아는 사회적으로 부패한 官場에 대한 반항을 강하게 표출하는 인물이며, ≪西廂記≫의 최앵앵이 자유로운 사랑을 죽도록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그 예이다. 삼국시대와 관련된 잡극도 역시 이런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兩軍師隔江鬪智≫에서 손부인은 남편에 대한 명백한 조건[42]을 나열하며 자신의 사상을 추구하는 모

41) 잡극은 전 시대의 詞, 歌, 舞와 講唱文學의 예술적인 요소들을 융합한 하나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문학사≫, 이수웅, 다락원, 2010, 284쪽.

42) 也則要門當戶對該如此. (가문이 격에 맞아야 해요.) ≪全元曲≫ 第九卷, 第一折, 徐征、張月中 (編),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8, 6734쪽.

습을 보여준다. 또한 유비를 죽이라는 계책에 강한 분노와 억울함[43]을 표출하는 손부인의 행위는 집안에 대한 반항 정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

명나라 때부터 소설이 번영하였다. 명나라 때 詩詞 등의 전통문학은 기운을 떨치지 못하여 흉내기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44] 반면 송대 화본과 원대 잡극의 유행에 뒤이어, 문인들은 송·원 화본 소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장편 소설을 창작하였다. 예컨대, 역사 소설인 ≪삼국지통속연의≫를 비롯한 四大奇書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명나라 때는 중앙집권에 의한 통치가 강화되면서 문학 창작에도 현실적인 제한이 생기게 되었다.[45] 소설의 주된 이야기는 권선징악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사회적 교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예로 들면 ≪삼국지통속연의≫에서는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등 주요한 남성 인물들뿐만 아니라, 姜敘의 어머니, 趙昂의 아내와 같은 여성 인물들에게도 충, 효, 인, 의 등 도덕적인 정신을 부여하였다.

청나라 때에는 王夫之와 같은 학자들이 실속이 없는 부실한 학문을 배격하고 經世致用의 학문을 내세우며 문학에 있어서 복고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다.[46] 이에 문학 대부분의 분야에서 오직 옛 문학 형식을 그대로 흉내내었으며 창작에 있어서는 독창성을 추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문학 형식 대부분이 차츰 쇠퇴하는 동안에, 소설만은 명나라의 장편소설을 이어받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聊齋誌異≫와 ≪紅樓夢≫은 대표적인 그 예이다. 이는 경제적 발전으로 물질적 여유를 가진 시민계층이 오락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전과 다르게 인쇄 기술이 발전하면서 책 형태의 소설을 널리 전파할 수 있었다는 점도 소설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43) 也是我婦人家自爲終身計. 你隻爲一時功效猶難遂, 卻將我百歲姻緣競不提, 那個肯無番悔?……(云)我哥哥好狠也. 這一座荊州, 直恁的中用? (이것이 우리 부인네들 평생 자구책이지요. 그대는 일시에 공을 이루기 어려울까 봐 내 백 년 인연은 입에 올리지도 않다니! 어느 누가 후회 않겠소?……(말한다) 오라버니도 너무하십니다! 이 형주가 그렇게나 쓸모 있답니까?) 앞의 책, 第九卷, 第二折, 6745-6746쪽.

44) ≪중국문학사≫, 김학주, 신아사, 1989, 398쪽 참조.

45) 앞의 책, 같은 쪽 참조.

46) 앞의 책, 443쪽 참조.

제 3 장 여성 형상 양상

3.1 貂蟬

3.1.1 정사 ≪三國志≫ 속의 초선

초선을 분석할 때 呂布와 董卓 그리고 '연환계'라는 계책을 빼놓을 수 없다. 정사에서는 초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三國志·魏書·呂布傳≫에서 한 시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포가 王允과 함께 동탁을 죽인 일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47] 그 당시는 동탁이 권세를 떨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탁의 義子인 여포가 왕윤과 함께 동탁을 죽인다. 그 이유를 무명의 시녀에 대한 기록에서 추정할 수 있다. 여포가 그녀와 사통하였고 동탁에게 그 일을 들킬까 봐 불안했다는 것은 아래의 ≪三國志·魏書·呂布傳≫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초선을 언급하면 연환계의 일부로 작용한 미인계가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미인계의 雛形도 확인할 수 있다.

> 동탁은 여포를 騎都尉로 삼고 부자 사이가 되기로 맹세하고 매우 총애하고 신임했다. 점차 승진하여 中郎將에 이르고 都亭侯에 봉해졌다. 동탁은 스스로 남을 대할 때 무례하고 남에게 해를 입을까 행차하거나 머물 때 항상 여포로 하여금 자신을 호위하게 했다. 그러나 동탁의 성격은 경직되고 편협하며 화를 잘 내고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았다. 일찍이 (여포가) 동탁의 뜻을 사소하게 거스르자 동탁이 手戟을 쥐고 여포에게 던진 일이 있었다. 여포는 용력이 있고 민첩하여 이를 피하고는 안색을 바꾸어 사죄하니 동탁의 화 또한 풀렸다. 여포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은밀히 동탁

47) 夏四月, 司徒王允與呂布共殺卓. (여름 4월, 사도 왕윤이 여포와 함께 동탁을 죽였다.) ≪裴鬆之註三國志≫ <呂布傳>, (陳壽)裴鬆之註,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9, 5쪽.

을 원망하게 되었다. 동탁은 또 여포로 하여금 中閤을 지키게 하였는데 사사로이 傅婢(시중드는 계집종)와 정을 통하였으므로 이 일이 발각될까 더욱 스스로 안심하지 못하였다. ……이때 왕윤은 尙書僕射 士孫瑞와 함께 동탁 주살을 은밀히 모의하고 있었으니, 이로 인해 여포에게 이 일을 고하고는 그에게 內應하도록 (권)했다. 여포가 말했다, "(동탁과 저는) 부자 사이와 같은데 어찌 그러겠습니까?" 왕윤이 말했다. "그대는 성이 여이니 본래 골육도 아니오. 지금 죽음을 걱정할 겨를도 없는데 어찌 부자라 하시오?" 마침내 여포가 이를 허락하고는 동탁을 찔러 죽였다.

(卓以布爲騎都尉, 甚愛信之, 誓爲父子. 稍遷至中郎將, 封都亭侯. 卓自以遇人無禮, 恐人謀己, 行止常以布自衛. 然卓性剛而褊, 忿不思難, 嘗小失意, 拔手戟擲布. 布拳捷避之, 爲卓顧謝, 卓意亦解. 由是陰怨卓. 卓常使布守中閤, 布與卓侍婢私通, 恐事發覺, 心不自安. ……時允與僕射士孫瑞密謀誅卓, 是以告布使爲內應. 布曰: "奈如父子何!" 允曰: "君自姓呂, 本非骨肉. 今憂死不暇, 何謂父子?" 布遂許之, 手刃刺卓.)

여포와 동탁 사이의 갈등과 이어지는 동탁의 죽음의 원인 중 하나로 시녀, 즉 초선이 있다.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초선의 미인계가 동탁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유 중 하나라 할 때, 초선의 존재와 행동은 미인계의 추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름을 초선이라 밝히지 않았지만, 이 시녀는 후세에 전해지는 초선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초선이라는 문학적 형상의 역사적 원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3.1.2 平話 속의 초선

초선이라는 인물의 원형은 역사적으로는 흐릿하게 기록되었지만 송·원 시대 이래 문학작품에서는 초선의 인물 형상이 분명하게 그려진다. 평화에 이르러 동탁과 정을 통하던 시녀가 '초선'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아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고, 미인계도 세밀하게 그려지면서 초선은 동탁을 죽이는 일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왕윤이 동탁 때문에 국가의 안위를 근심하던 중 후원에서 향을 사르는

여인을 보았다. 그때 초선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은 바로 다음과 같다.

> "첩의 성은 임이고 자는 초선이며 남편은 여포인데, 임조부에서 헤어진 후로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어 향만 피우고 있습니다." 승상은 매우 기뻐하며 "한의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여인이다!"라고 말했다. 승상은 당으로 돌아가 초선을 불러 "나는 너를 내 딸과 같이 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금과 비단을 주고 헤어져 그곳을 떠났다.
>
> ("賤妾本姓任, 小字貂蟬, 家長是呂布, 自臨洮府相失, 至今不曾見面, 因此燒香." 丞相大喜: "安漢天下, 此婦人也!" 丞相歸堂, 叫貂蟬: "吾看你如親女一般看待." 即將金珠緞疋與貂蟬, 謝而去之.)

평화 속에서 초선은 여포의 아내로 등장하였다. 왕윤이 초선의 신분을 알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여, 친딸로 대우하겠다는 말과 함께 금과 비단을 초선에게 선물하고 작별 인사를 하며 떠난다. 위 평화의 내용을 보면 왕윤이 어째서 여포의 아내인 초선을 한나라를 구할 위인으로 보는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동시에 왕윤이 한나라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초선의 등장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왕윤은 곧바로 연희를 열어 동탁을 초대하고, 초선을 비롯한 수십 명의 여인들을 불러 춤추게 하였다. 동탁은 곧바로 초선에게 반하였고 왕윤은 동탁이 초선을 취할 수 있게 하였다.[48] 왕윤은 초선이 여포의 아내임을 알면

---

48) 後數日, 丞相請太師董卓筵會……王允令數十個美色婦人, 內簇貂蟬, 訾揷碧玉短金釵, 身穿縷金絳綃衣, 那堪傾國傾城! 董卓大驚, 覷移時, 自言: "吾室亦無此婦人!" 王允敎謳唱, 太師大喜. 王允曰: "關西臨洮人也, 姓任, 小字貂蟬." 太師深顧戀, 丞相許之. (며칠 후 왕윤은 태사 동탁을 연회에 초대했는데 …… 왕윤은 수십 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거느렸는데 안에는 초선이 있었다. (그녀는) 푸른 옥과 짧은 금비녀로 머리에 틀어 올렸고 금빛 붉은 비단옷을 입고 있었으며, 나라를 뒤흔들 만큼 아름다웠다! 동탁은 깜짝 놀라며 혼잣말로 "내 방에는 이런 여자가 없구나!"라고 말했다. 왕윤이 그녀에게 노래를 하라고 하니, 태사는 기뻐했다. 왕윤은 "그녀는 관서 임조부 출신으로 성은 임이고 자는 초선이다."라고 말했다. 태사는 그녀를 사랑했고 승상이 (초선을 태사에게 준다는 것을) 동의했다.) ≪三國志平話≫,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59, 33쪽.

서도, 초선을 동탁에게 주었다는 것은 왕윤이 초선의 아름다움을 계책의 一環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여기서 초선의 아름다운 외모가 이야기 전개에 필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윤이 초선을 동탁에게 주고 난 뒤에 왕윤은 또 다시 연회를 열어 여포를 초대하였다. 이때 여포는 예전에 생이별했던 아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49] 이때 왕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온후(여포)의 처인 줄은 몰랐지만 남편과 아내의 재회보다 세상에서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는 또한 "나도 그녀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상서로운 날과 시간을 정해서, 초선을 태사부에 보내 온후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 ("不知是溫侯之妻, 天下喜事, 不如夫妻團圓." 又言: "老漢亦親女看待. 選吉日良時, 送貂蟬於太師府去, 與溫侯完聚.")

위에서 왕윤은 여포와 초선과의 재회를 돕기 위해 초선을 여포에게 보낼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은 들은 여포가 크게 기뻐하여 돌아갔다는 부분에서[50] 초선의 개인적 의지나 생각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여성 인물의 형상을 살피기 어렵다. 초선과 여포가 재회하도록 하여 왕윤은 계책의 전반부를 완성한다. 이후 왕윤은 초선을 太師府에 보내 여포가 동탁을 죽이도록 유도한다. 그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그날 밤, 동탁과 초선은 함께 술을 마셨다. 동탁은 술주정뱅이이자 바람둥이여서 전후로 이틀을 보냈다. 여포가 곡강에서 돌아와 집 앞에서 하차

---

49) 筵宴至晚, 丞相又使貂蟬上筵謳曲. 呂布視之, 自思: 昔日丁建陽臨洮作亂, 吾妻貂蟬不知所在. 今日在此! (연회가 끝날 무렵 승상은 초선에게 연회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포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앞날에 임조에서 정건양이 혼란을 일으켜, 내 아내 초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보니 그녀가 여기 있구나!) 앞의 책, 34쪽.

50) 呂布大喜, 天晚告歸. (여포는 크게 기뻐하여, 날이 어두워지니 돌아가기를 고하였다.) 앞의 책, 같은 쪽.

하자 8명의 장수가 흩어졌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온후는 집에서 음악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물었다. 그들은 모두 승상이 여인을 한 명 얻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초선이라 한다고 말하였다. 여포는 크게 놀라며 행랑으로 갔지만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초선이 옷을 벗은 채 나오는 것을 보았다. 여포는 분노하며 "역적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초선은 "술에 취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여포는 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동탁이 코를 천둥처럼 골며 살이 산더미처럼 쌓인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댔다. "이 늙은 도둑놈! 도리도 없는 놈!" 단칼에 동탁의 목을 자르니 피가 솟구쳐 죽었다.

(當夜天晚, 董卓與貂蟬飮酒. 董卓是一酒色之徒, 前後二日. 呂布因自曲江回來, 到宅前下馬, 有八健將皆散. 當夜天晚, 溫侯聽宅中有樂音嘹亮, 遂問左右人爲何. 衆人具說: "丞相一婦人, 乃貂蟬也!" 呂布大驚, 行至廊下, 無由得見. 猛然見貂蟬推衣而出. 呂布大怒: "逆賊在於何處?" 貂蟬曰: "已醉矣." 呂布提劍入堂, 見董卓鼻氣如雷, 臥如肉山, 罵: "老賊無道!" 一劍斷其頸, 鮮血涌流. 刺董卓身死.)

여포가 동탁을 죽인 전 과정을 위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동탁은 여색을 좋아하여 초선과 술을 마시며 밤을 보냈다. 여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초선은 이미 동탁과 동침한 뒤였고 화가 난 여포가 취한 동탁을 죽였다. 이 과정에서 여포가 동탁을 죽인 주된 이유는 자신의 아내인 초선이 동탁에게 성적 희롱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역시 초선의 개인적인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남편과 다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탁과 함께 술을 마시고 희롱을 당했는지 알 수 없어 독자에게 의문점을 남긴다. 또 초선이 여포와 재회하였을 때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 등 초선의 감정이나 행동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초선이 지극하게 남편을 그리워했다고 쓰여진 후대 소설 내 초선의 인물 형상과 다른 부분이다.

따라서 평화 속에 초선은 왕윤의 계책에 연루된 여인으로 표현될 뿐, 초선의 개인적 의지나 행동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초선은 여포의 아내라는 신분을 갖고 있으므로 이 계책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동탁을 죽인 후 초선의 형상을 살펴보면, 여포가 조조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초선은 여포와의 이별을 두려워하며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여포에게 읍소하였다. 초선은 여포에게 죽을 때까지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여포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매일 초선과 함께 지냈다.[51] 그런데 여포가 결국 조조에 의해 전사한 후에는 초선에 대한 서술이 나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 초선은 동탁과 여포를 죽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이후 작중에서 사라진다. 이에 초선이라는 인물은 이야기의 흥미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창작된 인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평화에서 초선은 이야기 전개를 위해 등장하였고 또 사라지는 인물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평화 속 초선의 형상을 정리하면 초선은 왕윤이 꾸민 계책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이며 다시 만난 남편과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 평화에서는 초선의 결말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잡극에서는 두 개의 다른 초선의 결말이 존재한다.

3.1.3 雜劇 속의 초선

평화 속 초선의 행위는 연환계의 초급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잡극 ≪금운당암정연환계≫에서 초선의 말과 행동은 미인계와 연환계의 중간 단계로 이루어졌다. 이 작품은 ≪元曲選≫에 수록되어 있으며 작가는 알려져 있지 않은 말본 잡극이다. 연환계란 '고리를 잇는 계책'으로 연속적으로 계

51) 呂布在於後堂見貂蟬. 呂布說與, 貂蟬哭而告曰: "奉先不記丁建陽臨洮造反, 馬騰軍來, 咱家兩口兒失散, 前後三年不能相見. 爲殺了董卓, 無所可歸. …… 曹操兵困下邳, 倘分軍兩路, 兵力來續, 若又失散, 何日再睹其面?"貂蟬又言: "生則同居, 死則同穴, 至死不分離." 呂布甚喜: "此言是也." 溫侯每日與貂蟬作樂. (여포는 뒷방에서 초선을 만났다. 여포가 초선에게 묻자, 초선이 울면서 말하기를, 정건양이 임조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마등의 군대가 와서 우리가 흩어져 3년 동안 서로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은 봉선이 잊었나요? 동탁을 죽인 후에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 조조의 군대는 하비에 갇혀 있는데, 병사들을 갈라 공격할 때 우리 또 흩어졌으면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초선은 "살면 함께 살고, 죽으면 함께 죽는 것이니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여포는 크게 기뻐하며 "그렇소"라고 말했다. 온후는 매일 초선과 함께 놀았다.) 앞의 책, 42쪽.

책을 엮는 것이다. 왕윤이 초선을 이용해 여포를 끌어들이고, 여포를 이용해 동탁을 제거하는 것이 전형적인 연환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잡극 ≪금운당암정연환계≫ 제1절에서 동탁을 제거하라는 명을 받은 楊彪가 王允을 찾아와 계책을 상의하고, 제2절에서는 蔡邕이 여포가 동탁을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왕윤에게 알려주고, '연환계'를 사용하라고 조언한다. 왕윤이 연환계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52]하던 왕윤은 어느 날 밤 후원에서 향을 사르면서 기도하는 초선을 만난다. 왕윤을 만난 초선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첩은 초선이라 하고, 원래 여포의 아내였습니다. 임조부에서 남편과 헤어진 후 사도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다행히 나리께서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여포의 행방은 모릅니다. 저는 지금 뒷마당에서 향을 피우며 하늘에 조만간 남편과 재회할 수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버드나무와 꽃 그늘 사이로 반쯤 지어 있는 달이 비추며, 수로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집니다. 내 마음속에는 두 번의 깊은 숭배 속에 묻혀 있는 많은 슬픔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
> 저는 여기 출신이 아니라 혼주 목이촌 사람이고 임앙의 딸인 홍창입니다. 한영제의 궁녀로 선발되어 궁궐로 끌려가 초선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선이라고 불렸습니다. 영제는 저를 정건양에게 주었지만 그는 여포에게 저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나중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전쟁터에서 서로 헤어져 여포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운 좋게도 나리의 집에서 친딸처럼 대해주시니 어떻게 보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할머니와 망루에 있을 때, 한 무리의 병사들이 머리를 공중에 들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여포가 그 적토말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을 피우면서 남편과 재회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
> (妾身貂蟬, 本呂布之妻, 自從臨洮府與夫主失散, 妾身流落司徒府中, 幸得老爺將我如親女相待. 爭奈夫主呂布, 不知下落. 我如今在後花園中燒一炷夜香, 對天禱告, 願俺夫妻每早早的完聚咱. 柳影花陰月半空, 獸爐香嫋散清風.

52) 學士去了也. 他說便說的好, 只是這連環計將何下手? (학사(채옹)가 떠났습니다. 그의 말은 좋은 말이지만 이 연환계를 어떻게 전개할까요?) ≪全元曲≫ 第八卷, 徐征、張月中 (編),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8, 6024쪽.

心間多少傷情事, 盡在深深兩拜中.

您孩兒不是這裏人, 是忻州木耳村人氏, 任昂之女, 小字紅昌. 因漢靈帝刷選宮女, 將您孩兒取入宮中, 掌貂蟬冠來. 因此喚做貂蟬. 靈帝將您孩兒賜與丁建陽, 當日呂布爲丁建陽養子, 丁建陽卻將您孩兒配與呂布爲妻. 後來黃巾賊作亂, 俺夫妻二人陣上失散, 不知呂布去向. 您孩兒幸得落在老爺府中, 如親女一般看待, 真個重生再養之恩, 無能圖報. 昨日與奶奶在看街樓上, 見一行步從擺著頭踏過來, 那赤兔馬上可正是呂布. 您孩兒因此上燒香禱告, 要得夫婦團圓.)

평화와 마찬가지로 잡극에서의 초선도 여포의 아내임이 확인된다. 또한, 왕윤이 초선을 친딸처럼 대해준 것에 대해 초선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초선이 왕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하였으므로 이후 벌어지는 이야기가 초선과 함께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왕윤과의 대화에서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53]는 지적도 있다. 평화와 달리 잡극 ≪금운당암정연환계≫의 초선은 연약하고 아름다운 여성[54]의 형상을 가졌으며 또한 초선이라는 이름의 유래도 처음 밝혀졌다. 이는 잡극에서 초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인물의 형상을 더욱 풍부하게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잡극의 초선은 평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포와 다시 만나길 원하였다. 초선의 신분과 바람을 알게 된 왕윤은 초선을 이용하여 연환계를 시행하려 한다. 왕윤은 초선에게 여포와 재회시켜 주는 댓가[55]로 초선에게 한 가지 일을 부탁한다.

(단아)나리, 한 가지라도 열 가지라도 당신의 말씀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

53) 貂蟬, 我聽的你說, "則願夫妻每早早團圓". 那一個是你丈夫? 從實的說來, 若一字不實, 我打死你這小賤人, 決無干罷. (초선, 내가 "부부가 빨리 재회하길 바란다"는 말을 들었는데 누가 네 남편이야? 사실대로 말해, 한 마디라도 거짓말을 하면 죽도록 패버릴 거야, 이 나쁜 년아!) 앞의 책, 6027쪽.

54) 嬌滴滴佳人. 貂蟬世上最妖妍. (연약한 가인이다. 세상에서 초선이 제일 아름답다.) 앞의 책, 같은 쪽.

55) 孩兒, 你若肯依著您父親一樁事呵, 我便著你夫妻每團圓也. (딸아, 네가 아버지에게 한 가지 일만 순종하다면 남편과 재회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앞의 책, 6028쪽.

(정말) 아버지의 이 계책을 도와줘라. 동탁을 제거하고 조정을 재건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너희 부부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뚱뚱한 동탁의 일시적인 더럽힘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대대로 이어질 황제를 구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겨야 한다. ……(초선) 그렇습니다. 저는 역사에 흔적을 남기고자 홍안으로 다른 사람을 모신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旦兒云)老爺休道是一樁事, 就是十樁事, 您孩兒也依的. 但不知是那一樁事?

(正末云)你如今肯替父親出此一計, 使我得陰圖董卓, 重整朝綱, 便當著你夫妻們永遠團圓. 兒也, 你休顧那胖董卓一時春點汙, 博一個救帝主萬代姓名香. ……(旦兒云)理會的. 欲教青史留遺跡, 敢惜紅顏別事人.)

위에서 보듯 초선은 여포와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동탁을 없애기 위한 왕윤의 계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여기에서 초선의 개인적인 의지가 드러난다. 초선은 여포의 아내이지만 동탁과 동침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먼저 초선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과 남편과 만나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 여기서 名節에 대한 초선의 언급은 당시 여성의 정절 관념을 반영한 것이다. 잡극에서 초선은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마땅히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도덕 관념을 넘어 정치적 식견을 갖게 되면서, 남편이 있음에도 동탁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이로써 초선은 자신의 안위나 가정이라는 테두리에 속했던 여성에서 대의를 위해 자신의 정절을 버리는 여성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어 연환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평화에서와는 달리 왕윤은 여포를 먼저 초대하여 초선과 만나게 한다.

(여포)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소? (초선) 임조부에서 헤어진 후 사도부에서 살았는데, 오늘 당신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봉선,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죽겠어요. (초선이 울고 여포가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말한다.) 초선아. 나는 죽도록 그리웠어 …… 저는 재상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다시 만나도록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 여포는 죽어

도 이 큰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 (왕윤) 나는 상서로운 날을 택해 3천 냥을 혼수로 갖추어 초선을 온후에게 아내로 바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포) 재상님, 감사합니다. 초선의 아버지도 제 아버지입니다.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呂布云)妻也, 你怎生卻在這裏?(旦兒云) 自從俺臨洮失散, 流落在司徒府中, 不想今日才得相見. 奉先, 則被你痛殺我也. (旦兒做哭、呂布掩泣科, 云) 貂蟬, 兀的不想殺我也…… (呂布云) 只望老宰輔怎生可憐見, 著俺夫妻再得團圓. 呂布至死也不忘大德, 當效犬馬之報. ……(正末云) 我便選吉日良辰, 倒賠三千貫奩房斷送, 將貂蟬配與溫侯爲妻, 你意下如何? (呂布云)多謝了老宰輔. 貂蟬的父親, 便是呂布的父親哩. 此恩必當重報也.)

위와 같이 여포와 초선이 만나 서로에게 애틋한 감정을 터놓는 장면에서 초선의 형상은 더욱 생생하게 묘사된다. 왕윤이 여포에게 초선을 그의 아내로 삼길 허락하겠다는 약속을 하니 여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을 나타내었다. 초선과 여포가 재회의 기쁨에 겨워 우는 장면으로 인해 동탁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전개가 더욱 연속성을 갖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절에서는 연회에서 동탁의 입으로 초선에 대한 미모를 상세하게 묘사[56]한다. 동탁은 그녀에게 반하여 부인으로 삼겠다고 말하고 왕윤이 이를 허락하는 과정[57]이 묘사된다. 그 이후에는 왕윤이 동탁에게 초선을 보내 이

56) 狄髻兒光, 粉搽的臉道兒香, 畫的來月眉新樣, 穿的是藕絲嫩新織仙裳. 若是這女豔妝, 勸玉觴, 殷勤的滿斟低唱, 十指露春笋纖長. (머리카락을 묶고, 얼굴에 화장을 하여 향기로운 기운을 뿜어내었다. 새롭게 달 모양의 눈썹을 그렸으며, 부드러운 새 옷을 입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이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장식된 술잔으로 술을 권하며,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니 손가락이 봄 새싹과 같이 가늘고 길다.) 앞의 책, 6037쪽.

57) 好女子也! 似此顏色, 人間少有, 敢則是天仙麼? 好女子也, 好女子也. ……好美貌的女子. 我府裏雖有千數丫鬟, 並無一個能及之者. 怎麼這老頭兒有那等好的?……我看這女子, 生的有沉魚落雁之容, 閉月羞花之貌. 好女子也呵. (董卓云)怎麼說做妾, 便做夫人, 只怕老夫消受不起. (顧取玉帶科, 云) 蒙司徒許諾, 敢以玉帶爲聘. (그녀는 정말 좋은 여자야! 이런 미모는 인간 세상에서 드물어, 천상의 선녀인가? 좋은 여자야, 좋은 여자야 …… 정말 아름다운 여자다. 내 집에는 수천 명의 시녀들이 있지만, 이 여자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이렇게 좋은 여자를 이 늙은이가 가지고 있다니?

간질을 하도록 한 내용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왕윤) 초선을 불러 태사에게 네 번 절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놈은 초선의 미색을 보고 짐승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늘 수레가 궁궐 문 앞에 왔을 때, 그는 많은 시녀들을 시켜 초선을 수레에서 모셔 내리게 하여 뒷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온후여, 당신도 사나이인데 아내의 주인 노릇도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포) 그 놈은 무례하게도 내 초선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지금 뒷방으로 가서 저 놈을 찾아보겠습니다 …….(초선) 여포, 나는 부끄러워 죽겠어요. 내 수레가 당신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태사가 많은 사람들을 시켜 나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봉선, 당신은 키도 크고 이빨도 가진 사나인데 아내의 주인 노릇도 할 줄 모르니무슨 소용입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
> (正末云)老夫不合喚出貂蟬, 拜了太師四拜. 誰想這老賊看見貂蟬顏色, 起了那一點禽獸的肚腸. 今日車兒來到府門首, 他就撥著許多女使, 將貂蟬邀下車兒, 擁入後堂去了. 溫侯也, 枉了你是一個大丈夫, 與妻子做不的個主, 要你何用?……(呂布云)叵奈這老賊無禮, 強奪了我貂蟬. 更待幹罷. 如今直到後堂中, 尋那老賊去. ……(旦兒云)呂布, 羞殺我也. 我的車兒來到你私宅門首, 被太師著許多人將我邀進府中去. 那裏有公公納媳婦的道理? 奉先, 你是個男子漢, 頂天立地, 噙齒戴發, 與老婆做不的主, 要你何用? 呸!你羞麼?)

동탁이 강제로 초선을 데려갔다는 왕윤의 말로 인해 여포는 몹시 화가 나 초선을 찾아갔다. 이후 초선이 여포의 怒氣를 일으켰다는 것을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선은 여포의 아내로서 모욕당했고 이를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포에게 부끄럽지 않냐고 한다. 초선은 남편인 여포가 동탁에게 해를 가할 것을 조장한다. 초선이 이 계책을 위하여 자신의 절정을 희생하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행동한 것은 여포와 일생을 함께하겠다는 의지, 즉

이 여자는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 숨고, 기러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고, 달을 가리게 하고 꽃을 부끄럽게 하는 미인이다. 좋은 여자야. (동탁이 말한다) 첩은 무슨, 부인으로 삼아도 좋을 만큼 아름다워요. (옥대를 꺼내며 말한다) 사도께서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옥대는 예물로 드릴게요.) 앞의 책, 6037-6038쪽.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여포를 사랑하는 아내로서 그 계책의 목적이 자신과 남편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남편을 질책하면서 마치 동탁을 죽이기 위해 이용하는 듯한 행위는 처음에 둘이 만나 울었을 때의 형상과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포는 동탁을 공격한다.[58] 이로써 여포와 동탁의 갈등이 심화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여포가 동탁을 죽이고 초선을 다시 데려올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受禪을 미끼로 삼아 동탁을 유인한 후, 여포가 李肅과 함께 그를 죽인다는 것을 다음에서 알 수 있다.

> (여포) 내가 그 늙은 놈을 한 방에 때려눕히면, 그는 반드시 사람을 보내 나를 잡을 것이다. 나는 왕사도의 집에 숨어 의논하여 저 늙은 놈을 반드시 죽이고 초선을 되찾아서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루리라.
>
> (여포) 늙은 놈, 도망가지 마라! 내 칼을 맞아라! (여포는 동탁을 찌르고, 동탁은 말한다.) 재수가 없네, 이런 효성스런 두 아들을 만나다니, 심지어 아내인 초선도 저들을 시켜 나를 밧줄로 묶는구나.
>
> (呂布上, 云)俺呂布一拳打倒那老賊, 他必然差人來拿我. 俺且躲在王司徒府中, 與他商議, 務要殺了那老賊, 奪回貂蟬, 才稱我平生之願.
>
> (呂布沖上, 云)老賊休走, 吃我一戟! (呂布做刺董卓跌倒科, 云)呸, 好悔氣, 遇這等兩個孝順兒子. 一發連夫人貂蟬也著他拿繩子來捆縛了我罷.)

동탁을 죽일 때, 초선이 여포를 시켜 동탁을 묶게 하였다는 서술에서 평화 속에서는 수동적이거나 드러나지 않았던 초선의 행위가 이 잡극에서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잡극 속 초선은 왕윤이 만든 이 연환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상으로 변화하였다. 동탁을 제거한 후 초선은 國君[59]이라는 명호를 받았으므로, 잡극에서 초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

58) (呂布做打董卓科, 云) 著打倒這老賊也. (여포가 동탁을 때리는 동작하면서 말한다) 이 늙은 도적을 물리치도록 해라.) 앞의 책, 6042쪽.

59) 呂布訂賊建首功, 封王出鎭幽燕地. 其妻貂蟬亦國君, 隨夫之爵身榮貴. (여포는 도적을 잡아 공을 세워, 왕으로 봉하게 되어 유연 지역에 나가서 지킨다. 그의 아내인 초선은 국군이 되어 남편과 함께 영광과 귀족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앞의 책, 6050쪽.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잡극 속 초선은 평화보다 풍부한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잡극의 초선은 개인적인 의지를 가진 인물로 나타난다. 평화와 잡극에서 초선의 동기는 동탁을 죽인 후 여포와 함께 단란하게 지내는 위함이었으며, 이 연환계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초선이 여포의 아내라는 신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반면, 평화에서와 달리 잡극에서 초선의 모습이나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작가가 보다 진보적인 여성관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잡극에서 초선이라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關大王月下斬貂蟬≫[60]이라는 원 잡극은 초선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극본이 전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제목으로 미루어 보건대, 관우가 초선을 죽였다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평화에서는 찾을 수 없고 역사에서도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관우가 초선과 관계된 이야기는 ≪삼국지·관우전≫에서 <蜀記>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 조조가 유비와 함께 하비에서 여포를 포위했다. 관우가 공(조조)에게 여쭈길, 여포가 진의록을 시켜 구원을 청했다 하며 그의 처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니 조조가 이를 허락했다. 여포가 막 격파되려 할 때 또 여러 번 청하자 조조는 그녀가 남다른 미색이리라 여겨 먼저 사람을 보내 맞아들여 확인했다. 그리하여 그녀를 (자신의 부중에) 머물게 하니 관우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
>
> (曹公與劉備圍呂布於下邳, 關羽啓公, 布使秦宜祿行求救, 乞娶其妻, 公許之. 臨破, 又屢啓於公. 公疑其有異色, 先遣迎看, 因自留之, 羽心不自安.)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우가 여러 번 여포의 처를 달라고 하였고 조조는 허락하였다. 그러나 조조는 그녀가 남다른 미인이라 여겨 관우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가진다. 평화와 잡극에서 여포의 처로 알려진 초선은 관우가

60) 姚燮(清), ≪今樂考証≫에 수록이 되지만 작가가 알려지지 않는다.

탐하던 미인이라 여길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우가 초선을 얻지 못한 노여움으로 인해 그녀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원 잡극으로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목으로 추측컨대, 이 잡극에서는 초선이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관우에게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잡극에서 왜 관우가 초선을 죽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먼저 평화와 마찬가지로 여포의 죽음을 초선의 탓으로 여기는 관점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송원 이래 관우의 형상은 점점 사람에서 신으로 인식되었다. 창작자들은 미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죽임으로써 대장부로서의 관우의 모습을 더욱 강조하였다. 셋째, 관우가 있는 촉나라를 찬양하는 것은 정통론적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미인은 화(禍)의 근원이라는 봉건사상이 반영되어 연환계에 등장하는 진보적인 여성관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같은 시대의 작품에서도 같은 인물의 결말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성이 지켜야 할 정절에 대한 관념 때문일 것이다.

3.1.4 小說 속의 초선

소설 속의 초선은 여포의 아내가 아니라 어릴 적부터 왕윤의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은 歌伎이다.[61] 왕윤이 나라를 근심하고 있던 어느 날, 초선과 만나는 장면에서 초선은 다음과 같이 그녀의 신분을 밝히게 된다.

---

61) 忽聞有人在牡丹亭畔長吁短嘆, 允潛步窺之, 乃府中歌舞美人貂蟬女也. (문득 모란정 쪽에서 누가 한숨짓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왕윤이 발소리를 죽이고 가만히 엿보니, 다름이 아닌 부중의 가무 미인인 초선이었다.) ≪嘉靖壬午本三國演義≫, 羅貫中, 北京: 人民出版社, 2007, 52쪽.

忽聞有人在牡丹亭畔, 長吁短嘆. 允潛步窺之, 乃府中歌伎貂蟬也. (문득 모란정 쪽에서 누가 한숨짓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다. 왕윤이 발소리를 죽이고 가만히 엿보니, 다름이 아닌 부중의 가기인 초선이었다.) 魯玉川、宋祥瑞等(輯校), ≪三國演義會評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86쪽.

가정본	모종강본
나리께서 첩을 어릴 때부터 이만치 키워주시고 춤과 노래도 가르치시고 친딸처럼 대해주신 그 은혜는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그 만분의 일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나리를 뵈니 미간에 수심이 가득 차 있으니, 반드시 나라에 대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은 되었으나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또 나리께서 안절부절 하심을 보고 나와서 장탄식하다가 뜻밖에도 나리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만약 소첩을 쓰실 데 있다면 만 번 죽는대도 사양치 않겠습니다!	나리께서 첩을 이만치 키워주시고 춤과 노래도 가르치시고 예의바르게 대해주신 그 은혜는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그 만분의 일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나리를 뵈니 미간에 수심이 가득 차 있으니, 반드시 나라에 대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은 되었으나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또 나리께서 안절부절 하심을 보고 나와서 장탄식하다가 뜻밖에도 나리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만약 소첩을 쓰실 데 있다면 만 번 죽는대도 사양치 않겠습니다!
(妾之賤軀, 自幼蒙大人恩養, 訓習歌舞, 未嘗以婢妾相待, 作親女視之. 妾雖粉骨碎身, 莫報大人之萬一. 妾見大人兩眉愁鎖, 必有國家大事, 妾不敢問, 解大人之憂. 今晚又見大人行坐不安, 因此長嘆, 不想大人窺見. 倘有用妾之處, 萬死不辭!)	(妾蒙大人恩養, 訓習歌舞, 優禮相待, 妾雖粉身碎骨, 莫報萬一. 今見大人兩眉愁鎖, 必有國家大事, 又不敢問. 今晚又見行坐不安, 因此長嘆. 不想爲大人窺見. 倘有用妾之處, 萬死不辭!)

위의 소설에서 초선은 왕윤에 의해 길러진 기생의 신분을 가진다. 가정본 중 초선이 친딸처럼 대우받았다는 구절도 있어 초선이 왕윤에게 갚을 은혜가 더욱 깊어졌음을 알 수 있다. 초선의 신분 변화는 소설 창작의 시대에서 정주 이학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초선이 여포 아내로서 동탁을 유혹하는 것은 사회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반면 초선의 신분을 기생이라는 미천한 신분으로 설정한 것은 초선이 동탁과 여포를 유혹하는 일에 있어 평화와 잡극에서보다 개연성이 약하다는 면이 있다. 이에 따라 소설에서는 초선의 동기나 능력도 강화되었으며 은혜만큼이나 천하의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초선의 지혜가 강조되고 있다.

이어 왕윤은 무릎을 꿇고 초선에게 여포와 동탁을 유혹하여 동탁을 제거하는 연환계를 부탁하면서 초선의 의향을 묻자[62], 초선이 다음과 같이 말하

62) 允跪而言曰: “百姓有倒懸之危, 君臣有累卵之急, 非汝不能救也. 賊臣董卓, 將欲篡位.

였다.

가정본	모종강본
소첩이 이미 만 번 죽는대도 사양치 않겠다고 했으니, 곧 이 몸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소첩이 알아서 처신하겠습니다. …… “나리께서 염려 마십시오. 첩이 대의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난도질을 당해 죽고, 다시는 태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소첩이 이미 만 번 죽는대도 사양치 않겠다고 했으니, 곧 이 몸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소첩이 알아서 처신하겠습니다. …… “나리께서 염려 마십시오. 첩이 대의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난도질을 당해 죽고 말겠습니다.”
(貂蟬曰: “妾許大人萬死不辭, 望獻出. 到他處, 妾自有道理. ……“大人勿憂. 妾若不報大義, 死於萬刃之下, 世世不復人身.)”	(貂蟬曰: “妾許大人萬死不辭, 望卽獻妾于彼. 妾自有道理.” …… 貂蟬曰: “大人勿憂. 妾若不報大義, 死于萬刃之下!”)

위와 같이 초선은 왕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죽어도 이 연환계를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평화나 잡극과는 달리 초선은 이 연환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소설에서의 초선은 여포 아내의 형상을 벗어나 나라를 근심하고 대의를 위해 행동하는 여성 형상으로 변하였다.

이어서 왕윤은 연회를 열어 여포를 초대해 초선과 만나게 하였다. 초선을

朝中文武, 無計可施. 董卓有一義兒, 姓呂, 名布, 驍勇異常. 我觀二人皆好色之徒, 今欲用‘連環計’; 先將汝許嫁呂布, 后獻與董卓; 汝于中取便, 諜間他父子反顏, 令布殺卓, 以絶大惡. 重扶社稷, 再立江山, 皆汝之力也. 不知汝意若何?” (왕윤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지금 백성들은 도현(거꾸로 매달린 듯 위험이 절박한 것)의 위기에 처하였고, 임금과 신하들은 누란(알들을 포개놓은 듯 매우 불안하고 위태함)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네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제할 사람이 없구나. 역적 동탁이 장차 황제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데, 조정의 문무백관이 시행해 볼 계책이 없다. 동탁에게 여포라는 날쌔고 용맹하기가 남다른 양아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두 사람이 모두 호색의 무리다. 이제 나는 연환계를 쓰고자 하니 먼저 너를 여포에게 시집가게 허락한 다음에 다시 동탁에게 바칠 것이니, 너는 그 사이에서 수완을 부려 그 부자간에 반목하게 하여 여포의 손을 빌려 동탁을 죽임으로써 큰 악을 없애도록 해라. 이로써 사직을 다시 일으키고 강산을 다시 세우는 일이 모두 네 힘에 달려있다. 그런데 네 의향은 어떠냐?) 魯玉川、宋祥瑞等(輯校), ≪三國演義會評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87쪽.

자신의 딸인 것처럼 소개하고 첩으로 보낼 것을 약속하면서 여포가 크게 기뻐하게 만들었다.[63] 연회 중에 초선은 추파를 던져 여포의 호감을 얻으려 하였다.[64] 또 왕윤은 동탁을 초대하여 초선을 가기라고 소개하며 둘을 만나게 하고 곧바로 동탁에게 초선을 바쳐 데려가라고 하였다.[65] 이를 통해 연환계가 시작되었다.

여포가 초선과 동탁이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왕윤에게 물었다. 여포는 초선이 자신의 첩이 될 것이라는 왕윤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다. 여포는 초선이 이미 동탁과 밤을 보냈다[66]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간다. 이때 초선이 연기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 초선이 일부러 양 눈썹 찡그리고 우수에 잠겨 슬픈 척하고 비단으로 눈물을 닦는다 ……주렴 안에 어느 여자가 왔다 갔다 살펴보다가 살짝 얼굴을 내밀고 눈으로 정을 준다. 여포가 초선인 것을 알고 넋을 잃는다.
> (貂蟬故蹙雙眉, 作憂愁不樂之態, 復以香羅頻拭眼淚. ……帘內一女子往來觀覷, 微露半面, 以目送情. 布知是貂蟬, 神魂飄蕩.)

---

63) 貂蟬便坐于允側. 呂布目不轉睛的看. 又飮數杯, 允指蟬謂布曰: “吾欲將此女送與將軍爲妾, 還肯納否?” (초선은 곧 왕윤의 곁에 와 앉았다. 여포는 눈이 뚫어지게 초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시 몇 잔을 마신 다음, 왕윤은 초선을 가리키며 여포에게 이르기를, “제가 장차 이 아이를 장군의 첩으로 드릴까 하는데, 장군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앞의 책, 88쪽.

64) 布欣喜無限, 頻以目視貂蟬. 貂蟬亦以秋波送情. (여포는 무한히 기뻐하며 자주 초선에게 눈짓하였다. 초선도 또한 추파를 던져 정을 보냈다.) 앞의 책, 같은 쪽.

65) 允起曰: “允欲將此女獻上太師, 未審肯容納否?” 卓曰: “如此見惠, 何以報德?”允曰: “此女得侍太師, 其福不淺.” 卓再三稱謝. 允卽命備氈車, 先將貂蟬送到相府. (왕윤이 일어서며 말하기를, “제가 이 아이를 태사께 바칠까 하는데 받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동탁이 말하기를,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소?”하니, 왕윤이 말하기를, “사실 태사를 모시게 되면 이 아이에게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윤의 말에 동탁은 재삼 사례했다. 왕윤은 즉시 수레를 준비시켜 먼저 초선을 승상부로 보냈다.) 앞의 책, 89쪽.

66) 夜來太師與新人共寢, 至今未起. (밤에 태사께서 새 사람과 함께 주무시고 이제까지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앞의 책, 90쪽.

위와 같이 초선은 동탁과의 관계를 숨기고 여포에게 호감을 보이는 행동으로 여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한 동탁이 병에 걸리자, 초선은 헌신적으로 그를 돌보면서 동탁의 비위를 맞춰 동탁이 속으로 더욱 기뻐하게 하였다.[67] 그 결과 두 남자 모두 초선에게 반하게 되었다. 두 남자의 마음을 빼앗는 과정에서 초선은 미모와 지혜로 연환계를 주도하면서 절대적인 주인공으로 자리 잡는다.

동탁이 자고 있을 때 여포가 초선을 탐하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화를 내어 여포를 집 밖으로 쫓아내니 여포가 분노하여 돌아갔다.[68] 이 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이를 연환계의 첫 단계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연환계의 마지막 단계는 초선의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가정본	모종강본
“장군께서 먼저 후원의 봉의정 옆에서 저를 기다리세요.” 장군을 만나 뵙자 종신토록 섬길 것을 허락받은 뒤로 첩은	“장군께서 먼저 후원의 봉의정 옆에서 저를 기다리세요.”……장군을 만나 뵙자 종신토록 섬길 것을 허락받은 뒤로 첩은

67) 董卓自納貂蟬后, 爲色所迷, 月余不出理事. 卓偶染小疾, 貂蟬衣不解帶, 曲意逢迎, 卓心愈喜. (동탁은 초선을 들인 후로 그만 미색에 반하여 한 달 넘도록 정사를 보러 나가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동탁이 마침 가벼운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초선은 허리띠도 풀지 않고 정성을 다해 병간호를 했다.그것을 본 동탁은 더욱 마음에 기뻐했다.) 앞의 책, 91쪽.

68) 呂布入內問安, 正値卓睡. 貂蟬于床后探半身望布, 以手指心, 又以手指董卓, 揮淚不止. 布心如碎. 卓朦朧雙目, 見布注視床后, 目不轉睛. 回身一看, 見貂蟬立于床后. 卓大怒, 叱布曰: “汝敢戲吾愛姬耶!” 喚左右逐出: “今后不許入堂!” 呂布怒恨而歸 …… (여포가 병문안을 드리러 들어가니 마침 동탁은 잠들어 있었다. 초선이 그 침상 뒤에서 몸을 반쯤 드러내 여포를 바라보며 손으로 가슴을 가리키고, 또 동탁을 가리키면서 그칠 새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모양을 바라보는 여포는 마음이 부서지는 듯하였다. 이때 동탁이 막 잠에서 깨어나 어슴푸레한 눈으로 무심히 쳐다보니 여포가 침상 뒤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동탁이 몸을 돌려 살펴보니 바로 초선이 침상 뒤에 서 있었다. 동탁은 격노하여 여포를 꾸짖기를, “네가 감히 내 애첩을 희롱하는구나!”하고, 좌우를 불러 여포를 밖으로 쫓아내고 이제부터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포는 격분하여 가슴에 원한을 품고 돌아가다가……) 앞의 책, 같은 쪽.

평생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했는데, 태사께서 옳지 않은 마음으로 제 몸을 더럽히실 줄 누가 알았겠소? 첩은 당장 죽지 못한 게 한스럽지만, 장군을 한 번 뵙고 작별 인사나 드려보자 하고 오늘까지 그 치욕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행히 장군을 만났으니 첩의 소원은 풀었습니다! 이 몸은 이미 더럽혀져 다시는 영웅을 섬길 수 없으니 차라리 장군 앞에서 목숨을 끊어, 그것으로 장군의 염원을 끊기를 바라겠소" …… "첩은 지금 하루가 1년 같으니 장군께서 그런 생각이시면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해주세요" ……"장군께서 그처럼 늙은 도적놈을 무서워하시니 아무래도 이 몸은 다시 햇빛을 보지 못하겠어요." …… "첩이 깊은 규중에 들어앉아 있어도 장군의 명성은 우뢰같이 귀에 크게 들려와서, 이 세상에 오직 장군밖에 영웅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도리어 남에게 제재나 받고 계실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말을 마치자 초선은 눈물을 비 오듯 흘렸다.	평생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했는데, 태사께서 옳지 않은 마음으로 제 몸을 더럽히실 줄 누가 알았겠소? 첩은 당장 죽지 못한 게 한스럽지만, 장군을 한 번 뵙고 작별 인사나 드려보자 하고 오늘까지 그 치욕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행히 장군을 만났으니 첩의 소원은 풀었습니다! 이 몸은 이미 더럽혀져 다시는 영웅을 섬길 수 없으니 차라리 장군 앞에서 목숨을 끊어 첩의 뜻이나 밝혀두겠습니다!" …… "첩이 이번 생에서는 낭군의 아내가 될 수 없으나 다음 생에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첩은 지금 하루가 1년 같으니 장군께서 그런 생각이시면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해주세요" ……"장군께서 그처럼 늙은 도적놈을 무서워하시니 아무래도 이 몸은 다시 햇빛을 보지 못하겠어요." …… "첩이 깊은 규중에 들어앉아 있어도 장군의 명성은 우뢰와 같이 귀에 크게 들려와서, 이 세상에 오직 장군밖에 영웅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도리어 남에게 제재나 받고 계실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말을 마치자 초선은 눈물을 비 오듯 흘렸다.
(蟬曰: "汝可去后園中鳳儀亭邊等我."…… "一見將軍, 大人肯許, 妾已平生願足. 誰想太師起不仁之心, 將妾淫汚, 恨不得死耳! 今見將軍, 只可表妾誠心. 此身已汚, 不得復事英雄; 願死於君前, 以絶君念!"……"妾度日如年, 願君憐憫而救之."……"君如此懼怕老賊, 妾身無見天日之期矣!"……"妾在深閨, 聞將軍之名, 如雷灌耳, 以爲當世一人而已. 誰想反受他人之制乎!" 言訖, 淚下如雨.)	(蟬曰: "汝可去后園中鳳儀亭邊等我." ……自見將軍, 許侍箕帚, 妾已生平愿足. 誰想太師起不良之心, 將妾淫汚. 妾恨不卽死. 止因未與將軍一訣, 故且忍辱偸生. 今幸得見, 妾愿畢矣! 此身已汚, 不得復事英雄. 愿死于君前, 以明妾志!……貂蟬手扯布曰: "妾今生不能與君爲妻, 愿相期于來世. "妾度日如年, 愿君憐而救之."……蟬牽其衣曰: "君如此懼怕老賊, 妾身無見天日之期矣!" ……妾在深閨, 聞將軍之名, 如雷灌耳, 以爲當世一人而已. 誰想反受他人之制乎!" 言訖, 淚下如雨.)

위에서 초선이 여포의 마음을 조종하며, 자신의 계책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는 모습이 그려진다. 초선은 힘없는 여인으로 앞장서서 계책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에 여포가 찾아왔을 때 기회를 잡아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야 했다. 그리고 초선은 자신이 오직 여포만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동탁에게 姦汚을 당했고 죽을 지경을 이르렀다고 말하였다. 이에 자신에 대한 여포의 애정을 불러일으키고 더불어 여포를 하나밖에 없는 대장부로 칭찬하여 자신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간절한 초선의 말은 여포의 자부심을 자극하였다. 초선은 만약 여포가 자신을 구하지 않는다면 죽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다. 이로써 초선은 여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며, 동탁과 여포의 관계를 이간질하였다. 동탁과 여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평화와 잡극에서는 초선이 여포의 아내이므로 손쉽게 가능한 일이었다. 반면 소설에서 초선은 여포의 심리를 조장한다. 이 과정을 통해 초선의 주도면밀한 성격이 엿보인다.

동탁은 초선과 여포가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여포에게 화를 내자 여포는 도망을 쳤다. 그리고 동탁은 초선에게 여포와 사통하였는지 물었다. 다음은 초선의 대답이다.

가정본	모종강본
초선이 운다. “첩이 온후(여포)는 태사의 아드님이라 피하였습니다. 여포가 극을 든 채 봉의정까지 쫓아왔습니다. 첩이 연못에 몸을 던지려 했는데 그가 와락 달려들어 첩을 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가 그렇게 생사의 고비에 있을 때 마침 태사께서 오셔 이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동탁이 말한다. “나는 이제 너를 여포에게 줄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초선이 말한다. “첩은 이미 귀인을 섬긴 몸인데 이제 갑자기 종놈에게 주신다니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욕은 보지 못하겠습니다!”	초선이 운다. “첩이 후원에서 꽃을 구경하고 있는데 여포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첩이 놀라서 몸을 피하는데 여포가 ‘난 태사의 아들이야, 굳이 피할 게 뭐 있냐?’ 그리고 극을 든 채 봉의정까지 저를 쫓아왔습니다. 첩은 그가 불량한 마음을 가진 것을 알고 겁탈당할까 봐 연못에 몸을 던지려 했는데 그가 와락 달려들어 첩을 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가 그렇게 생사의 고비에 있을 때 마침 태사께서 오셔 이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여포에게 줄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초선이 크게 놀라 울면서 말했다. “첩은 이미 귀

	인을 섬긴 몸인데 이제 갑자기 종놈에게 주신다니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욕은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벽에서 보검을 빼 들고 제 목을 찌르려 하였다. 동탁은 급히 칼을 빼앗고 끌어안았다. "내가 너를 놀려본 거다!"
(蟬泣曰: "妾將謂溫侯是太師之子, 迴避之. 這廝提戟趕來, 到鳳儀亭邊, 妾欲投荷花池, 這廝抱住. 正在生死之間, 得太師來, 救了性命." 董卓曰: "我欲將汝賜與呂布, 何如?" 蟬曰: "妾身已事大貴, 今欲與家奴, 妾寧死不辱!)	(蟬泣曰: "妾在后園看花, 呂布突至. 妾方驚避, 布曰:'我乃太師之子, 何必相避?' 提戟趕妾至鳳儀亭. 妾見其心不良, 恐爲所逼, 欲投荷池自盡, 卻被這廝抱住. 正在生死之間, 得太師來, 救了性命." 董卓曰: "我今將汝賜于呂布, 何如?" 貂蟬大驚, 哭曰: "妾身已事貴人, 今忽欲下賜家奴, 妾寧死不屈!"遂擎壁間寶劍欲自刎. 卓慌奪劍擁抱曰: "吾戲汝!")

위와 같이, 초선은 우선 동탁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자신이 오로지 동탁만 모실 것이라고 말한다. 동탁이 여포가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폄하한 것을 이용하여 두 사람의 사이를 다시 한번 이간질하였다. 또한, 여포의 신분을 家奴로 낮추어 동탁의 권위의식을 자극하고 동시에 초선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였다.

위와 같이, 초선은 왕윤이 부탁한 연환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다. 왕윤이 계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포와 동탁 두 사람 모두 여색을 좋아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전제가 없었다면, 초선이 노력했더라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소설의 초선은 굳은 의지로 연환계를 주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초선은 평화와 잡극 속에서와 같이 수동적으로 이 계획에 휘말리는 인물이 아니라 계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의를 위하여 행동하는 형상으로 변하였다. 이에 작가는 초선의 형상을 문학적으로 구체화하면서 미인계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유지시킨다. 초선의 형상에 있어 모순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초선이 어릴 적부터 왕윤의 집 안에서만 지냈다는 성장 배경에서 얻기 힘든 성격을 가졌다는 점이다. 자신의 안위를 걸고 대의를 위한다는 판단과 때에 따라 드러나는 민첩한 기지

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순점은 창작자가 전체적인 맥락을 위해 초선이라는 인물 형상의 가능성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본에서는 초선이 충의와 절개를 갖춘 사람으로 그려져 한 나라의 신하 여럿이 초선 한 명보다 못하다는[69]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모종강본에서는 승전가를 봉의정에서 아뢴다[70]는 것으로 보아 왕윤의 뛰어난 계략을 칭찬하고 간접적으로 초선의 역할을 인정해 주었다. 이는 사회 교화적 측면에서 失節한 여성을 전면에 두고 칭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초선과 관련된 결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초선은 평화와 잡극에서와 달리 여포의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동탁을 죽이고 곧바로 여포에게 가지 않았다. 그 결과 여포는 초선을 첩으로 삼아 처인 嚴氏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초선은 앞서 보여준 지용무쌍의 형상과 달리 조조와의 전쟁 장면에서 자신을 두고 전쟁에 가지 말라고 여포에게 울면서 부탁한다. 이 장면을 통해 초선의 형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가정본	모종강본
여포는 또 마음이 괴로워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초선을 찾아갔다. 초선에게 사정을 말하자, 초선도 만류했다. “장군께서 첩을 생각하신다면, 귀하신 몸을 가벼이 밖으로 내보내지 마세요.”……여포는 집안에 틀어박혀 엄씨와 초선을 지키고 술을 마시며 종일 답답한 심사를 풀었다.	여포는 또 마음이 괴로워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초선을 찾아갔다. 초선에게 사정을 말하자, 초선도 만류했다. “장군께서 첩을 생각하신다면, 귀하신 몸을 가벼이 밖으로 내보내지 마세요.”……여포는 집안에 틀어박혀 엄씨와 초선을 데리고 술을 마시며 종일 답답한 심사를 풀었다.

69) 報主貂蟬眞義烈, 匡君王允實忠貞. 漢朝累世簪纓輩, 不及貂蟬一婦人! (주군의 은혜를 갚은 초선은 참으로 의리가 있으며 군주를 바로 잡은 왕윤은 실로 충성스럽다. 한 나라 대대로 모든 인재는 초선 한 부인만 못 하였네.) ≪嘉靖壬午本三國演義≫, 羅貫中, 北京: 人民出版社, 2007, 65쪽.

70) 司徒妙算託紅裙, 不用干戈不用兵. 三戰虎牢徒費力, 凱歌卻奏鳳儀亭. (왕사도는 묘한 계책을 미인에게 맡겨두고, 무기도 병사도 쓰지 않았네. 쓸데없이 호뢰관에서 세 번이나 싸웠구나, 승리의 노랫소리 봉의정에서 아뢰네.) 魯玉川、宋祥瑞等(輯校), ≪三國演義會評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97쪽.

布愁悶不決, 入告貂蟬. 貂蟬曰: “將軍與妾作主, 勿輕騎自出.”……布終日不出, 只守嚴氏、貂蟬飮酒, 以解愁悶.	布聞言愁悶不決, 入告貂蟬. 貂蟬曰: “將軍與妾作主, 勿輕騎自出.”……布於是終日不出, 只同嚴氏、貂蟬飮酒解悶.

초선의 만류로 여포가 놀면서 전쟁을 피하다 결국 조조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앞서 대의를 위한 헌신을 추구하던 초선의 형상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다. 이는 오히려 평화 속에서 여포와 함께 살고 싶은 아내 초선의 형상과 비슷하다. 작가는 연환계에서 초선의 역할을 돋보이게 하였다. 동탁을 죽인 후 초선은 인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였으므로 작가가 더 이상 초선이라는 인물의 뒷이야기를 신경을 쓰지 않고 평화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이에 평화에서는 초선의 형상이 일관적으로 그려지지만, 소설에서는 전후로 차이가 있어 같은 인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변화된 형상을 보인다.

가정본에서는 초선의 결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여포가 죽은 후, 짧게 초선의 처지가 서술된다.[71] 그러나 모종강본에서는 여포가 죽은 후, 초선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초선의 첫 등장과 계략을 수행하며 보여주는 활약상의 의미가 강조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초선이라는 인물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초선의 형상을 살펴보면 평화 속에서 초선은 개인의식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던 여성 인물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설에서는 강한 개인의식을 가진 연환계의 주도자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선의 형상은 더욱 풍부해졌다. 또한 초선은 왕윤이 베푼 은혜를 갚고자 하고 아울러 천하의 안위를 생각하는 형상으로 변하여 여러 중심 인물 사이에서 자신의 매력을 펼치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초선이 잡극이나 소설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초선의 결말은 없거나, 있어도 희미하게 그려진다. 평화에서

71) 操將呂布妻小並貂蟬載回許都, 盡將錢帛分犒三軍. (조조는 여포의 처와 자녀, 그리고 초선을 데리고 허도로 돌아가, 모든 돈과 물건을 세 군대에게 나눠주었다.) ≪嘉靖壬午本三國演義≫, 羅貫中, 北京: 人民出版社, 2007, 142쪽.

는 초선의 말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잡극에서도 초선의 운명이 갈라진다. 소설에서 초선은 연환계에 중요한 역할을 도맡아 수행하고 수동적인 여성 인물의 틀에서 벗어나 강한 개인의식을 보여주었다. 반면 초선의 운명은 작가마다 다르게 그려진다. 일부 작가들은 부귀영화를 읊은 극으로 초선의 삶을 마무리하였고, 또 다른 작가들은 미인이 화의 근원이라는 봉건적 사고를 반영한 듯 죽음으로 초선의 말로를 마무리하였다. 소설에서는 가정본에서 초선이 여포의 처와 함께 하도로 떠나는 결말을 맺지만 모종강본에서는 여포가 죽은 후 초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술 없이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여운을 남겼다.

3.2 甘夫人 및 糜夫人

유비의 부인으로 감부인, 미부인 그리고 손부인이 있다. 어떤 문학작품에서든 감부인과 미부인은 항상 함께 언급되므로 본고에서도 감부인과 미부인을 하나의 장 안에서 견주어보며 다루려 한다.

3.2.1 정사 ≪三國志≫ 속의 감부인 및 미부인

정사에서 감부인은 유비의 첩으로 유선을 낳았다는 서술이 있다. 장판에서는 조운의 보호로 조조의 군대를 피한 일이 있으며 사후에는 황사부인과 소열황후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은 ≪삼국지·촉서·이주비자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비의 감황후는 沛縣 사람이다. 유비가 예주에 부임하여 소패에서 살 때, 그녀를 맞아 첩으로 삼았다. 유비는 본처를 여러 차례 잃었으므로, 항상 감황후가 집안일을 관리했다. 감황후가 유비를 따라 형주로 갔을 때, 유선을 낳았다. 마침 조조의 군대가 도착하여 유비를 당양 장판까지 추격했다. 그 당시 상황이 매우 위급했으므로, 유비는 감황후와 유선을 버리고

떠났는데, 조운의 보호에 의지하여 난을 면했다. 감황후는 죽은 뒤에 남군에 매장되었다. 장무2년(222)에 시호를 황사부인으로 추증하고 촉으로 이장시켰는데, 영구가 도착하기 전에 유비가 병사했다. ……지금 황사부인에게 응당 존호를 있게 하여 추운 황천에 있는 혼령을 달래주어야 합니다. 신은 뇌공 등과 시법을 고찰하니 소열황후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先主甘皇后, 沛人也. 先主臨豫州, 住小沛, 納以爲妾. 先主數喪嫡室, 常攝內事. 隨先主於荊州, 產後主. 值曹公軍至, 追及先主於當陽長阪, 於時困偪, 棄後及後主, 賴趙雲保護, 得免於難. 後卒, 葬於南郡. 章武二年, 追諡皇思夫人, 遷葬於蜀, 未至而先主殂隕. ……今皇思夫人宜有尊號, 以慰寒泉之思, 輒與恭等案諡法, 宜曰昭烈皇后.)

감부인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위와 같다. 유비가 소패에서 살 때 감부인을 첩으로 삼았지만 처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형주에서 유선을 낳고 당양 장판 전투에서 조운의 보호로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제갈량은 감부인이 품행이 바르며 인덕을 닦아 그 자신을 맑고 공순하게 한다고 평가 하였다.[72]

미부인은 糜竺의 여동생으로 유비의 부인이 되었다. 유비가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미부인의 오빠인 미축이 재물을 유비에게 주었다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미축은 자가 자중이며 동해군 구현사람이다. ……건안 원년(196년), 여포는 선주가 원술에 대항하러 나간 틈을 타서 하비를 습격하고, 선주의 처자식을 붙잡았다. 선주는 광릉의 해서 지방으로 군대를 돌렸다. 미축은 이에 선주에게 누이를 부인으로 들이게 하고, 노객 2천 명과 금은 및 재물로써 군자금을 도왔다. 이때 (선주는) 곤란하고 궁핍했으나 이에 힘입어 다시 떨칠 수 있게 되었다.

(糜竺, 字子仲, 東海朐人也 ……建安元年, 呂布乘先主之出拒袁術, 襲下邳, 虜先主妻子. 先主轉軍廣陵海西, 竺於是進妹於先主爲夫人, 奴客二千, 金銀貨

72) 丞相亮上言: “皇思夫人履行脩仁, 淑愼其身.” (제갈량이 말하였다. 감부인은 품행이 바르며 인덕을 닦아 그 자신을 맑고 공순하게 하였다.) ≪裴松之註三國志≫ <蜀書・二主妃子傳>, (陳壽)裴松之註,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9, 511쪽.

幣以助軍資; 於時困匱, 賴此復振.)

유비는 감부인과 미부인을 모두 첩으로 삼았다. 감부인은 집안일을 책임지며 미부인의 집안은 유비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정사에서는 감부인이 사망하고 황사부인과 소열황후로 차례로 추증했던 반면, 미부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시호도 없다.

3.2.2 平話 속의 감부인 및 미부인

평화 속의 감부인은 역사 기록과 달리 처음부터 유비의 처로 소개된다. 그런데 미부인은 '미씨'로만 지칭되며 출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평화에서 두 부인은 함께 등장한다. 이들은 여기에서 통곡한다.[73]

> 감부인과 미부인은 아두를 안고 우러러 통곡하며 관우에게 말하기를 "유비와 장비는 이미 죽었는데,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 (有甘夫人、糜氏抱阿斗, 仰面大慟, 告關公: "皇叔並小叔痛死, 我家如之奈何?")

위와 같이 유비는 조조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갔다. 유비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감부인와 미부인은 유비의 소식이 가짜임을 알지 못하고 통곡하며 등장한다. 등장에서 그들은 남성에게 의지하며 사는 연약한 여성 형상을 띄었다. 이후 관우는 몇몇 조건[74]을 제시하여 조조에게 가짜 항복을

73) 미부인은 여기서의 첫 등장 전에 여포에게 잡혔다가 풀려났다는 서술이 있다. 呂布大喜, 遂將糜夫人並太子阿斗, 出城見玄德. (여포가 크게 기뻐하여 미부인과 유선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 현덕을 만났다.) ≪三國志平話≫,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59, 38쪽.

74) 我與夫人, 一宅分兩院. 如知皇叔信, 便往相訪. 降漢不降曹. 後與丞相建立大功. 此三件事依, 卽納降, 若不依, 能死戰. (저와 부인들은 한 집을 두 마당으로 나누어 살고 있습니다. 만약 황숙의 소식이 들려온다면 만나러 가겠습니다. 우리는 한나라에게 항복하지만 조조에게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후에 승상과 함께 큰 공을 세울 것이다. 이 세 가지 사항이 지켜진다면 항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죽도록 싸울

하였다. 이후 두 부인이 다시 나오는 장면에서는 두 사람이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며 우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 그날 저녁 두 형수의 집에 갔을 때, 두 형수가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며 영정 앞에서 울고 있었다. 관공은 미소를 지으며 "두 분께서는 울지 마십시오. 형은 아직 (살아)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감과 미 두 부인은 "아주버님께서는 술에 취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관공이 말하기를 "형님이 기왕 원소에게 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수님, 옷을 챙겨서 조승상을 떠나 원소가 사는 곳으로 가도록 하시오."
>
> (當日天晚, 去二嫂宅內, 見二嫂靈前燒香奠酒啼哭. 關公笑曰: "二嫂休哭, 哥哥只在裏." 甘、糜曰: "叔叔醉也?" 關公曰: "聽得哥哥在冀王袁紹處見有. 嫂嫂收拾行裝, 來日辭曹丞相, 往袁紹處.")

두 부인이 제사를 지내며 우는 모습을 관우가 보고 유비가 아직 살아 있음을 알려주었다. 감부인과 미부인은 관우가 취한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놀랍고 믿기 어려워하는 모습이다. 관우가 유비를 찾기 위해 형수 두 명과 함께 고성으로 떠난다는 서술이 이어진다.[75] 여기까지 평화 속 두 부인은 여포에게 잡혔다가 풀려난 유비 가족의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나 유비가 죽은 줄로 알고 슬퍼하는 의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덧붙여 두 사람은 관우의 용맹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생사를 다투는 순간, 감부인은 유비에게 유언을 남기고 유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로써 평화의 감부인은 전통적인 현처양모의 형상으로 그려졌다. 그녀는 오로지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남편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살까지 한 어머니이다.

것입니다.) 앞의 책, 52쪽.

75) 唯關公獨自將領甘、糜二夫人過千山萬水. (오직 관우는 감부인과 미부인을 데리고 천리를 행하였다) 앞의 책, 59쪽.

나중에 조운은 말 한 필을 타고 조조의 군대로 들어간다 …… 그러던 중 감부인이 오른손으로는 그 옆구리를 감싸고 왼손으로는 아두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조운이 말에서 내리자, 감부인은 그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이 조조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조운, 당신이 마침내 왔군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에 붙은 화살을 손으로 빼니 창자가 나왔다. "황숙은 늙어서 일찍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죽었습니다! 아두를 데려가 황숙에게 바치시오." 부인은 말을 마친 뒤, 남쪽으로 성벽으로 가서 조운과 아두를 떠나보내고 성벽 밑에서 죽었다. 조운이 성벽을 밀고 내려와 그녀의 시신을 덮었다.

(後說趙雲, 單馬入曹軍中……猛見甘夫人右手抱其脅, 左手抱阿斗. 趙雲下馬, 甘妃見趙雲, 淚不住行下, 言: "家族, 曹公亂軍所殺也." 言: "趙雲, 你來得恰好!" 右脅着箭, 手起腸出也. "皇叔年老, 尚無立錐之地. 我今已死矣! 你把阿斗當與皇叔." 夫人言畢, 南至牆下, 辭了趙雲、阿斗, 於牆下身死. 趙雲推倒牆, 蓋其屍.)

조운은 유비에게 감부인과 미부인이 조조에 의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이로써 미부인도 죽었다는 것을 독자에게 알린다. 유비는 두 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장을 잃을 뻔한 분노만을 표현하였다. 유비가 가족의 목숨보다 조운과 같은 훌륭한 장수의 목숨을 보다 아끼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속 주변 인물들은 그의 행동을 선량하다고 평가하였다.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유비나 다른 인물의 반응이 적합해 보이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나 사사롭게 자신의 가족을 우선하기보다 훌륭한 장수를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유비의 모습이 작품이 창작된 당대에는 좋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조운은 남쪽으로 가 황숙을 만나, 절을 하고 말하기를 "감부인과 미씨는 모두 조조에게 죽었으며, 제가 군대의 혼란에서 태자를 구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조운은 태자를 품에 안고 황숙을 만났다. 황숙은 태자를 잡아 땅에 던졌다. 신하들이 모두 크게 놀라 황숙에게 알렸다. 현덕이 "내 아들을 위해 훌륭한 장군 조운을 부러뜨릴 뻔했다!"라고 말했다. 황숙이

말을 마치자 다들 그의 선함을 칭찬했다.

(趙雲南行, 見皇叔禮畢, 言: "甘妃、糜氏皆爲曹公所殺; 亂軍中救太子而脫." 趙雲抱太子見皇叔. 皇叔接太子, 擲於地上. 衆官皆驚, 告皇叔. 玄德曰: "爲辱子, 幾乎折了吾之良將趙雲!" 皇叔言畢, 衆稱其善.)

이상으로 평화에서는 두 부인의 이야기가 끝난다. 두 사람은 결국 전쟁터에서의 죽음이라는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평화 속 두 부인의 형상을 도출하면 인질로 여포에게 잡히거나 형수의 신분으로 관우의 호송을 받는 등 유비의 수하를 돋보이게 한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 아니다. 감부인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조운과 아두가 무사히 전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한 것 역시 결국에는 조운과 유비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받게 만든다. 평화 속 감부인과 미부인은 늘 함께 등장하는 유비의 부인들로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미부인의 결말은 조운에게서 죽었다는 소식으로만 전해진다. 인물로서는 제대로 된 결말을 맺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2.3 雜劇 속의 감부인 및 미부인

원 잡극 ≪관운장천리독행≫은 감부인 위주로 완성된 단본 잡극이다. 이에 감부인에 대한 서술이 보다 섬세하게 이루어졌다. 미부인에 대한 표현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잡극과 평화의 미부인 형상을 견주어보면 잡극에서의 미부인이 비교적 생생한 인물로 느껴진다.

잡극에서 유비가 조조를 공격하려 할 때, 두 부인과 이를 상의하였다. 장비의 계책을 듣고 난 감부인은 좋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실행 시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였다. 유비가 계책을 행해도 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부인들과 상의한다는 부분에서 감부인은 병법에 식견을 가진 여성의 형상을 보여주었다. <정궁・단정호>에서 감부인이 낸 조조에 대한 평가와 현재 맞닥뜨린 형세에 대한 의견도 감부인이 지혜롭고 신중한 인물임을 보여준다.

【정궁】【단정호】그는 너무 교묘하므로 내가 감히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컨대 조조는 지혜롭고 간사한 사람이며 작은 오라버니는 어리석고 용감합니다. 주공! 싸움에서 이기려면 당신이 삼군에게 조조의 군대를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조조가 몰래 군사를 정렬할까 두렵겠지만 당신은 싸움을 끝내서 이겨야 합니다.

(【正宮】【端正好】我則怕他用心機, 敢可兀的鋪謀定計. 我想這曹操是那智足奸雄, 信著俺小叔莽戇多英勇. (帶云)主公, 哎!(唱)你則合操士馬教三軍明堤備破曹兵, 則怕他排隊伍暗伏兵, 則要你得勝也把他這干戈來定.)

이후 유비와 장비는 조조에게 패배하고 두 부인도 잡혀버렸다. 유비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감부인은 위험함을 감지하였다.[76] 관우가 개인적인 결정으로 조조에게 거짓 항복하는 평화와 달리, 잡극에서는 항복할지 말지를 감부인과 상의한다.

(관우) 형수님, 조 승상이 저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항복하지 않으면 조 승상이 형수님의 목숨을 해칠까 두렵습니다. (감부인) 오라버니, 저는 별 상관없습니다. (창) 근데 조조 이놈이 당신을 해칠까 두렵습니다. (관우) 형제간의 정을 생각하면 어떻게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감부인) 항복하지 않으면 그가 노하여 한편으로 병사들을 이끌고, 한편으로 싸움을 하기 위해 군사들을 배치할 것입니다. 오라버니, 항복하지 않으면 조 승상이 우리를 죽일 것인데 어떻게 눈을 뜨고 가까이 볼 수 있단 말입니까?

(關末云)嫂嫂, 如今曹丞相要招安我, 我不降他來, 則怕曹丞相傷害著你性命也. (正旦云)叔叔, 俺可打甚麼不緊也. (正旦唱)則這曹也波賊, 恐害著你. (關末云)我想哥哥兄弟之情, 我怎生歸降他?(正旦唱)你若是不歸降他怒從心上起. 一壁廂統著士卒, 一壁廂探著陣勢, (云)叔叔, 你若不肯投降, 曹丞相將俺這三房頭家小, 叫聲殺壞了. (唱)你那其間敢眼睜睜怎近得.)

76) 曹丞相倚强壓弱, 俺如今受困遭危. (조조는 강한 힘을 빌려 약자를 억압하고, 나는 지금 곤경에 처해 있으며 위험에 빠져있다.) ≪全元曲≫ 第八卷, 徐征、張月中 (編),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8, 5857-5858쪽.

관우가 선택의 기로에 서서 감부인에게 의견을 묻자 감부인은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관우가 위험에 빠질까 염려하였다. 또한, 관우가 형제간의 정을 져버리고 항복할 수는 없다는 말에, 감부인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조조가 우리를 다 죽일 것이라 주장하며 항복을 권하였다. 이에 관우는 평화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여 조조에게 항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감부인은 중심 인물인 관우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강조되었다. 감부인은 대의를 위하는 여성 인물로 묘사되었다. 감부인은 아내로서 집안사람들을 보살피는 안주인이자 빠른 상황 판단을 내리는 인물로 분명한 개인 의지를 드러내었다. 잡극의 감부인은 평화에 비해 보다 풍부해진 인물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조조에게 항복한 후, 관우는 벼슬에 봉해져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77] 그러나 감부인과 미부인은 관우가 부귀영화에 빠져 유비와의 의리를 더이상 지키지 않게 될까 불안해하였다.[78] 불안한 상황 속에서 감부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이 대의를 펼치지 못한 恨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남려】【일지화】오늘은 내가 가슴 속의 걱정을 떨치지 못하는데 어찌 미간의 주름을 펴겠습니까. 나는 가족과 나라의 한을 품고 있으니 눈썹을 찡그려 조정에 대한 근심이 가득합니다. 내가 편지를 보낼 데가 없고 나를 구해 줄 사람도 없으니 오늘 같은 쓸쓸한 처지에서 언제 벗어날

77) (關末上, 云)某關雲長自到許都, 見了聖人, 封某爲壽亭侯之職. 著曹丞相待某甚厚, 上馬一提金, 下馬一提銀. (관우가 등장하며 말한다) 내가 허도에 도착하여 성인을 뵙고 수정후로 봉해졌습니다. 조조는 나를 후하게 대우하여 말에 오르면 금을 주고 말에서 내리면 은을 주었습니다.) 앞의 책, 5862쪽.

78) (小旦云)姐姐, 想俺二叔叔如今降了曹丞相, 受了封贈. 他如今一身榮顯, 他那肯想他那哥哥玄德公. (소단이 말한다) 언니, 지금 둘째 오라버니는 조조에게 항복하여 칭호를 받았으니 이젠 명성이 높아져 아마 그의 형인 현덕공을 다시 생각할 일이 없을 거야.) 앞의 책, 5864쪽.

(正旦唱)俺叔叔花也成蜜也就, 可便地久天長怎了救? (정단이 노래한다) 우리 둘째 오라버니는 꽃도 꿀이 되니(잘 살고 있다는 뜻),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앞의 책, 같은 쪽.

수 있을까요?

(【南呂】【一枝花】今日個難除我腹內憂, 怎解我眉間皺. 我可也心懷家國恨, 則我這眉鎖他這個廟堂愁. 我可便有信難投, 眼睜睜無人救, 今日個這淒涼何日休.)

이와 같이 감부인은 집안과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자신이 무력한 처지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잡극에서의 감부인은 평화와는 달리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과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여성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미부인은 관우가 호사스러운 생활에 빠진 것을 의심하며, 이를 장비의 계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그녀가 유비를 다시 만날 수 없을까 봐 걱정하는 모습은 다음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단) 언니, 둘째 오라버니가 이제 조조에게 항복하고 벼슬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니 어찌 형인 현덕을 생각하겠습니까?

(소단) 이 모든 것은 그때 셋째 오라버니인 장비의 잘못입니다.

(소단) 언니, 현덕과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小旦云)姐姐, 想俺二叔叔如今降了曹丞相, 受了封贈. 他如今一身榮顯, 他那肯想他那哥哥玄德公.

(小旦云) 當日都是三叔叔張飛的不是了也.

(小旦云) 姐姐, 俺想玄德公何日相見也?)

위와 같이 미부인은 항상 유비를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에 감부인과 달리 나라보다는 자신의 남편과 자신을 우선하는 여성으로 평가된다. 미부인은 전통적인 여성 형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부인의 형상을 시대적으로 변화된 여성상을 드러내지 않는 인물로 여기기 힘들다. 오직 남편과 재회를 바라는 미부인의 모습은 잡극 속의 초선처럼, 원대 잡극 속의 여성 인물이 가지는 일종의 특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미부인의 형상에 견주어보면 감부인과 같이 강한 박력을 가진 여성 인물은 흔하지 않다. 따라서 극본에서는 감부인의 강인한 성격이 더욱 부각된다.

관우는 유비가 간 곳을 알고 있었지만 두 부인에게 이를 숨겼다. 관우는 술에 취한 척하며 두 부인을 만났다. 그러나 유비의 소식을 관우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 감부인은 관우가 부귀에 빠져 유비를 잊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비판하였다.

【홍작약】당신이 새로운 수정후라니 ……(감부인) 헛되게 살찐 말과 가벼운 가죽옷을 받으셨네요. 당신이 도원결의를 했을 때 도살한 말과 소가 낭비되었어요. ……(창)당신은 이제 매일 좋은 음식과 술을 먹으며 과거의 원수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군요. 몇 년 동안 우리와 동행한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렸어요!

【보살양주】이제 당신은 벼슬을 받자 옛일을 바로 잊어버렸군요. 교양이 있는 작은 오라버니께서 ≪좌전≫과 ≪춘추≫를 헛되게 읽었습니다. 나는 말을 듣고 또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형제가 서로 지키기가 어려워졌으니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맺은 형제의 의리는 결국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세월 속에 묻혀버렸네요.

(【紅芍藥】你道是新來加你做壽亭侯……(正旦唱)枉受了些肥馬輕裘. 這的是你桃園結義下場頭, 枉了宰白馬殺烏牛. ……(正旦唱)你每日吃堂食飲禦酒, 你全不記往日的冤讎. 想著您同行同坐數年秋, 到如今一筆哎都勾!

【菩薩梁州】今日個你建節來封侯, 登時間忘舊. 知書的小叔, 你可便枉看了些≪左傳≫≪春秋≫. 我這裏聽言說罷淚交流, 弟兄今日難相守, 甚日個得完就. 准想你結義賓朋不到頭, 則他這歲月淹留.)

위와 같이 감부인은 관우가 지금의 호사스러운 생활과 봉해진 벼슬에 빠져 형제간의 의리를 잊었다는 것을 일일이 지적하며 관우를 책망하였다. 이 장면에서 감부인의 분노와 슬픔이 충분히 표현되어 부인의 강한 성격이 도출되었다.

감부인의 발언에 분노한 관우는 책상을 뒤집어엎는다. 두 부인이 놀라 무릎을 꿇게 되면서[79], 감부인이 남성의 지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여성의

79) (關末云)我將這條凳椅桌都打碎了, 幔帳紗櫥都扯掉了. (관우가 말한다)내가 이 의자, 탁자, 책상을 다 부쉈고, 휘장과 찬장도 다 찢어버렸습니다.) 앞의 책, 5865쪽.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어 두 부인이 관우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부분에서 감부인은 남편과 함께 끝까지 버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관우가 유비가 있는 고성까지 두 부인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다. 관우의 행동을 이끌어낸 것은 감부인의 발언에 영향을 받아서이며 이는 감부인의 발언이 결코 효과 없이 묻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제3절에서 조조는 관우가 두 부인을 데리고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세 가지 계책을 준비한 추격병을 보내 관우를 잡으려 했다. 평화에서 이 장면은 관우가 스스로 이 세 가지 계책을 간파하여 피해 도망갔다. 이와 달리, 잡극 속의 관우는 감부인 덕분에 세 가지 계책을 파악하고 피하게 된다.

> (감부인) 오라버니, 조조가 병사를 이끌고 쫓아왔으니 부디 조심하시오.
> (감부인) 오라버니, 말에서 내려가지 마시오.
> 【조천자】 ……그는 굉장한 예의를 갖추고 후한 선물을 준비하고, 직접 향기로운 술을 가져왔습니다. 제 짐작에는 이 중에 사람을 죽일 칼이 감춰져 있을 겁니다. 오라버니, 그가 술에 속임수를 숨겼을지도 몰라 두려우니 내 말을 따르십시오.
> ((正旦云)叔叔, 曹丞相領兵趕將來, 你小心在意者.
> (正旦云)叔叔, 你休下馬去.
> 【朝天子】……我見他厚禮卑辭, 親捧香醪, 這裏面安排下斬人刀. 叔叔你喑約, 則依著你嫂嫂, 則怕他酒裏面藏有機妙.)

위와 같이 조조의 추격병들의 위협을 신경 쓰지 않은 관우[80]에게 감부인은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한다. 관우는 형수인 감부인의 조언을 따라 말에 내려오지도 않았다. 이로써 조조의 계책은 전부 실패하게 되었다. 이 장면에서 감부인은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 지혜롭게 위기를 넘겼다. 이 감부인의 조언은 관우뿐만 아니라 적인 조조도 어느 정도 알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

(云)妹妹, 俺跪著. 二叔叔, 可憐見俺姊妹二人. (정단이 말한다) 언니, 우리 무릎을 꿇자. 둘째 오라버니는 우리를 불쌍히 봐주세요.) 앞의 책, 5866쪽.

80) (關末云)嫂嫂, 他與咱送路, 他有甚麼歹意? (관우가 말한다) 형수님, 그는 우리를 함께 길에 보내려는데, 그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있을까요?) 앞의 책, 5869쪽.

었다.

제4절에서 유비 일행을 만나기 전, 감부인은 다음과 같이 창을 하였다.

【쌍조】【신수령】 당신은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했기 때문에 형제간의 감정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라버니, 당신은 하늘의 백옥 기둥이고 바다의 보라색 들보입니다.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내가 재회할 날을 바랄 수 있겠네요.

(【雙調】【新水令】你保護的俺一家兒妯娌得安康, 則他弟和兄這其間別來無恙.

叔叔你是那檠天白玉柱, 架海的紫金梁. 義勇忠良, 俺今日團圓日不承望.)

위와 같이 감부인은 관우가 도중에 집안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을 보고나서야 비로소 유비와의 의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이에 감부인은 도중 내내 관우를 의심해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장면은 감부인의 신중한 성격을 보여준다. 감부인 역시 미부인과 다름없이 유비와 함께 단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점 또한 이 장면에서 드러난다.

유비와 관우가 만난 후, 유비는 관우가 왜 조조에게 항복했는지 물었으나 관우는 그런 마음은 없었다고 해명하였으나 유비는 관우를 더이상 형제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였다.[81] 평화에서도 똑같이 관우가 유비에게 오해를 받는 서술이 있었다. 이후 관우가 蔡陽을 죽이고 나서야 오해가 풀렸다는 내용과 달리, 잡극에서는 감부인이 나서서 유비와 장비의 의심을 풀어주었다. 감부인의 이러한 행동은 오해로 빚어진 유비와 관우 사이의 불화를 없애고 형제간의 굳은 의리를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전전환】우리 가족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한 척했던 운장이 아니었다면 …… 둘째 오라버니만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조조의

81) (劉末云)兄弟, 你怎生不想桃園結義之心, 因何投降了曹操? (關末云)你兄弟無降曹之心也. (劉末云)我斷然不認你. (유비가 말한다) 형제여, 왜 너는 의리를 맺을 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조조에게 항복했는가? (관우가 말한다) 나는 조조에게 항복할 마음이 없었어요. (유비가 말한다) 나는 너를 절대 못 봐주겠다.) 앞의 책, 5874쪽.

진영에 있었을 겁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어찌 당신의 형제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었으며, 오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부인) 셋째 오라버니, 화내지 마시오. 둘째 오라버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목숨을 어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殿前歡】若不是這漢雲長, 則爲俺這家屬不得已可便詐投降. ……若不是二叔叔, 俺三房頭家小, 都落在曹營. (唱)怎能勾那弟兄每完聚, 也不能勾今日得這還鄉.

(正旦云)三叔叔息怒, 若不是二叔叔呵, 那裏取俺生命來也.)

위와 같이 감부인은 유비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관우의 해명을 도와줬다. 이를 들은 유비는 오해를 풀었고, 아직도 화난 장비에게는 관우가 자신의 집안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관우가 추격해 온 채양을 죽이고 나서야 장비는 관우를 다시 믿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감부인은 형제간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 번이나 나서서 해명을 하였다. 감부인은 전통적인 여성의 형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동력으로 형제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잡극에서의 감부인의 형상을 정리하면, 감부인은 때에 맞게 명확한 판단을 내릴 줄 알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유비는 감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관우와 장비도 감부인의 조언에 귀 기울인다. 평화에서는 감부인이 전통적인 현모양처의 형상에 따른 순응적인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잡극에서의 감부인은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과 융통성을 보여준다. 또한 감부인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나라를 위한 대의를 중시하는 인물이자 대가족의 단란을 위해 애쓰는 집안의 웃어른과 같은 인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감부인은 행동력과 지혜로움 그리고 대의를 갖춘 인물로 잡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면 단본 잡극에서 소단(小旦)인 미부인은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다. 미부인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은 미부인은 감부인과 같이 집안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는 성격을 지녔지만, 감부인처럼 통찰력이 있거나 빠른 판단력을 가진 인물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화에서는 미부인이 감

부인과 함께 등장한다. 미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은 전언으로 알게 되는 등 미부인의 형상이 평화에서는 단편적으로 드러나 있다. 반면 잡극의 미부인은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인물로 묘사되어 비교적 제대로 된 형상을 도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3.2.4 小說 속의 감부인 및 미부인

어느 판본이든 소설에서 두 부인은 함께 비교적 간단히 소개된다.

> 감부인은 소패 사람이고 미부인은 미축의 누이다.
> (甘夫人乃小沛人也, 糜夫人乃糜竺之妹也.)

소설에서는 소패 출신의 인물인 감부인과 미축의 누이인 미부인 각각의 신분을 밝히면서 두 부인을 등장시켰다. 중간에는 두 부인이 나오지 않다가 평화, 잡극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조조에게 인질로 잡힌 뒤 관우와 만나게 되면서 다시 등장한다.

가정본	모종강본
감·미 두 부인은 관공이 왔다는 말을 듣고 급히 나와서 맞이한다. 관공이 통곡하면서 땅에서 절한다. 두 부인이 말한다. “황숙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관공이 말한다. “행방을 모르겠습니다.”	감·미 두 부인은 관공이 왔다는 말을 듣고 급히 나와서 맞이한다. 관공이 계단 밑에서 절하고 말한다. “이번에 두 형수님을 놀라시게 했으니 천만 죄송합니다.” 두 부인이 말한다. “황숙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관공이 말한다. “행방을 모르겠습니다.”
(甘、糜二夫人聽的關公到來, 急出迎之. 公乃痛哭, 拜於地上, 二夫人曰: “皇叔今在何處?” 公曰: “不知去向.”)	(甘、糜二夫人聽得關公到來, 急出迎之. 公拜於階下曰: “使二嫂受驚, 某之罪也.” 二夫人曰: “皇叔今在何處?” 公曰: “不知去向.”)

위 장면에서 두 판본은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가정본의 내용을 살

펴보면 조조에게 잡힌 두 부인을 보고 관우가 통곡하며 절을 한다. 관우의 비통한 감정이 두 부인과의 만남으로 인해 폭발하였다. 모종강본에서 관우는 비교적 점잖은 모습을 보인다. 비통함이나 죄송함과 같은 인간적 감정을 드러내는 관우의 모습이 표현되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관우가 두 부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이다.

소설 속 관우는 이미 조조에게 항복하고 나서 두 부인을 만났다. 잡극에서 관우는 감부인과 상의하고 세 가지 조건을 조조에게 제시하였으나 이와 다르게 소설에서 관우가 두 부인을 만난 때는 조조에게 항복의 조건을 이미 제시하고 나서였다. 이에 두 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정본	모종강본
감부인이 말한다. "……아주버니가 이미 그 일을 승낙하셨으면 그만이지 다시 우리에게 물으실 필요 있겠습니까? 다만 걱정되는 것은, 훗날 아주버니가 황숙을 찾아가시는 걸 조조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것뿐입니다." …… 감, 미 두 부인이 말한다. "아주버님 뜻대로 하시오. 무슨 일이든 구태여 우리네 여자들과 의논하실 것 없습니다."	감부인이 말한다. "……아주버니가 이미 그 일을 승낙하셨으면 그만이지 다시 우리에게 물으실 필요 있겠습니까? 다만 걱정되는 것은, 훗날 아주버니가 황숙을 찾아가시는 걸 조조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것뿐입니다." …… 두 부인이 말한다." 아주버님 뜻대로 하시오. 무슨 일이든 구태여 우리네 여자들과 의논하실 것 없습니다."
甘夫人曰: "……叔叔旣已領諾, 何必問乎? 只恐久後曹丞相不容去尋皇叔." 甘、糜二夫人曰: "叔叔自家裁處, 凡事不必問俺女流.	甘夫人曰: "……叔叔旣已領諾, 何必問我二人? 只恐日後曹操不容叔叔去尋皇叔." 二夫人曰: "叔叔自家裁處, 凡事不必問俺女流."

두 판본은 약간의 표현 차이는 있지만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이미 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여자인 자신들에게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 부인은 오로지 유비가 어디에 있으며 유비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려한다. 두 부인의 형상이 이 장면까지는 뚜렷하게 표현되지 않았다. 두 인물은 전통적인 여성의 형상에 머물러 있다. 소설은 평화나 잡극과 달리 남자인 관우가 중대한 사안을 여자들과 의논할 필요는 없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여기서 작가가 생각하는 일종의 여성상을 묘사했다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는 두 부인이 역시 항상 함께 나타난다. 두 부인은 유비에 대한 소식을 묻거나[82] 유비의 생사를 걱정하며 울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평화에서 보이는 두 인물 형상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그녀들은 울기만 하는 평화의 형상과 달리 관우를 다그치기도 하였다. 관우가 유비의 행방을 알게 된 후에도 잡극과 마찬가지로 소설에서는 관우가 바로 두 부인에게 유비의 생사를 알려주지 않았다. 관우가 감부인의 비난에 화를 낸 일이 있고, 평화에서처럼 두 부인이 관우가 유비의 행방을 숨기는 것을 알게 되자 관우를 불러 엄격하게 대하는 장면이 있다.

가정본	모종강본
부인들이 급히 운장을 불러 꾸짖는다.“황숙께서는 그대를 저버리신 적이 없는데, 아주버니는 지금 조조의 은혜를 입자 전날의 의리를 순식간에 잊고 사실대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아 우리를 죽도록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버니가 스스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보검으로 우리의 머리를 베어 그대의 의심을 푸십시오. 더이상 속이지 마세요!” 운장은 울면서 머리를 조아려 말한다. ”형님께서는 지금 확실히 하북에 계신다고 합니다. 아직 형수들께 감히 알리지 않은 건 말이 새나갈까 봐서였습니다. 이 일은 차	부인들이 급히 운장을 불러 꾸짖는다.“황숙께서는 그대를 저버리신 적이 없는데, 아주버니는 지금 조조의 은혜를 입자 전날의 의리를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우리들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관공은 머리를 조아려 말한다.“형님께서는 지금 확실히 하북에 계신다 합니다. 아직 형수들께 감히 알리지 않은 이유는 말이 새나갈까 봐서였습니다. 이 일은 차근차근 도모해야지 섣불리 할 수 없습니다.” 감부인이 말한다. “아주버니, 부디 속히 힘써보세요“

82) 內院二夫人哭倒地上, 不知爲何, 請將軍速入. (원 안에 두 부인께서는 땅에 엎드려 통곡하십니다.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으니 장군께서는 어서 들어가 보시기를 청합니다.) 魯玉川、宋祥瑞等(輯校), ≪三國演義會評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309쪽.

甘夫人曰: “叔叔兩番出軍, 可知皇叔音信否?” (감부인이 말했다. 아주버님께서는 두 번 출전하셨는데 혹시나 황숙의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앞의 책, 323쪽.

二夫人於門內痛哭曰: “想皇叔休矣!二叔恐我姊妹煩惱, 故隱而不言.” (두 부인이 문 안에서 통곡하며 말하기를, 아마도 황숙께서는 돌아가셨나 봅니다! 둘째 아주버님께서 우리가 번뇌할까 봐 숨기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앞의 책, 같은 쪽.

근차근 도모해야지 섣불리 할 수 없습니다.” 감부인이 말한다. “아주버니, 부디 속히 힘써보시고 천천히 하면 안 됩니다.”	
夫人急召雲長, 責之曰: “皇叔未嘗負汝, 你今受曹恩養, 忘舊日之義, 不以實情告我, 使我姊妹憂愁身死. 叔要自享榮貴, 就借寶劍斬我姊妹之首, 以絶汝之疑礙. 叔無相瞞也!” 雲長頓首流淚, 告曰: “兄今委在河北. 未敢教嫂嫂知者, 恐內走泄也. 事須緩圖, 不可以速.” 甘夫人曰: “叔宜上緊, 不可緩之.”	夫人急召雲長責之曰: “皇叔未嘗負汝, 汝今受曹操之恩, 頓忘舊日之義, 不以實情告我, 何也?” 關公頓首曰: “兄今委實在河北. 未敢教嫂嫂知者, 恐有泄漏也. 事須緩圖, 不可欲速.” 甘夫人曰: “叔宜上緊.”

잡극에서는 왜 관우가 두 부인에게 유비의 행방을 숨겼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소설에서는 유비의 행방이 노출될까 봐 이를 숨겼음을 두 부인에게 밝혔다. 가정본에서 감부인은 관우에게 옛날 형제간의 의리를 잊었다고 지적하며 조조의 편에 설 것이라면 우리를 죽이라고 위협하였다. 마지막에 감부인은 유비에게 빨리 갈 준비를 하라며 명령하였다. 이 장면에서 두 부인은 하루라도 빨리 유비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을 보여준다. 감부인의 논리적이고도 강력한 비판과 제안은 유비의 부인으로서 적합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느껴진다.

모종강본은 감부인의 위협도, 감부인의 지적을 받아들인 관우가 울면서 머리를 조아린 것도 삭제하였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가정본 속 관우의 감정이 격렬하게 묘사된 것과 다르다. 모종강본은 인물이 느낄만한 격한 감정을 비교적 가볍게 표현하였다. 모종강본의 관우는 강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는 모종강본의 특성이기도 한데 관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神格化되는 모습을 모종강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관우는 두 부인과 함께 유비를 찾아가는 도중, 잡극과 달리, 감부인의 조언 없이도 조조의 세 가지 계책을 스스로 간파하여 피하였다. 이를 보면 소설에서 감부인의 역할이 잡극에서보다 약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가는 도중 황건적이었던 周倉이 관우에게 와서 따르고 싶다고 말하자

관우가 두 부인에게 의견을 묻는다. 감부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가정본	모종강본
감부인이 말한다. “아주버니는 허도를 떠난 뒤로 홀로 다녀 여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으셨지만, 단 한 번도 다른 병사들이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요화를 거절하셨는데 이번에 황건적을 용납하여 따르게 하면 남들이 문제 삼을까 걱정됩니다. 저희 여자들의 얕은 소견만을 가지고 있으니 아주버니께서는 헤아리십시오.” 관우가 말한다. “형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감부인이 말한다. “아주버니는 허도를 떠나 뒤로 홀로 다녀 여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으셨지만, 단 한 번도 다른 병사들이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요화가 따르려 했으나 거절하셨는데, 이제 어째서 주창의 무리를 유독 받아들이려 하십니까? 저희 여자들의 얕은 소견이니 아주버니께서는 헤아리십시오.” 관우가 말한다. “형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甘夫人曰: “叔叔自離許昌, 於路獨行至此, 歷過多少艱難, 未曾要軍馬相隨. 前者廖化, 叔尙卻之; 今次又容爲盜者相從, 恐惹人議論. 我女輩淺見, 叔當斟量.” 公曰: “尊嫂之言是也.”	甘夫人曰: “叔叔自離許都, 於路獨行至此, 歷過多少艱難, 未嘗要軍馬相隨. 前廖化欲相投, 叔旣卻之, 今何獨容周倉之衆耶? 我輩女流淺見, 叔自斟酌.” 公曰: “嫂嫂之言是也.”

위와 같이 감부인은 주창 일행을 거두는 일에 난색을 보인다. 두 판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가정본에서는, 관우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른 병사들을 한 번도 따르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관우에게 지적하였다. 또 관우의 부하였던 廖化조차도 거절한 일이 있고 황건적이었던 주창과는 친분도 없는데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감부인은 자신을 낮추고 관우에게 결정권을 넘겨준다. 감부인은 지난 일을 살펴 앞으로의 일을 결정하는 지혜로움을 보여주었다.

모종강본에서는 주창을 적이라고 칭하지 않고, 요화와 같은 지위로 취급하는 것이 보인다. 이는 개편자인 모종강이 명나라 말기에 황건적의 난과 유사한 농민 반란을 겪은 경험 때문일 것이다. 명나라 말엽(1627년)에 농민들이 결렬하게 반란을 일으키자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였고 농민군과 명나라 정부가 연합하여 청나라 군대와 싸웠다. 가정본에서는 감부인이 주창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확실히 거부한 반면, 모종강본에서는 확실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주창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하여는 관우가 선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차이에서 가정본의 감부인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고, 현재 판본의 감부인은 보다 부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어서 관우는 두 부인과 함께 장비를 만나게 되었다. 장비가 관우의 변절을 질타하며 싸움을 거는 장면에서 두 부인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가정본	모종강본
감부인이 말한다. “오라버니가 형제분들이 가신 곳을 모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복하였는데,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에게 항복한 것이었습니다” …… 감부인이 말한다. “하비에 있었을 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감부인은 운장이 지내온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장비는 이야기를 다 듣더니 통곡하며 운장에게 절을 했다.	감부인이 말한다. “둘째 아주버니께서 형제분들이 가신 곳을 모르셨기 때문에 잠시 조씨에게 가 계셨던 것입니다. …… 미부인이 말한다. “아주버니께서 그간 허도에 계셨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두 부인은 관공이 지내온 일을 낱낱이 이야기했다. 장비는 이야기를 다 듣더니 통곡하며 운장에게 절을 했다.
甘夫人曰: “雲長並不知你等下落, 不得已而降漢, 不降曹.”……甘夫人曰: “在下邳時, 出於無奈.”……甘夫人說雲長前後歷過之事, 張飛方哭, 參拜雲長.	甘夫人曰: “二叔因不知你等下落, 故暫時棲身曹氏.”……糜夫人曰: “二叔向在許都, 原出於無奈.”……二夫人訴說關公歷過之事, 張飛方纔大哭, 參拜雲長.

위와 같이 두 부인은 관우에 대한 장비의 오해를 풀기 위해 관우가 배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해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판본 간 약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가정본에서는 항복을 하긴 했지만 조조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에게 항복하였다고 표현되었다. 그러나 모종강본에서는 애초에 항복한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고 하였다. 이 말의 목적은 관우가 의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려 유비에게 돌아가고자 하였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가정본에서는 감부인이 혼자 해명했지만, 모종강본에서는 미부인도 함께 해명한다. 이를 통해 두 부인이 적극적으로 관우의 편에 서서 대의를 위하고자 하는 형상이 나타난다.

소설에서는 평화나 잡극과 달리 유비가 관우를 의심하는 장면은 없어졌다. 따라서 잡극처럼 감부인이 유비에게 관우의 태도를 해명하는 장면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유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를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로 인해 감부인의 역할이 약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조에게 쫓겨 온 유비 일행은 長坂坡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유비 일행은 감부인, 미부인 그리고 유비의 아들 유선과 흩어지게 되었다. 조운은 부인과 少主를 구하기 위해 먼저 감부인을 찾았지만, 미부인, 유선과 헤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조운은 미축에게 감부인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을 부탁하였다.[83] 조운은 다시 미부인과 유선을 구하기 위해 떠난다. 앞부분에서는 미부인의 모습과 성격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 부분에서는 미부인의 활약상이 두드러지며 그의 형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가정본	모종강본
미부인은 3살 아이를 품고 땅에 앉아 울고 있었다. 조운이 급히 말에서 내려 미부인을 뵙게 되었다. 부인이 말하였다. “제가 장군을 만났으니 아두가 살았습니다. 부디 장군은 이 아이의 부친이 반평생을 두고 정처없이 떠다니면서 이 일점 혈육밖에 없음을 가엾게 생각하시고, 이 아이를 잘 보호하여 아이가 부친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해주신다면 첩은 죽어도	미부인은 아두를 품고 담벼락 아래 마른 우물가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 급히 말에서 뛰어내린 조운이 땅에 엎드려 절을 올리자 부인이 말했다. “제가 장군을 만났으니 아두가 살았습니다. 부디 장군은 이 아이의 부친이 반평생을 두고 정처없이 떠다니면서 이 일점 혈육밖에 없음을 가엾게 생각하시고, 이 아이를 잘 보호하여 아이가 부친의 얼굴

83) 甘夫人曰: “我與糜夫人被逐, 棄了車仗, 雜於百姓內步行, 又撞見一枝軍馬衝散. 糜夫人與阿斗不知何往. 我獨自逃生至此.” (감부인이 말하기를, 나와 미부인이 쫓기다가 수레를 버리고 백성들 틈에 숨어서 바삐 달아나던 중에 또 한 떼의 군마가 덮쳐들었습니다. 미부인과 아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만 혼자서 여기까지 도망쳤습니다.) 앞의 책, 523쪽.

雲請甘夫人上馬, 殺開條血路, 直送至長板坡. ……雲謂糜竺曰: “糜子仲保甘夫人先行, 待我仍往尋糜夫人與小主人去.” (조운이 감부인에게 말에 탈 것을 청한 뒤 큰 길을 뚫어 장판파까지 곧바로 호송했다 ……조운이 미축에게 말하기를, “그럼 미자중은 감부인을 모시고 먼저 가시오. 나는 다시 가서 미부인과 유선을 찾으러 가겠소.”) 앞의 책, 같은 쪽.

한이 없겠습니다!”	을 다시 보게 해주신다면 첩은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糜夫人抱着三歲幼子, 坐地上而哭. 趙雲慌忙下馬, 入見糜夫人. 夫人曰: “妾身得見將軍, 此子有命矣. 望將軍可憐他父親飄蕩半世, 只有這點骨肉. 將軍可護持此子, 教他得見父面, 妾死無恨矣!”	糜夫人抱著阿斗, 坐於牆下枯井之傍啼哭. 雲急下馬伏地而拜. 夫人曰: “妾得見將軍, 阿斗有命矣. 望將軍可憐他父親飄蕩半世, 只有這點骨血. 將軍可護持此子, 教他得見父面, 妾死無恨!”

위와 같이 조운은 미부인과 유선을 찾아내었다. 그녀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를 품에 안고 보호하였다. 미부인은 유선의 목숨을 조운에게 부탁하였다. 이를 통해 앞부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미부인의 형상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의를 지키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모종강은 이 부분에 대해 주석을 달아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닌데도 목숨을 걸고 유선을 지켜준 미부인의 행동을 칭찬하였다.[84] 또한 모종강본에서 조운이 미부인을 만나자 땅에 엎드려 절을 한 것은 미부인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한편 미부인이 추구하는 대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미부인은 자신이 많이 다쳤으므로 무사히 돌아갈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조운에게 유선만 데리고 갈 것을 부탁하였다.

가정본	모종강본
조운이 말한다. “부인께서 이 난을 겪으시게 된 것은 모두 이 조운의 죄입니다. 여러 말씀 마시고 어서 말에 타십시오. 제가 보행으로 부인을 모시고 힘을 다해 적을 만나면 죽을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미부인이 말한다. “그건 안 됩니다. 장군께서 이 말을 타지 않으시면 이 아이도 목숨을 잃습니다. 저는 이미 중상을 입은 몸이니 이대로 죽은들 무엇이	조운이 말한다. “부인께서 이 난을 겪으시게 된 것은 모두 이 조운의 죄입니다. 여러 말씀 마시고 어서 말에 타십시오. 제가 보행으로 부인을 모시고 힘을 다해 이곳을 뚫고 나가리다.” “그건 안 됩니다. 장군이 어떻게 말 없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장군께서 이 아이만 보호해주세요. 첩은 이미 중상을 입은 몸이니 이대로 죽은들 무엇이 아깝겠습

84) 阿斗乃甘夫人所生, 而患難之中, 糜夫人能攜持付托, 勝如己出. (아두는 감부인의 아들이지만, 어려운 시기에는 미부인이 그를 데리고 보살필 수 있었으니 마치 친아들처럼 여겼다.) 앞의 책, 524쪽.

아깝겠습니까? 장군은 어서 이 아이를 안고 떠나세요. 저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미씨 아두를 조운에게 부탁한다. "이 아이의 목숨은 완전히 장군에게 달렸습니다! 저는 정말 갈 수가 없는 몸이에요. 둘 다 그릇되게 하지 마세요!"	니까? 장군은 어서 이 아이를 안고 떠나세요. 저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갈 수가 없는 몸이에요. 둘 다 그릇되게 하지 마세요." 부인은 아두를 조운에게 부탁한다. "이 아이의 목숨은 완전히 장군께 달렸습니다!"
趙雲曰: "夫人受難, 是雲之罪也. 不必多言, 請夫人上馬. 雲自步行, 遇敵軍必當死戰." 糜夫人曰: "不然. 將軍若不乘此馬, 此子亦失矣. 妾已重傷, 死何惜哉! 望將軍速抱此子去, 勿以妾爲累也. ……糜氏將阿斗遞與趙雲, 曰: "此子性命在將軍身上, 妾身委實不去也. 休得兩誤!"	雲曰: "夫人受難, 雲之罪也. 不必多言, 請夫人上馬. 雲自步行死戰, 保夫人透出重圍." 糜夫人曰: "不可.將軍豈可無馬? 此子全賴將軍保護. 妾已重傷, 死何足惜! 望將軍速抱此子前去, 勿以妾爲累也."……糜夫人曰: "妾身委實難去, 休得兩誤." 乃將阿斗遞與趙雲曰: "此子性命全在將軍身上!"

위와 같이 조운이 미부인을 데려가겠다고 말하자, 미부인은 그렇게 하다간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니 아두만 데리고 가라고 부탁하였다. 그녀는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여 아두와 조운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용기와 대의를 보여주었다. 이후 추격병들이 쫓아올 때 미부인은 우물 안으로 투신하여 결국 죽음을 선택한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비장하게 마무리 지었다.

가정본	모종강본
조운이 한사코 말에 오르기를 청하였지만 부인은 끝끝내 들으려 하지 않는다. 사방에서 또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조운은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부인께서 제 말을 듣지 않아 추격병들이 이미 쫓아왔습니다." 미씨는 이 말을 듣고 아두를 땅에 내려놓고 마른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 죽었다. 조운은 조조의 군사가 혹시 부인의 시신을 욕되게 할까 봐, 흙담을 밀어 덮어버렸다.	조운이 한사코 말에 오르기를 청하였지만 부인은 끝끝내 들으려 하지 않는다. 사방에서 또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조운은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부인께서 고집을 부리시시다가 추격병들이 와 닿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러자 미부인은 아두를 땅에 내려놓고 몸을 돌려 마른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 죽었다. 부인이 숨진 것을 본 조운은 조조의 군사가 혹시 부인의 시신을 욕되게 할까 봐, 흙담을 밀어 우물을 덮어버렸다.

趙雲三回五次請夫人上馬, 夫人不肯上馬. 四邊喊聲又起, 雲大喝曰: “如此不聽吾言, 後軍來也!” 糜氏聽得, 棄阿斗於地上, 投枯井而死. 趙雲恐曹軍盜屍, 推土牆而掩之.	趙雲三回五次, 請夫人上馬, 夫人只不肯上馬. 四邊喊聲又起. 雲厲聲曰: “夫人不聽吾言, 追軍若至, 爲之奈何?” 糜夫人乃棄阿斗於地, 翻身投入枯井中而死. 趙雲見夫人已死, 恐曹軍盜屍, 便將土牆推倒, 掩蓋枯井.

위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미부인은 유선을 지켜내고 조운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운은 미부인의 시신이 적군에게 욕보이지 않도록 흙담으로 덮어버렸다. 소설 두 판본 모두에서 미부인이 죽음을 통해 유선을 지키려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시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가정본에서는 “현명하게 내조하였음”[85]이라 칭찬하여 가정적인 면을 강조하였고, 모종강본에서는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는 여장부’[86]라 하면서 나라를 위하는 열사와 같은 면을 강조하였다.

소설에서의 두 부인의 형상을 정리하면, 앞부분에서 감부인에 대한 서술이 미부인보다 많다. 감부인은 연약한 여성의 모습과 지혜로운 모습을 모두 보여준다. 반면, 미부인은 앞부분에서는 주로 연약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마지막에는 목숨을 던져 대의를 지킴으로써 현명한 부인과 용감한 여장부의 형상으로 변신하였다.

85) 賢哉糜氏, 內助劉君. (현명한 미씨여, 내부에서 유비를 협조한다.) ≪嘉靖壬午本三國演義≫, 羅貫中, 北京: 人民出版社, 2007, 294쪽.

86) 拼將一死存劉嗣, 勇決還虧女丈夫. (한목숨을 내버려 유씨의 후예를 살려내니 장하고 갸륵할사 여장부의 용단이여!) 魯玉川、宋祥瑞等(輯校), ≪三國演義會評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525쪽.

3.3 孫夫人

3.3.1 정사 ≪三國志≫ 속의 손부인

정사에서는 손부인의 실제 이름이 무엇인지 기재되지 않았다.[87] 대신에 오나라 손권의 여동생이나 유비에게 시집을 갔다가 다시 오나라로 돌아간 여성 정도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 ≪삼국지·촉서·선주전≫은 이러한 배경을 잘 보여주는데, 정략결혼이 이루어진 시기와 그 이유를 확인해 보려 한다.

> 유기가 병들어 죽자 부하들이 선주(유비)를 추대해 형주목으로 삼고 공안에 치소를 두었다. (손권은) 그를 두려워했으므로 여동생을 (시집)보내 우호를 굳건히 했다.
> (琦病死, 群下推先主爲荊州牧, 治公安. 權稍畏之, 進妹固好.)

위의 인용문의 배경은 손권과 유비가 연합을 통해 조조를 패배시키고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이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힘을 합치기로 하였다. 이에 손권은 유비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여동생과

87) ≪三國志·吳書≫에 따르면"……堅有五子: 策、權、翊、匡, 吳氏所生; 少子朗, 庶生也, 一名仁(손견에겐 총 다섯 아들이 있으니 책, 권, 익, 광은 오씨가 낳았고, 막내 랑은 첩이 낳았으며 일명 '인'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손부인의 이름을 '손인'으로 잘못 제시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三國志≫에서 '손인'은 손권의 막내 아들의 이름이다. 또한 ≪漢晉春秋≫에선 "孫夫人者, 漢破虜將軍(孫)堅之女也, 名仁獻.(손부인은 한나라가 격파한 오랑캐 장군 손견의 딸이며 이름은 인헌이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일부 학자들은 손부인의 이름은 '손인헌'으로 여겼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 이것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첫째로 ≪漢晉春秋≫의 작가는 東晉의 習鑿齒이고 ≪삼국지≫의 注를 달아준 裴松之는 南朝 宋나라 출신으로서 시대적으로도 늦기 때문에 ≪한진춘추≫에는 이와 같은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국지≫에만 등장하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손견의 막내 아들의 이름인 '인'과 비교할 때 손부인의 이름 또한 두 글자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바, 이에 어긋나는 점도 있다.

유비를 혼인시키려 하였고, 유비는 혼인에 흔쾌히 동의하였다.[88] 그런데 이 혼인 과정에서 손부인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았다. 손부인과 유비의 혼인은 정치적 수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진수의 ≪삼국지≫에서는 손부인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후에 注를 달았던 배송지는 <雲別傳>을 인용하며 손부인이 오나라의 관리와 병사들을 거느리며, 법을 어겼으며 교만스러웠다고 설명하였다.[89] ≪촉서・방통법정전≫에서도 손부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공(유비)께서 공안에 있었을 때 북쪽으로는 조공(조조)의 강성함을 두려워하고 동쪽으로는 손권의 핍박을 두려워했으며, 가까운 데서는 손부인이 곁에서 변란을 일으킬까 겁냈다 …… 처음에 손권이 여동생을 선주에게 시집보냈을 때, 여동생이 재주가 있고 민첩하며 굳세니 (그녀의) 여러 오빠들의 풍채를 갖추고 있었다. 시녀 백여 명이 모두 직접 칼을 잡고 곁에 서 있었으므로 선주도 매번 (방에) 들어갈 때마다 내심 늘 무서워하였다.
>
> (主公之在公安也, 北畏曹公之彊, 東憚孫權之逼, 近則懼孫夫人生變於肘腋之下 …… 初, 孫權以妹妻先主, 妹才捷剛猛, 有諸兄之風. 侍婢百餘人, 皆親執刀侍立, 先主每入, 衷心常凜凜.)

이로 보아 손부인과 유비의 결합은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을 고려한 손권의 결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 결혼의 본질은 손권과 유비 세력 간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조조 세력의 위협은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패배로 인해 다소 줄어들었지만, 이제는 손권과 유비

---

88) 先主至京見權, 綢繆恩紀. (선주가 수도에 이르러 손권을 만났고, 은정을 맺었다.) ≪裴鬆之註三國志≫ <先主傳>, (陳壽)裴鬆之註,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9, 497쪽.

89) 先主入益州, 雲領留營司馬. 此時先主孫夫人以權妹驕豪, 多將吳吏兵, 縱橫不法. (선주가 익주에 들어가자, 조운은 여영사마를 맡았다. 이때 선주의 아내 손부인은 손권의 여동생으로서 교만하고 거만하게 굴며, 많은 오나라의 관병들을 데리고 와서 오만방자하게 불법을 행하였다.) 앞의 책, <趙雲傳>, 542쪽.

간의 갈등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략결혼이었으므로 손부인과 유비는 서로 경계하였다. 손부인은 시녀들에게 칼을 들고 지키고 서 있으라는 명령을 하자 유비는 함부로 손부인의 방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따라서 유비는 손부인의 사나운 성격과 무장한 병사를 거느리는 모습에 대해 경계심을 느꼈다. 전통적인 여성과는 달리 병사들을 거느리며 시비들까지 칼을 갖추도록 한 손부인에게서 무력을 쉽게 행하는 남성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南宋 地理誌인 ≪輿地紀勝≫에 따르면 손부인은 유비를 의심하여 자신만의 도성인 '손부인성'을 따로 건설하였고 유비와는 같이 살지는 않았다고 한다.[90] 부부 사이에 사랑 없이 서로 경계만 하였으므로 결혼 후라도 어떠한 애정 또한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다시 오나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을 때 손부인은 고민할 필요 없이 즉시 돌아가고 싶다고 했으니, 배송지가 <운별전>을 인용하여 <조운전>에서 주석을 단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손권이 듣자하니 유비가 서쪽을 정벌한다고 하므로, 배를 대거 보내 여동생을 영접하게 했는데, 손부인이 은밀히 후주를 데리고 오나라로 돌아오려 하였으므로 조운과 장비가 군대를 이끌고 강을 가로막고는 이에 후주를 구해 돌아왔다.
>
> (權聞備西征, 大遣舟船迎妹, 而夫人內欲將後主還吳, 雲與張飛勒兵截江, 乃得後主還.)

그런데 배송지는 다시 <운별전>을 인용하며 <조운전>에 주석을 달았다. 이에 따르면 손부인은 유비의 아들 유선을 데리고 오나라로 돌아가고자 하

90) 江陵府, 孱陵故城又名孫夫人城, ≪元和郡縣誌≫云: 在公安縣. 相傳此乃劉備妻孫夫人所築. 夫人, 權之妹, 疑備, 故別作此城, 不與備同住. (강릉부는 잔릉고성이자 손부인성이라고도 이름 불리는데, ≪원화군현지≫에 따르면 공안현에 위치한다고 한다. 전해지기로는 이것은 유비의 아내인 손부인이 축조한 것으로, 부인은 손권의 여동생이고 유비를 의심하였으므로 이 성을 특별히 지었으며, 유비와 함께 살지는 않았다고 한다.) 王象之, ≪輿地紀勝・卷65≫, 上海古籍出版社, 1995, 454쪽.

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손부인이 손권의 명령에 따라 행동을 한 것인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이유와 무관하게 한 나라의 태자를 다른 나라로 데리고 가려 했던 것은 그녀의 남성적인 형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정리하자면, 역사적인 사료 속에서 손부인은 이름과 외모 등 기본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녀의 행동에서 남성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손부인이 오나라로 돌아간 뒤의 내용은 더이상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그녀의 형상은 남성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로만 자리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2 平話 속의 손부인

元代에 이르러 說話人들은 역사적 사실에 민간 전설을 덧붙여 유비와 손부인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구성하였다. 이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다. 일례로, 역사 자료에 의하면 유비와 손부인의 결혼은 손권이 제안한 것이었으나, <평화>에 의하면 주유의 제안을 손권이 받아들인 후에 어머니인 태부인에게 이러한 계책을 얘기하자 태부인이 다시 손부인을 제안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손부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91]

> 우리 아버지가 동탁을 격파했으므로 이제 나는 유비에게 시집을 가서 황숙을 암살할 것이고 후세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
> (我父破董卓, 今嫁劉備, 暗殺皇叔, 圖名於後矣.)

---

91) 卻說周瑜到於江岸, 各下寨, 與魯肅評議: “吾有一計.” 魯肅問, 周瑜言: “討虜有一妹, 遠嫁劉備, 暗囚臥龍之計, 可殺皇叔.” 元帥使魯肅過江見討虜, 言孫夫人嫁劉備, 陰殺之. (각설하고, 주유가 강가에 이르러 각각 진지로 내려가 노숙과 의논하였다. “저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노숙이 물으니, 주유가 대답했다. “손권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으니 유비에게 멀리 시집보낸다면 와룡을 묶어놓는 계책으로 황숙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주유는 노숙이 강을 건너 손권을 만나서 손부인이 유비와 혼인하여 은밀하게 (유비를) 죽이자고 말했다.) ≪三國志平話≫,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59, 93쪽.

<평화> 속 손부인은 유비에게 시집을 가야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와 같이 반응을 보인다. 이 말 속에는 그녀의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난다. 이는 역사 속 손부인과 다른 점이다. 하지만 남성적인 측면을 보인다는 점에선 평화 속 손부인과 역사 속 손부인이 유사하다. 손부인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업적의 달성과 대의의 실현을 추구하며, 혼인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역사적 자료에서 그랬던 것처럼 평화에서 손부인의 용맹한 모습이 충분히 묘사되지는 않았다. 평화 속 손부인이 직접 유비를 죽일만한 능력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거하고자 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유비를 죽이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이 있다. 태부인은 딸의 혼인을 걱정하며 "禮長當行, 禮短則止(예가 갖추어졌으면 마땅히 가야 하나 예가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면 그만둬야 한다)"라는 말을 한 것이다. 이는 딸인 손부인의 행복 여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도의 준수 여부를 걱정하는 것이지만, 딸에게 조건이 맞지 않으면 혼인을 하지 말라는 태도는 분명 흔치 않은 것이다. 손부인과 유비와의 결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상황은 평화에서 손부인을 통해 볼 수 있다.

이어 荊州에 들어선 손부인은 장비, 조운, 제갈량을 잇따라 만나게 되며 내심 그들을 높이 평가한다.[92] 유비를 만난 후 손부인은 근처에 걸려 있는 神像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자신이 황제의 신상을 본 적이 없었기에 신상을 보게 된 기쁨을 표현한다.[93] 손부인은 주유의 계책에 따르기 위해 유비

92) 夫人入荊州, 張飛在一壁行. 夫人車內自言: "這漢在虎牢關贏了呂布; 又聞三出小沛, 當陽長坂喝退曹操倒退了三十里. 此乃壯士也!" 夫人車又行數里; 趙雲迎著, 對夫人說: "此是百萬軍中救阿斗底趙雲!" 又行數里, 見諸葛來接, 夫人曰: "眞良將也!" (손부인이 형주에 들어가고 있을 때 장비가 한쪽 벽으로 지나갔다. 부인이 가마 안에서 말하길 "이 남자는 호뢰관에서 여포를 이겼고, 또 소패에 세 번이나 출정하였으며, 당양의 장판에서는 조조를 30리 격퇴시켰으니 장사이다!"라고 하였다. 부인의 가마가 또 몇 리를 가던 중에 조운이 (그녀를) 영접하며 부인에게 말하길 "저는 백만 군중 속에서 아두를 구해낸 조운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몇 리 가다가 제갈량을 만나 영접을 받았으니 손부인은 "참으로 훌륭한 장군이다"고 말했다.) 앞의 책, 94쪽.

93) 軍師請夫人拜見, 廳掛起神像, 上至高祖, 下至獻帝二十四帝. 夫人曰: "我家本莊農出

를 죽이려 하지만 유비의 가슴에 금뱀(金蛇)이 서려 있는 것을 보고는 차마 유비를 죽이지 못하게 된다.[94] 손부인과 유비가 백일동안 함께 술을 즐겨 마시며 지내던 중, 손부인은 유비가 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 손부인이 그 이유를 물어보니, 유비가 헌제는 나약하지만 조조는 권세를 부리기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이는 혼인 후에 부부가 부인의 집에 방문하는 回面의 전통에 따라 오나라로 가지 않겠다는 우회적인 답변이었다. 이에 손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황숙은 역대로 제왕의 손자인데 황숙이 어찌 예를 모르십니까? 저희 집안의 모친께선 나이가 연로하셔서 오빠와 함께 오로지 황숙께서 회면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 (皇叔累代帝王之孫, 皇叔豈不知禮? 我家母親年邁, 兼家兄專等皇叔回面.)

손부인의 언급 중 "禮"란 回面의 전통을 말한다. 손부인이 유비를 오나라로 데려가고자 한 것은 그를 죽이기 위함이었다. 유비는 손부인을 의심하고 있었으므로 선뜻 오나라로 가지 않은 것이다. 손부인은 오나라를 위해 마치 武將과 같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손부인과 유비가 오나라에 도착하기 전, 손부인의 오빠인 손권은 태부인에게 유비를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95], 이에 대한 태부인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身, 不曾見帝王之神." 夫人喜. (제갈량이 손부인에게 뵙기를 청했는데 마루에는 신상들이 걸려 있었으니 위로는 고조부터 아래로는 헌제까지 이십사황제였다. 손부인이 말하길 "우리 집은 본래 농민 출신이기 때문에 황제의 신상을 본 적이 없어요."라고 하였다. (신상을 보게 되어) 손부인은 기뻐하였다.) 앞의 책, 같은 쪽.

94) 來日筵會, 夫人帶酒, 應周郎之計. 夫人卽便當與皇叔過盞. 衆官皆驚. 荊王曰: "夫人過盞." 夫人見魯肅帶酒, 有意殺皇叔. 只見金蛇盤於胸上, 夫人不忍殺之. (다음날 연회가 있으므로 손부인이 술을 가져와서 주유의 계책에 응하였다. 손부인은 곧바로 유비와 술을 마시고자 하였으니 모든 관리들은 모두 놀랐다. 형왕(유비)가 말하길, "손부인께서는 술잔을 드십시오"라고 하였다. 손부인은 노숙이 술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유비를 죽이려하는 마음을 품었으나 유비의 가슴에 금뱀이 서려 있는 것을 보고 차마 그를 죽이지 못하였다.) 앞의 책, 같은 쪽.

95) 劉備奪了荊王, 動三十萬軍, 夏口退了曹賊, 劉備非是有恩之人, 若到江南, 兒子有意殺

너의 여동생이 황숙에게 시집을 가서 아내가 되었다. 만약 네가 황숙을 죽이게 된다면, 너의 여동생은 누구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냐? 황숙이 만약 오게 되면 마땅히 잘 대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가 어질지 않다면 나중에 죽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吾兒之妹嫁與皇叔爲妻, 吾兒若殺了皇叔, 你妹嫁甚人? 皇叔若來到, 當好相待, 若不仁, 後殺未爲晚.)

태부인의 태도에선 딸의 행복을 바라는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나는데, 유비를 딸의 남편으로 대하고 그의 인성을 평가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손권 또한 이에 동의하였다. 손권과 어머니는 직접 유비를 마중하고 며칠간의 잔치를 열게 된다. 유비와 교분을 나눈 손권은 어머니께 유비는 반드시 군주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손권과 태부인은 이에 기뻐한다.[96] 이들이 행복한 이유가 손부인이 훌륭한 인품을 지닌 남편을 얻었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때 손권이 유비를 죽이려는 계획은 무산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오히려 손권은 유비를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 이상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아래 인용문에서 손권이 유비를 암살할 계획은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에 (유비를) 대접하기를 이십 여 일, 황숙은 태부인에게 절하며 작별을 고하였다. 손권이 말하기를 "황숙이 여기 와서는 앉았던 땅이 없었네"라고 하였다. 태부인은 손권을 시켜 두 사람이 가는 길에 자금을 대주라고

皇叔. (유비가 형왕 자리를 탈취하고 30만명의 군대를 움직여 하구에서 조조의 군대를 물리쳤으나, 유비는 은혜를 품은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만약 강남에 오게 된다면 저는 유비를 죽일 생각이 있습니다.) 앞의 책, 95쪽.

96) 太夫人與孫權接玄德. 數日, 接入城中. 百姓覩皇叔面顔, 無有不驚者. 衙內筵會數日, 太夫人暗問孫權: "玄德如何?" 孫權言曰: "今觀皇叔, 漢之親也, 相貌堂堂, 後必爲君也." 子母皆喜. (태부인과 손권이 유비를 맞이한 뒤 며칠 후 성문으로 입성하였다. 백성들은 유비의 얼굴을 보며,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집안에서 연회를 며칠간 열고는 태부인이 손권에게 물었다. "유비는 어떠한가?" 손권이 말하길 "지금 유비를 보면, 한나라의 친족이라 그 용모가 당당하니 후에 필히 군주가 될 것입니다."고 하였다. 모자가 모두 기뻐하였다.) 앞의 책, 같은 쪽.

하였다.

(後管待二十餘日, 皇叔拜辭太夫人. 孫權言曰: 皇叔來此無坐地處. 太夫人令孫權齎發二人送在路.)

그러나 이후의 장면에서는 손권의 부하인 주유가 유비를 뒤쫓아 와서 죽이려고 하였다. 이는 손권의 명령을 미처 듣지 못한 주유의 실수이거나, 화본의 누락 때문에 생긴 모순이라고 생각된다. 손부인의 지혜 덕분에 유비는 목숨을 구하게 되고, 두 사람은 촉으로 돌아가게 된다. 손부인이 유비를 구했다는 사실을 손권이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손부인은 오나라가 아닌 주유와 갈등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설의 손부인이 사랑을 위해 오나라를 버렸다는 인식이 있지만, 평화에서는 오나라를 버렸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손부인이 유비를 보호한 이유는 그녀의 오라버니인 손권이 유비를 죽일 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유가 손권의 뜻과 달리 유비를 계속 죽이고자 한 이유는 다음의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첩자들이 주유에게 말하자, 원수(주유)가 '강남 손부인'이라고 외치며 말하길 "여섯 가지 계책 모두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다니!"라고 했다. 그는 감녕에게 삼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가서 홀로 궁해진 유비를 맞서도록 명령했다. 감녕은 군사를 이끌고 마차 앞에 와서 말에서 내려 부인을 만났다. 손부인은 주렴을 걷고 번뇌하며 목소리를 높여 욕을 했다. "주유는 무능하구나! (나는) 장사태수의 딸이자 토로장군 손권의 친여동생이다. 내가 오늘 이른 것은 다시 그대를 돌아보려 함이 아니다. 아울러 여기엔 형왕인 황숙이 계시는데, (그대는) 현덕을 능욕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냐!" 크게 소리를 치자 (감녕은) 부인의 말에 순순히 따르며 물러났다. (첩자들이) 다시 주유에게 말을 전하자, (주유는) 웃으면서 외치기를 "제가 3만 명의 군대를 마차 앞으로 이끌어 황숙을 마차에서 끌어 내리게 하고 교활한 적을 참수하고 부인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로장군 손권을 만나도 무슨 죄가 있다고 문책하겠습니

까?"

주유와 뭇 관리들이 남쪽으로 손부인을 보자 수레 앞 말에 내려 몸을 굽혀 예를 갖추었다. 부인이 다시 말하기를 "우리 모친과 오빠가 형왕에게 강을 건너게 하였으므로 배를 준비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주유는 "유비는 은혜를 저버린 도둑놈이다!"라고 소리쳤다. 부인은 웃으면서 사람을 시켜 주렴을 올리게 하고는 주유가 다시 가마 안을 보도록 하였다. 주유가 크게 소리치니 금속에 긁힌 상처에 피가 샘이 솟듯 하였다.[97] 뭇 관리들이 주유를 부축해 일으키고, 손부인은 강가 북쪽 언덕에 가서 황숙과 함께 강을 건넜다.

(探事人說與周瑜, 元帥高叫江南孫夫人, 道: 六條計皆不許一條! 令甘寧引三百軍, 南迎孤窮劉備. 甘寧引軍至車前, 下馬見夫人. 夫人搭起簾兒. 夫人煩惱, 高聲罵: 周瑜儿軟! 長沙太守的女, 討虜將軍親妹. 我今到來, 更不相顧. 兼上此處有皇叔荊王, 非是欺玄德, 蓋因不覷我! 喝一聲, 喏喏而退; 復回說與周瑜, 笑而叫: 吾將三萬軍到車前, 拖皇叔下車, 斬猾虜之賊, 與夫人再言! 若見討虜, 問我甚罪!

周瑜眾官, 南見夫人, 車前下馬, 鞠躬施禮. 夫人再言: 我家母親並家兄, 使荊王過江, 即合準備船機. 周瑜高叫: 劉備負恩之賊! 夫人笑, 令人搭起簾兒, 使周瑜再覷車中. 周瑜叫一聲, 金瘡血如湧泉. 眾官扶起周瑜, 孫夫人到江北岸與皇叔過江.)

주유는 먼저 유비를 쫓아가서 죽인 후에 손권을 만나게 되어도 어찌 자신을 탓하겠느냐며 말하였다. 손권 또한 계속하여 유비를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부인은 주유과 마찬가지로 유비를 죽이려는 계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랫 사람인 주유가 감히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에 기분이 상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손부인은 철저히 오나라 편에 서 있으면서도 주유와 대항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손부인은 평화에서 유선을 오나라로 데려가다가 조운과 장비에게 제지당하면서 수치심을 느꼈다. 역사적 사료와는 달리, 평화에서의 손부인은 오나

97) 평화에서는 피가 난 이유에 대해 따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며 소설과 잡극에서는 주유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 몸의 상처에서 피가 솟구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강물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게 되는데 이는 다음의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손부인이 가마 안에서 (유비 아들인) 아두를 안은 채로 동오에 가서 몸을 던지려고 했다. 장비가 말 안장에 걸터앉아 소리치길, “부인은 황숙이 서천에 함락시켰다는 것을 알고, 아두를 안고서 강남으로 가서 몸을 던지려는 것이군요!”라고 하였다. 장비가 한 마디로 책망하자 손부인은 수치스러워하며 강으로 뛰어들어 죽었다.
>
> (有孫夫人車內抱阿斗, 有意投東吳. 張飛據鞍馬上, 叫: 夫人知皇叔陷了西川, 抱阿斗走投江南! 張飛一言相責, 夫人羞慚投江而死.)

여기까지 평화에 나타난 손부인의 모습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평화에서는 손부인의 외모나 武力에 대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부인은 유비를 죽이려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금뱀을 보게 되면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된다. 이후 손부인은 주유로부터 유비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태부인과 손권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다. 개인의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화 속 손부인은 손권의 임무를 받아 움직이는 수행자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마지막 임무에 실패하고 자살하는 손부인의 모습은 굽히지 않는 武將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는 남성화된 여성의 형상으로 보인다. 이외에 역사적 사료에서와 마찬가지로 평화에 나타난 손부인 또한 철저히 오나라 입장에 선 것도 확인할 수 있다.

3.3.3 雜劇 속의 손부인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서사문학작품은 대부분 평화와 잡극을 결합하여 창작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인물의 성격 등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부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兩軍師隔江鬪智>는 ≪전원곡≫에 수록된 단본(旦本) 잡극으로,

작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적벽대전이 끝난 후 주유와 제갈량이 형주를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하여 '지혜로 겨루는' 것을 다룬다. 이 잡극에서 손부인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양쪽이 지혜를 겨루는 과정에서 계책의 일부가 된다. 평화에서는 손부인의 외모나 무력에 대한 묘사는 등장하지 않으며, 역사기록에 있었던 묘사도 없어졌다. 잡극에서도 마찬가지로 손부인의 무력에 대한 묘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스러운 외모와 성격이 강조되어 있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짐작된다. 손부인이 나오는 첫 장면부터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손안) 나는 손안이라고 한다네. 【점강순】 매일같이 시름에 잠길 뿐, 이 내속을 어찌 말로 하리? 치마 헐거워져 주름만 잡히네 …… (매향) 아가씨는 연꽃 같은 얼굴에 버들 같은 허리, 이렇게 아리따우시니 감히 누가 따라올 수 있겠어요? (정단)내 미모가 연꽃을 능가하고 이 허리는 버들가지보다 더 하늘거린다고? 오색실로 새로운 문양의 수도 놓고, 푸른 창가에서 옛 시에 화창도 합니다. 늘 부덕을 모범으로 삼고, ≪여계≫를 스승 삼아, 얼굴 화장엔 게으르고 연지도 깨끗이 씻어 버렸습니다. 그래 저 수놓인 주렴 앞에서 언제 또 몰래 내다본 적 있었니? (매향) 노부인이 부르시니 어서 가세요. (손안) 어머니께서 부르실 때 말고 내 어찌 이 문지방을 쓱 넘겠니?
>
> ((正旦云)妾身乃孫安小姐是也. …… 【點絳唇】每日家枉費神思, 怎言心事?則我這裙兒衩, 掩過腰肢 …… (梅香云)小姐芙蓉面, 楊柳腰, 這般标緻, 誰人近得?(正旦唱)你道我這面呵還賽過芙蓉豔色, 這腰呵不弱似楊柳柔枝. 有時節將彩線纂成新樣譜, 有時節向綠窗酬和古人詩. 常則是嬪風作範, 女誡爲師. 慵妝粉黛, 淨洗胭脂. 兀那繡簾前幾曾敢偷窺視? (梅香云)老夫人請哩, 小姐行動些. (正旦唱)若不是堂前呼喚, 我也怎輕出這廳上階址?)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잡극에서는 손부인의 이름을 孫安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시녀인 매향과의 대화를 통해 손부인의 전반적인 형상을 파악할 수 있다. 손부인은 외모적으로는 "연꽃 같은 얼굴, 버들 같은 허리"

를 지닌 아름다운 여성의 형상을 보여준다. 수를 놓거나 시를 읊는 등의 행동을 통해 여성적인 활동을 즐기는 인물임을 알 수 있으며, 閨房에서 함부로 벗어나지 않는 전형적인 봉건사회 여성 형상을 보여준다. 손부인이 자신에게 제안된 혼인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며 상대의 정체, 결혼 시기, 이유[98] 등을 꼼꼼히 물어보고, 혼인 상대는 사회적, 경제적인 형편이 비슷한 사람[99]이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여기서 손권은 이 혼인이 형주를 도모하는 계책이라고 말하는데, 손부인의 개인적인 의지와 선택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화령】 오라버니, 여러 번 생각해보세요. 제갈량이라는 그 군사를 속일 수 없으면요? 만일 제갈량에게 일이 틀어지면 괜히 미인계만 쓰는 꼴이 되지 않겠어요? …… 【후정화】 전 애당초 요조숙녀의 시 <관저>를 읊조리려 했는데 어찌 용천보검을 부여잡고 검객이 되라 하시는 거지요? 오라버닌 삼강 하구에 주둔한 주유 원수를 그르칠까 걱정할 뿐인가요? 아이고! 어찌 저 손부인의 신세를 망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건가요? (손권) 누이야! 넌 내 말대로만 하면 된다. 형주를 손에 넣지 못한다면 난 사내도 아니다.(화난 동작) (부인) 아이고 얘야! 네 오라버니가 화가 났구나. 오라버니 말을 들으렴. (손안) 어머니, 알겠어요. 오라버니말대로 하면 되잖아요. 오라버니, 어찌 씩씩대며 자주빛 수염을 곧추세우시나요? 저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라버니 맘대로 하라 할 뿐. 어머니께 작별 인사하고 좋은 날 혼례를 올리면 신혼 생활은 화목하려나?

(【元和令】我這裡勸哥哥要三思, 怕瞞不過諸葛亮那軍師. 萬一個被他識破有參差, 可不把美人圖幹着使? …… 【後庭花】我本待誦雎鳩淑女詩, 怎着我仗龍泉行劍客的事? 你隻怕耽誤了周元帥在三江口, 哎, 怎不想斷送我孫夫人一世兒? (孫權云)妹子, 你則依着我做, 我若不取了荊州, 不爲丈夫! (做怒科)(夫人云)孩兒, 你哥哥惱了也, 你隻依着他罷. (正旦云)母親, 你孩兒知道, 隻憑

98) 你把俺成婚作配何人氏?……端的是誰保親?在幾時?……哥哥, 因甚麽將我許了人也?(제게 누굴 짝지어 준다고요?……중개는 누가 한가요? 결혼 날짜는 언제인가요?……오라버니, 무엇 때문에 나를 남에게 허락한 건가요?) ≪全元曲≫ 第九卷, 第一折, 徐征、張月中 (編),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8, 6734쪽.

99) 也則要門當戶對該如此. (가문이 격에 맞아야 해요.) 앞의 책, 같은 쪽.

哥哥自家做去便了. (唱)哥也你直恁的便怒嗤嗤, 綽起了紫髯髭. 我如今并不的推三阻四, 任哥哥自主之, 將母親即拜辭, 就佳期赴吉時, 便新婚恰燕爾.)

손부인은 제갈량을 제대로 속이지 못할까 봐 처음에는 완곡하게 이 혼인을 거절하였다. 이러한 거절은 미인계의 성공여부와 함께 자신의 운명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손권이 침실에서 유비를 찔러 죽이라는 계책을 말하자, 이러한 우려는 곧 손권에 대한 원망과 불만으로 변하였다. 강한 반항은 어머니인 노부인이 손권의 계책을 따르도록 강요하게 되면서, 마지못해 이 혼인을 허락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손부인은 이 혼인 제안을 수락한 이후에도 "양지의 싸움이 그치지 않을까 봐[100]"라는 걱정을 하며 여전히 우려하고 있었으며, 이런 중요한 일을 힘없는 자신에게 맡긴 것에 안타까워하였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손부인은 규방에서 나오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형상은 지키면서도 자신의 혼인 문제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반항을 했다. 결과적으로 손부인은 자신과 이 결혼이 서로에게 맞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쪽은 오나라 미인이고 저쪽은 한의 황실 혈족이다.[101]"라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이 혼인을 승인하였다.

제1절에서 손부인은 전통적인 봉건 여성과 다를 바 없이, 평소에 수를 놓고 시를 읊는, 아름다운 여성의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게다가 칼을 들고 유비를 찔러 죽이라는 계책도 손부인의 시녀들이 칼을 차고 있어서 가능한 것이었다.[102] 이를 용맹한 손부인의 역사적 기록과 비교하면, 무력을 전혀 쓸 줄 모르는 숙녀 손부인에게 이러한 일을 맡긴 것이 합당한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손부인이 이 혼인에 대한 태도를 전환하면서, 잡극

100) 哥哥, 哎, 隻怕你未解的腹中愁, 早添上些心間事. 從今後惹起幹戈不止, 怎靠得這不冠帶的男兒某在斯. (오라버니, 아아! 당신은 뱃속 근심 풀기도 전에 속으론 벌써 근심 보탤까 걱정이에요. 이제부터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날 판인데 어찌 사모관대도 안 하는 저에게 기대신단 말입니까?) 앞의 책, 第一折, 6736쪽.

101) 這壁是吳國嬌姿, 那壁是漢室親支. 앞의 책, 같은 쪽.

102) 你平日待婢們都是佩着刀劍的. 你覷個方便. 將他刺死. (네 시녀들 모두 칼을 차게 하는 거지. 네가 기회를 엿보다가 찔러 죽인다.) 앞의 책, 6735쪽.

에서의 손부인은 뚜렷한 개인적 취향과 의지를 가진 독특한 손부인의 형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제2절에서는 손부인 일행이 이미 형주 근처에 도착한 상황이다. 주유의 계책대로 손부인을 護送하는 군사들은 형주에서 손부인이 성문을 들어가는 틈을 타, 무력으로 성을 빼앗으려 하였다.[103] 그러나 張飛가 성문에서 손부인 일행을 막아 손부인과 시녀 매향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명령을 내리자 다음과 같은 장면이 펼쳐진다.

【중려】……오라버니가 형주 때문에 날 떼어놓고 수많은 간계를 마련해 놓았다네. 【취춘풍】 염려 붙들어 놓으세요. 그 정돈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좋은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기쁘게, 기쁘게 할 거예요. 혼주의 농담이 진담이 될 걸 어찌 알까요? 중매쟁이는 말을 빙빙 돌리고 당사자도 괜한 트집 잡겠지요.

(감녕) 우리를 들이지 못하겠다고? 내가 직접 삼장군을 만나겠다. (장비에게 인사하는 동작) 삼장군, 우리가 아가씨를 모셔온 건 전적으로 축하주나 좀 얻어 마시자는 건데, 어찌 들이지 않겠다는 거요? (장비) 거기 오나라 장수! 너희는 신부를 모시고 온 게 아니다. 난 네놈들의 주유가 계책을 세워 우리 성문을 넘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곳을 들어오려는 놈한테는 나의 이 창 맛을 보여주겠다! (매향) 저 말방울 같이 큰 눈을 가진 사내가 대단하기도 하군요. 아가씨, 우리 돌아가요. (손안) 감녕, 능통 장군! 그대들은 돌아가세요. 나와 매향이 성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中呂】……俺哥哥爲荊州將我分離, 安排著許多奸計. 【醉春風】不索費叮嚀, 我從來識道理. 見他時自有巧機關, 我著他可也喜, 喜. 那一個掌親的怎知道弄假成真? 那一個說親的早做了藏頭露尾, 那一個成親的也自會拿粗挾細.

(甘寧云)不放俺軍將進城, 我親自見三將軍去. (做見張飛科, 云)三將軍. 俺們送小姐, 都是要訂喜酒吃的, 怎麼不放俺進去? (張飛云)兀那吳國軍將, 您非送親而來, 我知您周瑜的計策, 故來賺俺的城門, 如有一個進來, 我一槍一個. (梅香云)這個環眼漢利害. 小姐, 我們回去了罷. (正旦云)甘寧、淩統, 您回去

103) (孫權云)等你過門之日, 俺這裡暗暗的差撥名將, 假稱護送, 乘勢奪了城門. (손권)네가 출가하는 날, 우리는 은밀히 명장들을 선발해 신부를 호위하는 척하다가 틈을 봐서 성을 빼앗을 것이다.) 앞의 책, 같은 쪽.

罷, 我和梅香自進城中去也.)

甘寧이 장비에게 자신이 왜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지를 물어보았고, 장비는 주유의 계책을 다 알고 있다는 이유로 들어오면 다 죽일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때 손부인은 오나라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녕에게 가라고 하였으니, 그녀는 계책을 이루고자 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손부인은 손권을 원망하였으며 자신에게 능력 이외에 일을 시키는 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손부인은 무력은 갖추지 않았고 시녀만 칼을 들고 있었는데, 매향도 겁이 많고 밖에 나간 적이 없던 사람이므로 유비를 죽이라는 계책을 실행할 수 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손부인은 이러한 감정을 품은 채 촉나라 장수를 차례로 만나며 칭송하였고 동시에 오나라 장수는 낮게 평가하였다.

【보천악】잔칫상 앞에 늘어선 영웅호걸들을 보았네. 하나같이 원기왕성하고 하나같이 깍듯하구나. 저 군사는 제일가는 재주를 지녔으니 성인의 덕을 갖추었다 할 만하네. 저 도학가 용모에 비상한 신선의 기운 서려 있으니 분명 별을 신발 삼고 노을로 옷을 지어 입었다 하겠네. 전술은 제나라 관중보다 더 탁월하고 나이는 주나라 여망보다 더 젊고 묘책은 한나라 장량보다 더 많다네.

【십이월】이자들의 용모와 행동거지를 보아하니 실로 호랑이 장수의 신령스러운 위세로다. 저 감녕과 능통은 여기에 대면 쥐새끼와 너구리로다. 알겠구나, 유현덕으로 인해 한나라의 황실을 중흥시킨 것이 이런 문무대신들이 있어 가능했음을!

【요민가】아아! 양손으로 금잔 공손히 받쳐 들고 기쁘고 화기애애함이 뜰 안 가득하네. 나도 모르게 공손히 명 받들 듯 따르며 얼큰히 취하도록 거절도 못하네. 주유가 참으로 식견도 없어 어찌 때를 살피지 못하는 겁니까?

(【普天樂】我則見玳筵前, 擺列着英雄輩. 一個個精神抖擻, 一個個禮度委蛇.那軍師有冠世才, 堪可稱龍德. 覷他這道貌非常仙家氣, 穩稱了星履霞衣.

待道他是齊管仲多習些戰策, 待道他是周呂望大減些年紀, 待道他是漢張良還廣有神機.

【十二月】看了他形容動履, 端的是虎將神威. 想我那甘寧、淩統, 比將來似鼠如狸. 可知道劉玄德重興漢室, 卻元來有這班兒文武扶持.

【堯民歌】呀, 我見他曲躬躬雙手捧金杯, 喜孜孜一團兒和氣藹庭闱. 不由我不立欽欽奉命謹依随, 拚的個醉醺醺滿飲不辭推. 我今日須也波知周瑜你好沒見識, 怎不的觀時勢.)

위와 같이 손부인은 유비 휘하에 있는 제갈량, 장비, 관우를 위엄이 있고 용맹한 장수로 보았던 반면에 오나라 감영은 쥐와 여우로 여기며 주유는 그의 식견이 좁다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유비를 만나니 제왕의 풍모를 지녀 남편감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104] 그러므로 '시집가면 남편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결심을 하였으므로 이 계책을 세운 주유가 더욱 불만스러워져[105] 결국 유비를 도와주게 되었다. 또한 손부인은 남편을 인정하지만 손권에 대한 원망을 감추지 않았다는 점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삼살】 ……이것이 우리 부인네들 평생 자구책이지요. 그대는 일시에 공을 이루기 어려울까 내 백 년 인연은 입에 올리지도 않다니! 어느 누가 후회 않겠소?……(말한다) 오라버니도 너무하십니다! 이 형주가 그렇게나 쓸모 있답니까? 날 시집보내 놓고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다니요. 이 누이가 그 사람을 해치고 다른 남자에게 잘도 시집갈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

104) (正旦背云)我看劉玄德生的目能顧耳, 兩手過膝, 眞有帝王儀表, 以爲丈夫, 也不辱抹了我孫安小姐. (방백으로 말한다) 저 유현덕은 자기 귀를 볼 만큼 눈이 크고 두 손이 무릎에 닿는 걸 보면, 실로 제왕이 될 상이야. 남편감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는 걸.) 앞의 책, 第二折, 6745쪽.

105) 則我這三從四德幼閑習, 旣嫁雞須逐他雞……我隻笑那周瑜好癡也! 你自家沒智識索取荊州, 卻將我送到這裡, 你須要做的功勞, 我爲甚來倒替你守寡一世? (나는 삼종과 사덕을 어려서부터 익혀 닭에게 시집가면 닭을 따라야 하네……참으로 저 주유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밖에! 그대 혼자 힘으로 형주를 손에 넣을 방법이 없어 나를 이곳으로 보내다니. 그대가 세울 공에 왜 내가 평생 과부가 되어 수절하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앞의 책, 같은 쪽.

니! 정말 너무 하세요.

【이살】 한 배 속에서 난 동기가 몇이 있겠어요? 요절하신 큰 오라버니 입에 올리기만 해도 이렇게 속이 뭉그러집니다. 어머니는 가엽게도 긴긴 세월 저녁 무렵 원추리꽃처럼 시드셨고 오라버니도 딱히 형제라 할 것이 없지요. 어찌 친누이는 돌보지 않고 겉으로는 시집보내는 척하면서 속으로 성을 탈취하려 하십니까? (창) 어머니도 등 떠미셨지, 나더러 오라버니의 뜻에 따르라 하셨어. 난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오라버닐 위해서 작정하신 일이니 돌이킬 수 없어. 이젠 나한테도 생각이 있어.

【살미】 어머니 오라버니 맘 상할까 두렵기만 하고 부부 금슬에 금이 갈까 근심스럽기만 하네. 오늘부터 양손으로 금방울 놀이하던 의료가 되어 가운데 꼿꼿하게 서서 양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리.

(【三煞】……也是我婦人家自爲終身計. 你隻爲一時功效猶難遂, 卻將我百歲姻緣競不提, 那個肯無番悔? …… (云)我哥哥好狠也. 這一座荊州, 直恁的中用?把我許了人, 又要我去害他. 難道你妹子害了一個, 又好另嫁一個?哥哥, 虧你就下的那.(唱)

【二煞】想着我同胞的能有幾, 我大哥哥又不到底, 提起來尚兀自肝腸碎. 我母親呵, 可憐永日萱花晚, 哥哥也沒甚傍枝棠棣稀, 怎不顧親生妹? 倒着我明爲嫁送, 暗奪城池.

(云)我想母親也曾勸來, 着我隻依着哥哥做事. 這不是割舍的我, 也隻爲哥哥做下主意, 斷然挽回不得. 我如今自有個道理.(唱)

【煞尾】怕隻怕母兄上別了情, 愁隻愁夫妻上傷了美. 從今後做了個弄丸的宜僚, 我隻從中兒立直, 着他兩下幹戈再不起.)

위와 같이 손부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자구책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개인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손부인은 자신의 혼인을 대가로 형주를 차지하려는 손권을 원망하였지만, 어머니의 뜻대로 혼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이미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부인은 親情과 부부가 어그러져 양쪽이 싸움을 하지 않도록 만들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婚房에서 칼로 유비를 죽이는 것과 같은 악한 계책을 포기하였다. 이는 손부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따라서 손부인은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드러내면서도 주변과의 관계와 상황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입

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제3절에서 주유는 손부인을 호송하는 군사들과 함께 형주에 들어가 성문을 빼앗는 첫 계책은 실패하였으므로 손부인 回面하러 오나라에 돌아갈 때 유비를 인질로 가두어 형주를 달라고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유비를 오나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며칠 동안 기다린 후, 주유는 연회를 열어 유비 일행을 초대하였다.[106] 이 연회에서 손부인은 시녀 매향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 (매향) 아가씨, 이 매향이가 먼저 보고 왔어요. 상 위에 꽃이 그득, 비단이 그득, 실로 어마어마한 잔치입니다. (손안) 매향아, 이것이 초패왕이 벌인 홍문연이 아니고 뭐란 말이냐?
>
> (매향)서방님께서 형제들을 그리워하시니 돌려보내시면 되잖아요. (손안) 참으로 뭘 모르는구나! 내 오라버니가 천 가지 묘책 부려 이 참에 패왕이 되려 한단 말이다. (매향) 주공께서 서방님을 놔주지 않겠다면 몰래몰래 도망가면 되잖아요. (손안) 돌아갈 배는 어쩌고 군사들이 추격해 오면 저 장강에서 어디로 도망간단 말이냐?
>
> ((梅香云)小姐, 梅香先看了來, 他擺設的花一攢錦一簇, 好大大的筵席也. (正旦云)梅香, 這席面莫不是楚霸王的鴻門宴麼?
>
> (梅香云)比及姐夫想他每兄弟呵, 可着他回去了罷. (正旦唱)你說的來好沒分曉, 俺哥哥有妙計千條, 則待取霸圖王在這遭. (梅香云)既然主公不肯放姐夫去, 着他悄悄的走了罷. (正旦唱)怕不要安排歸棹. 倘或的驅兵追趕, 兀那一片長江, 何處奔逃?)

위 글에서 매향은 이 연회를 칭찬하는 반면, 손부인은 鴻門宴과 같은 함정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비를 형주로 다시 보내고자 해도 손권이 분명히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몰래 도망가려고 해도 추격병들이 따라올 것이므로 성공적으로 도망할 수 있을지 걱정하였다.

---

106) 來此已經數日, 不放回去. 今日吳王相請, 須索走一遭去. (여기에 온 지 이미 며칠이 지났건만 돌려보내주질 않습니다. 오늘 오왕이 부르니 한번 가 봐야겠습니다.) 앞의 책, 第三折, 6751쪽.

위 글에서는 손부인이 유비의 안위를 걱정하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회면 후에는 유비 입장에 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상하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유비의 탈출을 도와주기 위해 호되게 오나라 군사를 혼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손부인이 돌변한 이유가 혼인을 중요시 여기고, 재가할 생각이 없는 혼인 관념에 따른 것임을 짐작할 만하다. 원나라에 이르러 작가가 이를 통해 손부인이 '옹유반조'라는 정통론을 대표하는 인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원나라의 사상을 잡극에 반영한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회에서 손권은 손부인에게 술을 권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 (손권이 낮은 소리로 말한다) 동생아, 이 술은 네가 잘하라고 주는 술이다. (손안) 술을 앞에 두고 술 얘기만 할 것이지, 어찌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나요? 왜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드나요?
>
> (손권) 누이야, 뭘 그리 괴로워하느냐? 이 잔을 어서 마시거라. (손안이 상대방이 듣지 못하게 노래한다) 이 술을 몰래 천지신명께 부어 올려 우리 부부 해로하기만을 바라네.
>
> (손권)누이야, 저번에 내가 너랑 의논했던 일을 내 말대로 한 적이 있었더냐? (손안)그린 못된 속셈은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를 속히 돌려보내세요. 창이며 칼 쓰는 일이 없게 말이에요.
>
> ((孫權低云)妹子也, 這一杯酒則要你見功者. (正旦唱)但飮酒隻說酒中事, 怎又傷我的心着我心下惱. (孫權云)妹子, 你惱做甚麼? 飮了這杯酒者. (正旦背唱)我背地裡將這酒兒澆天地, 也隻願的俺兩口兒夫妻到老.
>
> (孫權云)妹子, 我當日與你計較的事, 你幾曾依我一些兒來? (正旦唱)若有那歹心兒天覷着, 則願你早放他還朝, 也免的動槍刀.)

위와 같이 손권은 형주를 얻어낸다는 공을 세우자고 하면서 손부인에게 술을 권하였지만, 손부인은 오로지 부부간의 화목한 관계를 늙어서까지 유지할 것을 바라면서 술을 땅에 부었다. 이후 남매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손권이 손부인에게 왜 계책대로 행동하지 않는지 묻고, 손부인은 오히

려 유비를 놓아주어 싸우지 않도록 하라고 요청한다. 이러한 요구는 손부인이 유비를 사랑하기 때문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부부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고자 철저히 유비 입장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劉封이 제갈량의 錦囊을 가지고 와서 유비에게 비밀스럽게 말을 했다. 손부인은 유비가 자신에게 왜 말을 전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졌지만[107], 언젠가는 유비가 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어 손권은 유비가 일부러 떨어뜨린 금낭을 보고 조조의 군대가 곧 형주를 공격할 것이며 제갈량이 유비에게 손권의 군사를 빌려달라 부탁하라고 조언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유비를 형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려는 제갈량의 계책이었으며 손권은 속아 넘어갔다. 이에 손권은 유비 일행을 형주로 보내고자 하게 되었다. 그러나 손권은 제갈량의 속임수인 줄 모르고 혼란한 형국을 틈타 형주를 얻게 될 꿈을 꾸고 있었다. 손권은 손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손권) 누이야, 너는 오늘 길을 떠나거라. (손안) 내가 아직 미련이 남았을까 봐요? 전 쌩하니 형주로 갈 마음뿐이에요. 잔칫상 수천수만 번 차려놔도 오라버니 다시는 우릴 부르지 마세요.
>
> ((孫權云)妹子, 你則今日就起身罷. (正旦唱)你還怕我有心留戀着, 隻望俺那荊州疾到. 便排下那幾千番筵席, 你也休的再來邀.)

위의 대화에서 손부인은 빨리 형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다. 손부인은 다시 초대하지 않기를 원했음에도 손권은 그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녀에게 가라고 권하였다. 이로 인해 손부인은 오나라와의 관계를 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손부인의 결말이 드러나지 않는 잡극에서는 그녀가 다시 오나라로 돌아가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설자에서 유비와

107) 他耳邊廂悄悄的言, 心兒裡暗暗的曉. 不爭你把我厮瞞着, 怎知我這些心地好. …… (正旦唱)我怎肯將他來違拗, 我須是忠臣門下女妖嬈. (귓속말로 소곤소곤대고 속으로 몰래몰래 알아채네. 나 듣지 말라 그러시다니, 내 고운 마음씨를 어찌 알까? …… 내 어찌 그를 저버리겠느냐? 난 충신 집안의 참한 규수란다.) 앞의 책, 第三折, 6754쪽.

주유의 입으로 손부인이 장수들을 꾸짖는 장면[108]이 나온다. 이는 손부인의 숙녀다운 형상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손부인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기록과 평화 속에서 만들어진 남성화된 형상과 구분해야 한다. 대다수 기존의 연구들은 손부인이 유비를 지극히 사랑했다고 보고 유비를 돕기 위해 손부인이 행동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 제시된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손부인이 재혼을 꺼리는[109] 모습과 오라버니인 손권을 원망하는 모습을 통해 유비에 대한 애정이 깊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사회 교화의 영향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손부인의 형상은 용맹한 여장군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제멋대로의 아가씨 형상과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손부인의 형상이 파격적으로 변화하였지만, 여성적인 부드러운 면과 오나라 郡主로서 자유분방한 면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스무 살도 안 된 소녀의 형상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제4절에서는 손부인과 유비 일행이 무사히 형주로 돌아갔다는 것에 대해 논공행상을 하면서 손부인이 현달하다고 칭찬해주었는데 이를 들은 손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금상화】 형주를 가지려 해도 저마다 방법이 없었는데 유독 주유만이 변괴를 부렸지요. 함정을 파고 신부를 호위해 왔지요. 제게 부탁하는 말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
> 【요편】 소첩이 어질어서가 아닙니다. 매사 분명히 해야지요. 문턱에

108) (劉云)恰才這江口, 吳將攔路, 不是夫人喝退, 怎麽能勾過來? (周瑜做下馬跪科, 云)小姐……怎麽這江口上小姐倒叱退衆將, 放劉備走了, 着某甚日何年得他這荊州? (유비) 조금 전 어귀에서 오나라 장수들이 길을 막아설 때, 부인이 물러서라 호통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나올 수 있었겠소? (주유가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는 동작을 한다) 아가씨……아가씨께서는 어인 일로 장수들에게 호통을 쳐 유비를 보내 주라 하셨습니까? 언제쯤에나 제가 형주를 손에 넣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앞의 책, 楔子, 6757쪽.

109) 難道你妹子害了一個, 又好另嫁一個? (이 누이가 그 사람을 해치고 다른 남자에게 잘도 재가할 수 있겠어요?) 앞의 책, 第二折, 6746쪽.

들어서기도 전에 미리 백기를 든 셈 이미 혼인을 한 몸인데 어찌 함부로 생각하겠어요? 전 이쪽에 서기로 했는데 그자는 계책만 세웠지요.

【벽옥소】이것도 타고난 숙명이요. 천생연분이 끌어당긴 일이지요. 부부간에 사랑이 있다면 영원히 화목할 것입니다. 황제 만년토록 강산 보존하며 재앙도 물리치길 기원하나이다.

(【錦上花】要取荊州, 人人無奈. 則有個周瑜, 逞盡狂乖, 定下機關, 送親過來. 囑付我的言詞, 揚揚不採.

【么篇】非干賤妾賢, 凡事要明白. 未入門桯, 先納降牌. 既做姻親, 怎好亂猜? 咱這裏歸伏, 他幹生計策.

【碧玉簫】這也是天數合該, 姻緣線牽來. 夫妻有情懷, 永遠得和諧. 願皇圖萬萬載, 保封疆弭禍災.)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부인은 겸손한 태도로, 혼인 관계를 맺었다면 부부끼리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표현한다. 제갈량은 손부인과 같은 덕행을 가진 사람은 드물고[110] 손부인이 하늘이 정해준 유비의 인연이며 부부 사이가 정이 있으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고도 말하였다. 이 구절을 두고 손부인이 유비를 사랑했다고 여기는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단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손부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항상 여성의 풍격을 모범으로 삼고 여계를 스승으로 삼는다고[111]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평소에 읽는 책들도 여성을 현모양처가 되도록 교화시키는 책이었다. 결혼한 남편에게는 사랑과 상관없이 정성을 다해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며, 오라버니에 대한 원망이나 주유에 대한 분노도 손부인이 남편의 나라인 촉나라의 입장에 섰기 때문에 갖게 된 것이다. 또한 손부인이 유비를 도와주고 촉나라의 편을 든 것은 정통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는 손부인이 마지막에 빈 소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부인은 사회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 교화된 여성 형상으로, 나라의 안정을 바라는 '충군애국'의 유가사상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

110) (諸葛亮云) 似夫人大德, 端的少有. (제갈량이 말한다) 부인처럼 큰 덕을 지닌 분은 실로 드물 것입니다.) 앞의 책, 第四折, 6761쪽.

111) 常則是嬪風作範, 女誡爲師. (늘 부덕의 노래를 모범 삼아 ≪여계≫를 스승 삼는 것이다.) 앞의 책, 第一折, 6734쪽.

잡극에서 손부인의 형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자면, 손부인의 겉모습은 예쁘고 가냘픈 여성의 모습으로 보여지나 동시에 정신적으로는 개인 의지가 명백하고 오나라에 반항하는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옹유반조'의 정통론의 측면에서는 촉나라가 아닌 오나라를 폄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손부인은 개인 의지로 이 혼인의 본질이 형주를 도모하는 계책이라는 것을 알고 원망과 저항을 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부인이 행동하는 원인을 유비에 대한 사랑이라 볼 수 없는데 이는 사회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교화된 여성의 형상을 손부인에게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작가는 손부인을 '사랑'이라는 개인감정의 측면으로 다루기보다는 손부인의 형상을 통해 교화된 인간에 의한 나라의 안정을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3.4 小說 속의 손부인

삼국시대를 다룬 서사문학작품 중, 소설 ≪삼국지연의≫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판본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손부인의 형상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작자의 서술 입장과 형상 표현이 판본에 따라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최초판본인 가정본과 영향력이 큰 모종강본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손부인의 형상 차이를 분석하기 전에 두 판본의 핵심적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판본이든,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다루는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옹유반조'라는 정통론 사상을 중점으로 살펴봐야 한다. 오늘날에는 이 소설을 언급하면 '옹유반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소설이 처음부터 이러한 정통론 사상을 기반으로 완성된 것인지, 아니면 모종강본으로 첨삭하면서 당시 정권의 입장을 반영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각각의 인물을 예시로 들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 명확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삼국지≫를 읽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정통, 과도기, 비정통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정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촉한이 그러하다. 정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오나라와 위나라가 그러하다. 과도기인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진나라가 그러하다. 위나라가 정통이 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영토로 따지자면 중원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치로 따지면 유씨 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영토보다는 이치를 따져야 하므로 정통을 위나라에 부여한 것은 사마광이 ≪자치통감≫에서 저지른 잘못이다. 반면, 정통을 촉나라에 부여했으므로 주희의 ≪자치통감강목≫은 올바르다 …… <중략> …… 그러므로 소열 황제가 정통이 됨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진수의 삼국지에서는 이 사실을 가리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주희의 ≪통감강목≫에 절충하여 <삼국연의>에 이 내용을 추가해 바로잡았을 뿐이다.

(讀≪三國志≫者, 當知有正統、閏運、僭國之別. 正統者何? 蜀漢是也. 僭國者何? 吳、魏是也. 閏運者何? 晉是也. 魏之不得爲正統者, 何也? 論地則以中原爲主, 論理則以劉氏爲主, 論地不若論理. 故以正統予魏者, 司馬光≪通鑒≫之誤也. 以正統予蜀者, 紫陽≪綱目≫之所以爲正也.・・・<中略>・・・則昭烈之爲正統愈無疑也. 陳壽之志, 未及辨此, 余故折衷于紫陽≪綱目≫, 而特于演義中附正之.[112])

위와 같이 모종강은 가정본을 첨삭하기 전에 이미 <삼국지 읽는 법>(讀三國志法)이라는 글을 통해 처음부터 촉나라만이 정통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삼국지연의≫와 정통론 사상은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본의 경우,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천하이다"[113]라 밝히고 있으므로, 가

112) 毛宗崗, <讀三國志法>, 魯玉川、宋祥瑞等(輯校), ≪三國演義會評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4-5쪽.

113) 天下者, 非一人之天下, 乃天下人之天下. 自古"有道代無道, 無德讓有德", 豈過分乎? (천하는 일인의 천하가 아니라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의 천하이다. 옛날부터 "도가 없으면 도가 있는 사람이 대신하며, 덕이 없으면 덕 있는 사람이 자리를 양보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지나친 것이겠는가?) ≪嘉靖壬午本三國演義≫, 羅貫中, 北京: 人民出版社, 2007, 368쪽.

都督此言極是公論. 古人云"天下者, 非一人之天下, 乃天下人之天下", 先盡東吳去取;

정본에는 '옹유반조' 사상이 들어있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정통론의 입장으로 보면, 가정본은 적어도 모종강본만큼 철저히 '옹유반조' 사상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가정본과 모종강본을 비교하면서, 손부인의 형상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소설에서 손부인의 출신을 기술하고, 그 이름을 '손인(孫仁)'[114]이라 밝혔다. 앞에 언급한 역사 기록, 평화, 그리고 잡극과 달리, 소설에서는 손부인과 유비가 결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기존 작품들에서는 손부인이 오나라에서 유비에게 시집갔다는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반면 소설에서는 어떤 판본이든지 오나라를 방문한 유비를 '入贅(데릴사위로 들인다)', '招贅(데릴사위로 부른다)'는 형식으로 맞이하게 되었다.[115] 유비가 甘

若東吳取不下, 主公取之是也, 有何不可哉? (도독님의 말씀은 매우 공론화된 의견입니다. 고대 선인들은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천하이다."고 말하였습니다. 먼저 동오의 힘을 다해 가서 취합시다. 만약 동오가 빼앗을 수 없다면, 주공이 빼앗는 것도 결코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앞의 책, 352쪽.

114) 卻說孫堅有四子, 皆吳夫人所生: 長子名策, 字伯符; 次子名權, 字仲謀; 三子名翊, 字叔弼; 四子名匡, 字季佐. 吳夫人之妹, 孫堅次妻, 亦生一兒一女: 子名朗, 字早安; 女名仁. (손건은 네 명의 아들이 있었고 모두 오부인이 낳은 자식이다. 장자의 이름은 책이고 자는 백부, 차자의 이름은 권이고 자는 중모, 셋째 아들의 이름은 의이고 자는 숙필, 넷째 아들의 이름은 광이고 자는 기좌였다. 오부인의 여동생이었던 손건의 둘째 부인은 또한 한 아들과 한 딸을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랑이고 자는 조안, 딸의 이름은 인이었다.) 앞의 책, 48쪽.

115) 權曰: "近聞劉玄德喪妻. 吾有一妹, 欲招此人爲婿, 永結親姻, 共力破曹, 以扶漢室." 瑜曰: "……我修封申呈, 敬達吳侯, 便教人去荊州爲媒, 說劉備來入贅." (권이 말했다. 최근에는 유현덕이 아내를 상실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을 데릴사위로 삼아 영원한 친척관계를 맺고 함께 조조를 무찌르고 한나라를 돕고자 합니다. 주유가 말했다. …… 나는 신정을 작성해 이를 오후께 올릴 것이며, 사람을 형주에 보내 중매인으로 삼아 유비에게 들어와 데릴사위가 되라고 설득하겠습니다.) 앞의 책, 369쪽.

近聞劉玄德喪婦. 吾有一妹, 欲招贅玄德爲婿, 永結姻親, 同心破曹, 以扶漢室. (최근에는 유현덕이 아내를 상실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현덕을 데릴사위로 불러 영원한 친척관계를 맺고 함께 조조를 무찌르고 한나라의 위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魯玉川、宋祥瑞等(輯校)≪三國演義會評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668쪽.

夫人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자, 주유가 형주를 도모할 계책[116]을 세우고 여범(呂范)을 형주에 보내 중매하게 하여 손부인을 유비에게 소개하게 된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가정본	모종강본
주유가 말하기를, “유비가 아내를 잃었고, 오후(손권)께 누이동생이 한 분 계신데 매우 강용하여, 평소에도 시녀 수백 명이 칼을 차고 있게 하고 방안에는 병기를 두루 세워 놓아, 남자도 감히 미치지 못하는 지경이오.” (瑜曰: “劉備喪妻, 吳侯有一妹, 極甚剛勇, 侍婢數百, 居常帶刀, 房中軍器擺列遍滿, 雖男子不及也.”)	주유가 말하기를, “유비가 아내를 잃었으니, 반드시 새 장가를 갈 거요. 마침 주공께는 누이동생이 한 분이 계신데 매우 강용하여, 평소에도 시녀 수백 명이 칼을 차고 있게 하고 방안에는 병기를 두루 세워 놓아, 남자도 감히 미치지 못하는 지경이오.” (瑜曰: “劉備喪妻, 必將續娶. 主公有一妹, 極其剛勇, 侍婢數百, 居常帶刀, 房中軍器擺列遍滿, 雖男子不及.”)
여범이 말하기를: “저의 주공 오후께 누이동생한 분이 계신데 아름답고 몹시 현명하며 ……오후의 누이는 몸은 비록 여자이나 품은 의지와 기세는 남자만 못하지 않아서, 항상 말하기를, ‘천하의 영웅이 아니면, 나는 섬기지 않겠다’합니다.	여범이 말하기를: “저의 주공 오후께 누이동생 한 분이 계신데 아름답고 현명하며 ……다만 우리 국태 오 부인께서는 어린 딸을 몹시 사랑하셔서, 멀리 시집보내려고 안 하시니, 아무래도 황숙께서 동오로 가셔서 혼인을 하셔야 하겠습니

116) 我修封申呈, 敬達吳侯, 便教人去荊州爲媒, 說劉備來入贅. 賺到南徐, 妻室不能勾得, 幽囚在獄中, 卻使人去討荊州換了劉備. 一角交割了荊州城池, 我別有個主意. (내가 지금 오후께 신정을 올려, 사람을 형주로 보내 중매를 서게 하여, 유비에게 데릴사위로 오게 하는 것이다. 남서까지 오게 꾀어내면 장가는 둘째 치고 먼저 옥에 쳐놓고, 사람을 보내서 유비와 형주를 맞바꾸자고 하단 말이오. 그가 형주를 우리에게 넘겨준다면 그땐 내게 따로 생각이 있습니다.) ≪嘉靖壬午本三國演義≫, 羅貫中, 北京: 人民出版社, 2007, 369쪽.

我今上書主公, 教人去荊州爲媒, 說劉備來入贅. 賺到南徐, 妻子不能勾得, 幽囚在獄中, 卻使人去討荊州換劉備. 等他交割了荊州城池, 我別有主意. (내가 지금 주공께 글을 올려, 사람을 형주로 보내 중매를 서게 하여, 유비에게 데릴사위로 오게 하는 것이다. 남서까지 오게 꾀어내면 장가는 둘째 치고 먼저 옥에 쳐넣고, 사람을 보내서 유비와 형주를 맞바꾸자고 하단 말이오. 그가 형주를 우리에게 넘겨준다면 그때에 내게 따로 생각이 있습니다.) 魯玉川、宋祥瑞等(輯校), ≪三國演義會評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668쪽.

(範曰: “吾主人吳侯有一妹, 美而大賢……吳侯之妹, 身雖女子, 志勝男兒. 常言: ‘若非天下英雄, 吾不事之.’”)	다 ……오후의 누이는 몸은 비록 여자이나 품은 의지와 기세는 남자만 못하지 않아서, 그리고 항상 말하기를, ‘천하의 영웅이 아니면, 나는 섬기지 않겠다’합니다. (範曰: “吾主吳侯有一妹, 美而賢……但我國太吳夫人甚愛幼女, 不肯遠嫁, 必求皇叔到東吳就婚……吳侯之妹, 身雖女子, 志勝男兒. 常言: ‘若非天下英雄, 吾不事之.’”)

위와 같이 주유와 여범은 손부인이 용감하고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하며, 손부인을 여장군과 같은 형상으로 굳게 인식하였다. 이렇게 소개된 손부인은 남성적인 형상에 가까워 보이나 동시에 아름다우며 현명하고 도덕적인 여성으로 묘사되었다. 모종강본에서는 태부인이 자신의 딸인 손부인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시집을 멀리 보내기는 꺼린다는 말을 하며, 유비를 데릴사위로 삼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평화나 잡극과 달리, 손권이 태부인에게 미리 정략결혼의 진실을 아뢰는 부분을 삭제된 이유도, 태부인이 자신의 딸을 지극하게 사랑하여 이 계책을 막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 짐작한다. 또한, 제갈량의 錦囊妙計를 따라 오나라에 도착한 유비는 喬國老를 찾아 손부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고하였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유비가 오나라로 장가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사자인 손부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 이어서 교국로가 태부인을 찾아가서 손부인의 혼인을 왜 속이는지 물었을 때, 태부인은 손권이 손부인과 유비의 혼인을 대신 허락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태부인이 손권을 불러 울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정본	모종강본
남자가 크면 장가들고 여자가 크면 시집가는 것은 예나 이제나 떳떳한 도리다. 내가 네 모친이니 마땅히 내게 말할 것이 아니냐? 네가 유현덕을 데려다가 내 사위를 삼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있는 거냐? 그 딸은 분명 내 핏줄이다. (男大須婚, 女大須嫁, 古今常禮. 我爲母之道, 也須使我知道. 你招劉玄德爲婿, 瞞我怎的? 女兒須是我的骨血!)	남자가 크면 장가들고 여자가 크면 시집가는 것은 예나 이제나 떳떳한 도리다. 내가 네 모친이니 마땅히 내게 말하고 일을 벌여야 할 것이 아니냐? 네가 유현덕을 데려다가 내 사위를 삼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있는 거냐? 그 애는 분명 내 딸이다. (男大須婚, 女大須嫁, 古今常理. 我爲你母親, 事當稟命於我. 你招劉玄德爲婿, 如何瞞我? 女兒須是我的!)

위와 같이 태부인은 손권이 자신을 속인 것을 못마땅해하였다. 이어 손권의 이야기를 듣고, 이 혼인이 주유가 세운 계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주유를 욕하며 분노하였다.[117] 이에 태부인은 유비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하고, 만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책대로 하겠다고 말하며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주었다. 이 부분은 <평화>에서 "예의를 갖추면 시집가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거다"라는 말한 태부인의 태도와 비슷하게 어머니

117) 國太大怒而罵周瑜曰: "周瑜匹夫! 汝做六郡八十一州大都督, 直恁無條計策去取荊州, 卻將我女兒爲名, 使美人計! 殺了劉備, 便是望門寡, 明日再怎的說親? 須誤了我女兒一世! 你每好做作!" (태부인이 크게 노하여 주유를 욕하기를, 주유란 하찮은 놈! 너는 6군 81주의 대도독을 맡고서도, 이토록 형주를 취할 아무 계책을 못 세우고 도리어 내 딸을 미끼로 삼아 미인계를 쓰다니! 유비를 죽이게 되면 내 딸은 그만 망문과(대례를 치르기 전에 신랑이 죽어서 일찍 홀몸이 된 과부)가 되고 말 텐데, 어떻게 다시 혼인을 의논하단 말이냐? 결국 내 딸은 한평생을 망치게 되었구나! 너희들 참 잘도 한다!) ≪嘉靖壬午本三國演義≫, 羅貫中, 北京: 人民出版社, 2007, 371쪽. 國太大怒, 罵周瑜曰: "汝做六郡八十一州大都督, 直恁無條計策去取荊州, 卻將我女兒爲名, 使美人計! 殺了劉備, 我女便是望門寡, 將來再怎的說親? 須誤了我女兒一世! 你們好做作!" (태부인이 크게 노하여 주유를 욕하기를, 주유란 놈이 6군 81주의 대도독을 맡고서도, 이토록 형주를 취할 아무 계책을 못 세우고 도리어 내 딸을 미끼로 삼아 미인계를 쓰다니! 유비를 죽이게 되면 내 딸은 그만 망문과(대례를 치르기 전에 신랑이 죽어서 일찍 홀몸이 된 과부)가 되고 말 테니, 어떻게 다시 혼인을 의논하단 말이냐? 결국 내 딸은 한평생을 망치게 되었구나! 너희들 참 잘두 한다!) 魯玉川、宋祥瑞等(輯校), ≪三國演義會評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671쪽.

로서 딸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준다. 반항 정신이 강한 잡극에서 태부인이 손권의 말대로 하는 것은 단본 잡극이기 때문이다. 소설에 비하면 잡극 속 태부인의 반응은 점잖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부인은 甘露寺에서 유비를 만나 "참으로 내 사윗감이다"[118]라고 하며 크게 기뻐하면서 이 혼인을 허락한다.[119]

이로써 태부인은 혼인을 허락하였으나, 손부인은 여전히 자신이 유비와 결혼하게 될 것을 모르는 상태였다. 손권은 계책으로 혼인을 성사시키려는 입장이므로 손부인에게 함구한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손부인을 지극히 사랑하는 태부인은 잡극에서와 달리, 딸인 손부인의 의견을 묻거나 혼인이 성사되었음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 손부인의 주변 인물들은 이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손부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태부인이 그저 유비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인물로 여기게 한다.[120] 게다가, 태부인이 손부인을 아낀다는 서술에서도 여러 번 유비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따른 것임을 뚜렷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들은 전후 모순이 많아 태부인의 형상을 만드는데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이런 점들이 결합하여 소설에서는 손부인의 개인 의지가 잡극보다는 덜 나타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결혼을 정하는 과정에서 손부인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혼인에 대한 손부인의 태도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

118) 國太見了玄德, 大喜, 謂喬國老曰: "眞吾婿也!" (태부인이 현덕을 보더니, 크게 기뻐하며 교국로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내 사윗감이군요!") 魯玉川、宋祥瑞等(輯校), ≪三國演義會評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672쪽.

119) 직접적으로 태부인이 왜 유비를 마음에 들었는지 서술이 없지만 교국로의 말대로는 "현덕은 龍鳳의 풍채요, 천일(天日: 해)의 의표를 지닌 데다가 인덕이 천하에 떨치오."

120) 國太大怒, 責罵孫權: "今日玄德旣爲我婿, 卽我之兒女也. 何故伏刀斧伏刀手於廊下?"……喬國老入見國太, 言玄德恐有人謀害, 急急要回. 國太大怒曰: "我的女婿, 誰敢害他!" (태부인은 크게 노하여 손권을 꾸짖기를, "오늘 현덕이 내 사위가 되었으니 곧 나의 자식이다. 어째서 행랑에 도부수들을 숨겨놓은 거냐?" ……교국로가 태부인을 만나서, 현덕이 남에게 모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빨리 돌아가려 한다고 말하자, 태부인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내 사위를 누가 감히 모해하려 한단 말이오!") 앞의 책, 674쪽.

결혼하는 날 밤, 유비가 손부인의 방에 들어가서 병기들을 다 치우라고 요청하는 장면은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현덕은 손부인의 방 안 양쪽 벽에 창과 칼이 가득 차 있고, 시녀들도 모두 칼을 차거나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대경실색하자 …… "부인께서는 어려서부터 무예 구경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평소에도 시녀들에게 격검을 시키기를 즐기신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손부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한다. "반평생을 싸움터에서 지내신 분이 어쩌면 병기를 두려워하신담!" 그리고는 곧 병기를 모조리 치우고, 시녀들에게도 칼을 풀어놓고 모시게 하였다.
>
> (玄德見孫夫人房中兩邊槍刀森列, 侍婢皆佩劍, 不覺失色 ……"夫人自幼好觀武事, 居常令侍婢擊劍爲樂, 故爾如此"……孫夫人笑曰: "(가정본:相)廝殺半生, 尚懼兵器乎?" 命盡撤去, 令侍婢解劍伏侍. (가정본과 모종강본의 내용은 거의 같음)

여기서 손부인은 무예를 좋아하는 성격을 드러내고 역사 속에서 보였던 용맹한 모습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평화와 잡극과는 달리, 소설의 손부인은 유비를 만나자 그가 군주의 상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지 않았으며, 손부인은 웃으면서 유비에게 겁이 많은 이유를 묻고 자신의 무예 실력을 보여준다. 이는 여장군의 형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두 판본의 서술의 차이는 아래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정본	모종강본
이날 밤에 현덕이 손부인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현덕이 달콤한 말로 손부인을 꾀자 손부인이 기뻐하였다. 현덕이 또한 돈과 비단을 아끼지 않고 시녀들에게 나눠줘 그들의 마음을 사는 한편, 손건을 먼저 형주로 돌려보내서 무사히 혼례를 치렀음을 알리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현덕이) 며칠을 잇달아 술을 마시며 즐기니, 국태는 그를 매우 사랑하고 공경하	이날 밤에 현덕이 손부인과 백년가약을 맺으니 두 사람의 금슬이 자못 좋았다. 현덕이 또한 돈과 비단을 아끼지 않고 시녀들에게 나눠줘 그들의 마음을 사는 한편, 손건을 먼저 형주로 돌려보내서 무사히 혼례를 치렀음을 알리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현덕이) 며칠을 잇달아 술을 마시며 즐기니, 국태는 그를 매우 사랑하고 공경하였다.

였다. (當夜玄德與孫夫人成親. 玄德以甜言美語啜誘孫夫人, 夫人歡喜. 玄德乃以金帛散與侍婢以買其心, 先教孫乾回荊州報喜. 自此, 連日飮酒. 國太十分愛敬.)	(當夜玄德與孫夫人成親, 兩情歡洽. 玄德又將金帛散給侍婢, 以買其心, 先教孫乾回荊州報喜. 自此連日飮酒. 國太十分愛敬.)

위와 같이 가정본에서는 유비가 손부인을 유혹한다는 서술이 있었으나, 모종강본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손부인의 개인적 감정을 드러낸 부분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정통론적인 영향으로 인해 유비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제거하여 유비를 예의를 갖춘 인물로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손부인이 무예를 좋아하고 늠름(凜凜)하고 씩씩한 성격으로 묘사된 반면, 유비는 손부인을 처음 보고 겁을 내었다는 서술은 앞서 언급한 유비의 성격 묘사와 배치된다. 가정본에서는 유비가 손부인을 달콤한 말로 꾀어낸 것이 손부인이 유비를 좋아하게 된 이유로 드러나지만, 모종강본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면서 손부인의 형상에 모순점이 드러난다.

가정본에서 손부인은 용맹하고 남자와 다름없는 성격으로, 겁많은 유비와 "정을 통하여 즐겁고 흡족하다"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상황의 전후와 맞지 않아 손부인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는 단지 유비의 형상을 보다 매력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잡극에서는 손부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혼인의 始末을 경험한 손부인의 역할은 잡극에서 강조되었다. 하지만 소설에서 손부인은 어머니인 태부인과 같이 유비의 형상을 구체화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가정본에서는 유비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일부 있었지만, 모종강본에서는 인과 의를 행하는 유비의 형상을 만드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 주변 인물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본은 모종강본에 비해 '옹유반조'의 사상 경향이 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손권이 유비 일행을 오나라에 가두고자 미녀와 좋은 물건들을 보내어 그의 심지를 꺾으려는 계책을 세웠다.[121] 유비는 이 계책에 넘어가 오

나라에 머물면서 형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조운이 제갈량의 금낭을 풀어 형주가 위급하다는 것을 말하자, 유비는 정신을 차리고 오나라에서의 탈출을 고민하게 되었다.[122] 이에 유비가 울면서 손부인에게 양친을 모시지도 못하고 제사도 올리지 못해 슬프다는[123] 말을 하자, 손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정본	모종강본
손부인이 말하기를, “장부께선 저를 속이지 마세요. 제가 이미 엿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조자룡이 들어와 형주가 위급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형주에 돌아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그러자 현덕이 무릎 꿇고 고한다. “부인이 이미 알고 있으니 내가 어찌 감히 속이겠소. 내가 아니 가자니, 만약 형주를 잃는 날에는 온 천하 사람들의 조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가자고 하니 또한 차마 부인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 번뇌하	손부인이 말하기를, “장부께선 저를 속이지 마세요. 제가 이미 엿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조자룡이 들어와 형주가 위급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형주에 돌아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현덕이 무릎 꿇고 고한다. “부인이 이미 알고 있으니 내가 어찌 감히 속이겠소. 내가 아니 가자니, 만약 형주를 잃는 날에는 온 천하 사람들의 조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가자고 하니 또한 차마 부인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 번뇌하는 것이

121) 愚意莫如軟困之於吳中, 盛爲築宮室, 以喪其心志; 多送美色玩好, 以娛其耳目; 使分開關、張之情, 隔遠諸葛之契, 各置一方, 然後以兵擊之, 大事可定矣. (제 생각에는, 그를 동오에 붙들어 두고 굉장하게 궁실을 지어주어 그 심지를 꺾게 하고, 미인과 진귀한 물건들을 많이 보내서 그의 이목을 즐겁게 하십시오. 관우, 장비와의 정의를 벌어지게 하고, 제갈량과의 약속을 잊게 하고서, 그들이 서로 떨어지게 한 뒤에 군사를 풀어 들이치면, 대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앞의 책, 678쪽.

122) 제갈량의 금남묘계에서 유비가 형주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손권을 속이기 위해 연기한 것으로 잡극에서 다루어졌지만, 소설에서는 조운이 형주가 위험하다는 것을 유비에게 직접 말해주었기 때문에 유비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잡극에서는 유비가 손부인을 속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만, 소설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유비의 인의적인 형상을 강화시켰다는 것이다.

123) 孫夫人曰: “丈夫何故煩惱?” 玄德曰: “念備一身飄蕩異鄉, 生不能侍奉二親, 死不能祭祀宗祖, 乃大逆不孝也. 今歲旦在邇, 使備悒怏不已.” (손부인이 묻기를, “부군께서 무슨 까닭으로 번뇌하시오?” 유비가 말하기를, “생각해 보니 유비의 일신이 타향에서 떠다니며 생전에 양친 봉양을 못 하였고 조상의 제사도 받들지 못했으니, 나같이 불효막심한 자가 어디 있겠소? 머지않아 새해를 맞게 되니 자연 마음이 우울해서 그러오.”) 앞의 책, 679쪽.

는 것이오.” “첩은 이미 부군을 섬기는 몸이니, 부군께서 가신대로 첩이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요.” “부인의 마음 비록 그러하나, 국태와 오후가 부인을 놓아주지 않을 테니 그걸 어찌하겠소? 부인이 만약 이 유비를 가엾게 여기거든 잠시 작별하게 해주시오. 내가 만약 형주 전장에서 전사하고 부인은 재가하지 않으면, 비록 내가 저승에 있다 해도 여전히 은혜를 받을 것이오.” 손부인은 말했다: “남편께서는 왜 이렇게 불길한 말을 하시나요?” 유비는 말했다: “속담에 ‘귀한 집 자제가 연회에서 취하거나 배부르게 먹은 것이고, 장수는 전투에 임하여 죽거나 부상을 입은 것이다’고 말하잖아요. 적군을 상대로 싸울 때, 보호해줄 수 있겠어요?” 현덕은 말을 마치고 또 눈물을 비 오듯 흘렸다. 손부인이 권하였다. “장부께서는 그토록 번뇌하지 마시오. 첩이 모친께 말씀드려서, 기어이 같이 떠나라는 분부가 내리도록 하지요.” “설혹 국태께서는 허락하시겠지만 오후는 필연코 못 가게 막을 것이오.” 손부인이 말하기를 “정단에 첩이 부군과 함께 나아가 모친께 세배 드릴 적에 강변에 나가 조상 제사를 올린다는 핑계를 대고, 하직을 고하지 않고 그대로 떠나면 어떠할까요?” 현덕은 다시 무릎 꿇고 고마워한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죽어도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그러나 절대 누설하지는 말아주오.”	오.” “첩은 이미 부군을 섬기는 몸이니, 부군께서 가시는 곳이면 첩은 어디건 따라 가겠습니다.” “부인의 마음 비록 그러하나, 국태와 오후가 부인을 놓아주지 않을 테니 그걸 어찌하겠소? 부인이 만약 이 유비를 가엾게 여기거든 잠시 작별하게 해주시오.” 현덕은 말을 마치자 또 눈물을 비 오듯 흘렸다. 손부인이 권하였다. “장부께서는 그토록 번뇌하지 마시오. 첩이 모친께 말씀드려서, 기어이 같이 떠나라는 분부가 내리도록 하지요.” “설혹 국태께서는 허락하시겠지만 오후는 필연코 못 가게 막을 것이오.” 부인은 한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한다. “정단에 첩이 부군과 함께 나아가 모친께 세배드릴 적에 강변에 나가 조상 제사를 올린다는 핑계를 대고, 하직을 고하지 않고 그대로 떠나면 어떠할까요?” 현덕은 다시 무릎 꿇고 고마워한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죽어도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그러나 절대 누설하지는 말아주오.”
孫夫人曰: “你休瞞我, 我已聽知了也! 方才趙子龍報說荊州危急, 你欲還鄉, 故推此意.” 玄德跪而告曰: “夫人旣知, 備安敢瞞過? 備欲不去, 使荊州有失, 被天下人罵備也; 欲去, 又捨不得夫人, 因此煩惱.” 夫人曰: “我已嫁事於君, 君所去處, 我願隨之.” 玄德曰: “夫人之心, 可道如此, 爭奈國太與	孫夫人曰: “你休瞞我. 我已聽知了也. 方纔趙子龍報說荊州危急, 你欲還鄉, 故推此意.” 玄德跪而告曰: “夫人旣知, 備安敢相瞞? 備欲不去, 使荊州有失, 被天下人恥笑; 欲去又捨不得夫人, 因此煩惱.” 夫人曰: “妾已事君, 任君所之, 妾當相隨.” 玄德曰: “夫人之心, 雖則如此, 爭奈國太與吳侯安

吳侯, 安肯容夫人去也? 夫人若可憐劉備, 暫時辭別. 若劉備戰死荊州沙場, 夫人再不更事豪傑, 備雖在九泉, 蒙恩不淺也." 孫夫人曰: "丈夫何故出此不利之言耶?" 玄德曰: "豈不聞俗語云曰: '公子登筵, 不醉則飽; 壯士臨陣, 不死卽傷.' 赴敵之人, 豈敢保耶?" 言訖, 淚下如雨. 孫夫人勸曰: "丈夫休得煩惱. 我苦苦哀告母親, 必須放我與君同去." 玄德曰: "縱然國太肯時, 吳侯必然阻當." 孫夫人曰: "我有一計, 汝能從否?" 玄德請問, 夫人答曰: "我與你正旦拜賀時, 推稱江邊祭祖, 不告而去, 若何?" 玄德曰: "若如此, 生死難忘! 切勿瀉漏了."	肯容夫人去? 夫人若可憐劉備, 暫時辭別." 言畢, 淚如雨下. 孫夫人勸曰: "夫君休得煩惱. 妾當苦告母親, 必放妾與君同去." 玄德曰: "縱然國太肯時, 吳侯必然阻擋." 孫夫人沈吟良久, 乃曰: "妾與君正旦拜賀時, 推稱江邊祭祖, 不告而去, 若何?" 玄德又跪而謝曰: "若如此, 生死難忘. 切勿漏泄."

위와 같이 가정본에서는 유비가 형주의 상황이 위태로운 것을 알고 형주로 급히 돌아가고자 한다.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손부인이 개가하지 않는다면 입을 은혜가 클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작가가 여성이 지켜야 할 정절에 대한 요구를 인물의 입을 빌려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모종강본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유비와 손부인의 감정 표현이 제한되어 있어 전쟁에 속히 나가야 하는 유비의 긴박함과 간절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유비는 금낭 속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정본에 따르면, "첩이 이미 군에게 시집을 가 모시게 되었으니 군이 가시는 곳으로 동행하겠다"는 서술에서 손부인은 이 선택을 스스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비가 손부인에게 달콤한 말을 했다는 점과 전사하였을 때 재가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내리겠다는 말을 한 점을 보면, 비로소 가정본에서 유비와 손부인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서서히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모종강본에는 누락되어 있다. 모종강본에서는 유비와 손부인과의 관계에 대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모종강본에서는 "첩이 이미 부군을 모시게 되었으니 부군께서 가시는 대로 첩도 당연히 따라야지요"라는 서술이 있다. 이는 '저는 부군을 따라가길 원한다'고 밝힌 가정본과 차이가 있다. 모종강본에서 손부인은 남편을 따른다는 것이지 자신만의 선택을 내린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로써 모종강본에

끼친 정통론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본에서는 두 사람의 감정을 자세히 표현하였으므로 유비와 손부인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반면 모종강본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발전하는 과정이 없으므로 손부인의 말에 개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어서 손부인이 태부인에게 고하며, 설날에 강변에 가서 제사를 지낼 것이라는 핑계로 대고 몰래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자 유비는 무릎을 꿇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감사를 표하였다. 이는 유비가 손부인만을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설날에 손부인은 유비를 데리고 강변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태부인의 허락을 받았다.[124] 이들은 탈출하는 도중에 추격병을 만나게 되었고, 유비는 울면서 이 혼인이 형주를 도모하는 계책이었다는 것을 알리며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다.[125] 손부인은 유비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124) 國太曰: “此孝道也, 豈有不從? 汝雖不識舅姑, 可同汝夫前去祭拜, 亦見爲婦之禮.” 孫夫人同玄德拜謝而出. (태부인이 말하기를, 이것은 효도이거늘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너는 비록 시부모를 뵙지 못하였으나, 네 남편과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이 남의 며느리 된 도리이니라. 손부인이 현덕과 함께 태부인에게 절을 올려 감사드리고 물러났다.) 앞의 책, 680쪽.

125) 玄德曰: “昔日吳侯與周瑜同謀, 將夫人招贅劉備, 實非爲夫人計, 乃欲幽囚劉備而奪荊州耳. 奪了荊州, 必將殺備. 是以夫人爲香餌而釣備也. 備不懼萬死而來, 蓋知夫人有男子之胸襟, 必能憐備. 昨聞吳侯將欲加害, 故託荊州有難, 以圖歸計. 幸得夫人不棄, 同至於此. 今吳侯又令人在後追趕, 周瑜又使人於前截住, 非夫人莫解此禍. 如夫人不允, 備請死於車前, 以報夫人之德.” (전에 오후가 주유와 공모하고 저를 부인에게 장가들도록 한 것은 참으로 부인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를 가두어 놓고는 형주를 빼앗고, 형주를 빼앗은 뒤에는 나를 죽이기 위한 계책이었다. 또 그러기 위해 부인을 미끼로 삼아 나를 낚으려 하였던 것이다. 그런 줄을 알면서도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갔던 것은, 바로 부인에게 남자의 도량이 있어서 필시 나를 어여삐 여기시리라 믿었기 때문이었소. 어제 오후가 곧 나를 해치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형주에 급한 일이 있다 핑계 대고 돌아갈 계책을 도모했던 것이오. 다행히도 부인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여기까지 와주었거니와, 이제 오후가 사람들을 보내 우리를 뒤쫓게 하고 주유가 또한 사람을 시켜 앞에서 가로막으니, 부인이 아니고는 이 화를 풀 사람이 없소. 그러나 만일 부인이 마다하실 경우 나는 이 수레 앞에서 죽어 부인의 은덕에 보답하는 수밖에 없을까 보오.) 앞의 책, 681쪽.

저의 오라버니가 이미 나를 친골육으로 여기지 않는 바에야 제가 어찌 그와 다시 만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위급한 처지는 제가 풀어드리리다 ……너희 두 사람이 모반하는 거냐?……주유 이 역적놈 같으니! 우리 동오가 당신들을 박대한 적이 있느냐? 현덕은 바로 大漢의 황숙이시며 또 내 남편이다. 내 이미 모친과 오라버님께 형주로 따라갈 것이라 말씀드렸다. 이제 너희 둘이 산 아래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길을 막고 나서니 우리 부부의 재물을 빼앗으려 할 생각이냐?……너희는 주유만 무섭고 나는 두렵지 않단 말이냐? 주유가 너희를 죽일 수 있으면 나는 주유를 죽이지 못할 줄 아느냐? ……너희들이 우리 남매를 이간하여 화목하지 못하게 할 셈이냐! 내가 이미 황숙에게 시집갔으니 오늘 형주로 가는 것이, 다른 사람과 사사롭게 달아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 부부더러 형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모친의 뜻을 받든 것이다. 내 오라버님이 오셨더라도, 역시 마땅히 예의를 차렸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감히 군사의 위세를 믿고서 나를 죽이려 드는 것이냐?

(吾兄既不以我爲親骨肉, 我有何面目重相見乎! 今日之危, 我當自解. ……你二人慾造反耶?……周瑜逆賊! 我東吳不曾虧負你! 玄德乃大漢皇叔, 是我丈夫. 我已對母親、哥哥說知回荊州去. 今你兩個山腳去處, 引著軍馬攔道路, 意欲劫我夫妻財物耶?……你只怕周瑜, 獨不怕我? 周瑜殺得你, 我豈殺不得周瑜?……都是你這夥匹夫, 離間我兄妹不睦!我已嫁他人, 今日歸去, 須不是與人私奔. 我奉母親慈旨, 另我夫婦回荊州. 便是我哥哥來, 也須依禮而行. 你二人倚仗兵威, 欲待殺害我耶?)

이 부분은 손부인의 결단력과 굳건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손부인이 탈출을 주도하면서 개인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설에서는 손권마저도 손부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평화와 잡극과 다르게 손부인은 손권을 포함한 오나라에 대항하고 있다. 손부인이 병사에게 반역죄라며 겁을 주고 이미 태부인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말한 뒤, 주유마저 죽일 수 있는 신분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순차적으로 반박하고 꾸짖는 과정에서, 엄격하면서도 논리적인 말투가 인상적이다. 이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성으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용맹하고 식견이 뛰어난 여장군과 같은 면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유는 '남자도 따라

하지 못할 지경'이라는 평가에 부합하는 반면, 손부인은 유비를 보호하는 데에서만 개인 의지를 드러낸다는 차이점이 있다.

해당 장면에서는 병사들이 손부인과 유비를 쫓아와 그들을 죽이라는 손권의 명령을 받았으나, 이미 먼 거리로 떠났기 때문에 살아 도망칠 수 있었다.[126] 소설 두 판본에서도 주유가 뒤따라 쫓아 왔지만, 촉나라 병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손부인을 핑계로 주유가 형주를 얻기 위해 도모한 계책은 결국 실패하였다.

그 이후 손부인과 유비가 형주에 돌아간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손부인이 다시 등장하는 장면은 오나라가 촉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키려 할 때였다. 이때 태부인은 촉나라를 공격하라는 계책을 듣고 손권을 크게 꾸짖게 된다.

> "이 계책을 아뢴 자를 참하라! 내 딸의 목숨을 해칠 셈이냐?" 사람들이 놀라 바라보니 곧 태부인이다. 태부인이 노해 말한다. "내 일생에 유일한 딸이, 유비에게 시집간 것이다. 이제 병력을 동원하면 내 딸의 생명이 어찌되겠느냐?" 이에 손권을 꾸짖으며 말한다. "네가 부형의 유업을 맡아 편안히 81주를 거느린 것도 아직 모자라, 작은 이익 때문에 혈육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손권은 그저 네, 네 하며 답한다. "노모의 가르침을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곧 관리들에게 호통쳐 물러가게 한다.
>
> (進此計者可斬之! 欲害吾女之命耶?" 眾驚視之, 乃吳國太也. 國太怒曰: "吾一生唯有一女, 嫁與劉備. 今若動兵, 吾女性命如何?" 因叱孫權曰: "汝掌父兄之業, 坐領八十一州, 尚自不足, 乃顧小利而不念骨肉!" 孫權諾諾連聲, 答曰: "老母之訓 , 豈敢有違!" 遂叱退眾官.)

위와 같이 태부인은 손권이 작은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생의 목숨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을 꾸짖는다. 태부인이 촉나라를 공격하는 계획을 반대한 이

126) 가정본에서 병사들이 이미 멀리 떠나더라도 "岸上軍馬迤邐不捨" 즉, 병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는 서술이 더 상황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모종강본에서는 "蔣欽等四將, 只好呆看" 즉, 장흠 및 다른 장수들은 강을 건너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더 유비 세력을 돋보이게 하려는 내용으로 보인다.

유는 유일한 딸의 목숨을 생각해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손부인과 유비가 오나라를 벗어났을 때도 손권이 "검을 들고 가서 내 동생과 유비의 목을 취하여 오시오! 명령을 어기는 자 당장 참하시오!"[127]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다. 손권이 손부인의 목숨을 경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된 부분은 없지만, 잡극에서와는 달리 소설에서는 손권이 태부인 누이의 아들이고 손부인이 태부인의 딸인 것을 밝혔기 때문에, 손부인은 손권의 친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태부인은 손부인이 자신의 친딸이기 때문에 저렇게 귀하게 여기고, 손권은 손부인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친동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유비가 모든 사람을 친근하게 대해주는 것에 비해 손권은 다른 사람들과 척을 지며 손부인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보인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서술된 부분은 없다. 그러나 이는 손부인은 손권을 옹호하는 입장이었지만 유비와의 혼인 후에는 촉나라를 위하는 인물로 만들었다는 근거로써 손부인을 함께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평화나 잡극과는 달리 소설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므로 이는 손부인이 촉나라의 입장에 서서 행동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정적인 근거이기도 하다.

태부인에게 꾸짖음을 당한 후, 張昭는 손권에게 밀서를 보낸다. 그 내용은 태부인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거짓 소식을 전해, 손부인을 속여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다.[128] 손권은 크게 기뻐하면서 허락하고는, 周善을 형주

127) 權大怒, 掣所佩之劍, 喚蔣欽、周泰聽令, 曰: "汝二人將這口劍去取吾妹並劉備頭來! 違令者立斬!" 蔣欽、周泰領命, 隨後引一千軍趕來. (손권은 크게 노하며 차고 있던 검을 빼 들더니 장흠과 주태를 불러 명령하기를, "당신들 둘은 이 검을 들고 가서 내 누이동생과 유비의 머리를 베어 들고 오시오! 명령을 어기는 자는 곧 참하겠소!". 장흠과 주태는 명을 받자 곧 1천 군사를 거느리고 뒤를 쫓았다.)" 앞의 책, 680쪽.

128) 今差心腹將一人, 只帶五百軍, 潛入荊州, 下一封密書與郡主, 只說國太病危, 欲見親女, 取郡主星夜回東吳. 玄德平生只有一子, 就教帶來. 那時玄德定把荊州來換阿斗. 如其不然, 一任動兵, 更有何礙? (이제 심복 장수 1명을 시켜서 군사 5백 명만 거느리고 몰래 형주에 들어가 밀서 한 통을 군주(郡主)에게 전하라 하십시오. 태부인께서 병환이 위중하셔서 따님을 보고 싶어 하신다 하여 곧 밤을 도와 군주를 동오로 모셔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현덕의 외동아들 데리고 오게 하시면 그때는 현덕이 필연

로 보내 손부인을 만나게 하였다. 손부인은 태부인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주선과 대화하는데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선이 절하며 아뢴다. "태부인께서 매우 병세가 위중하시니, 단석[아침저녁]으로 오로지 부인만 생각하십니다. 지체하시면 만나뵙지 못하실까 두렵습니다. 부인더러 아두를 데려와 한번 보게 하라 시키셨습니다." "황숙께서 병력을 이끌고 멀리 나갔으니 내가 돌아가고자 하면 우선 사람을 보내 군사께 알려야 갈 수 있소." "만약 군사께서 회답하시기를 '황숙께 알려드려 명령을 받고서야 배에 타실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알리지 않고 떠나면, 가로막을까 두렵소."
>
> (周善拜訴曰: "國太好生病重, 旦夕只是思念夫人. 倘去得遲, 恐不能相見. 就教夫人帶阿斗去見一面." 夫人曰: "皇叔引兵遠出, 我今欲回, 須使人知會軍師, 方可以行." 周善曰: "若軍師回言道: '須報知皇叔, 候了回命, 方可下船', 如之奈何?" 夫人曰: "若不辭而去, 恐有阻當.")

위와 같이 주선은 손부인에게 태부인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거짓말을 하고, 곧 劉禪을 데리고 오나라로 올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손부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의를 갖추어 제갈량에게 상황을 고한 뒤 오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이 부분에서 손부인은 형주 생활에 적응하며 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절박하고 태부인의 안위를 걱정한 손부인은 유선을 몰래 데리고 오나라로 가려 하였다. 하지만 강을 건널 때 조운에게 막혀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오게 된다.

> 조운이 선창 안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아두를 품에 안고 조운에게 소리친다. "왜 이리 무례하시오?" 조운이 검을 집어넣고 두 손 모아 예를 갖춰 말한다. "부인께서는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어째서 군사께 알려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제 노모께서 병세가 위독하셔서 알릴 틈이 없었소." "주모께서 문병을 간다 하시더라도 무슨 까닭으로 작은 주인을 데려가십니

코 형주와 아두를 맞바꾸러 올 것입니다. 설사 군사를 움직이더라도 그때에는 무슨 구애될 것이 있겠습니까?) 앞의 책, 754쪽.

까?" "아두는 내 아들이니 형주에 남겨두면 돌볼 이가 없소." "주모께서 틀리셨습니다. 주인께서 일생에 이 한점 혈육만을 얻으셨는, 소장이 당양 장판파에서 백만대군 가운데 구출했습니다. 오늘 부인께서 도리어 오나라로 데려가신다면, 이게 무슨 도리이겠습니까?" 부인이 노해 말한다. "너는 단지 밑에 있는 일개 무사일 따름이거늘 어찌 감히 우리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이냐!" "부인께서 가시고 싶으시면 바로 가시되 다만 작은 주인을 두고 가십시오." 부인이 소리친다. "네가 도중에 배 안으로 난입하니, 필시 반란할 마음이 있어서구나!" "작은 주인을 두고 가지 않으시면 제 비록 만 번 죽은들 결코 부인을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趙雲入艙中, 見夫人抱阿斗於懷中, 喝趙雲曰: "何故無禮!" 雲插劍聲喏曰: "主母欲何往? 何故不令軍師知會?" 夫人曰: "我母親病在危篤, 無暇報知."雲曰: "主母探病, 何故帶小主人去?" 夫人曰: "阿斗是吾子, 留在荊州, 無人看覷." 雲曰: "主母差矣: 主人一生, 只有這點骨血. 小將在當陽長阪坡百萬軍中救出. 今日夫人卻抱將去, 是何道理?"夫人怒曰: "量汝只是帳下一武夫, 安敢管我家事!" 雲曰: "夫人要去便去, 只留下小主人."夫人喝曰: "汝半路輒入船中, 必有反意!" 雲曰: "若不留下小主人, 縱然萬死, 亦不敢放夫人去.")

위에서 손부인의 대담하고 박력이 있는 성격이 한 번 더 드러난다. 태부인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에서 부인의 말에 따라 아들 유선을 데리고 가야하는데, 집안일이므로 조운이 간섭하기를 거부한다. 조운은 마땅한 이유를 들어 유선을 두고 가라고 하였다. 이에 대장부인 조운에 맞선 손부인은 지지 않고 다시 한번 노기를 보이며 용맹함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조운과 주선 일행이 말썽을 일으키면서 조운은 여러 명을 상대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장비가 쫓아와 주선을 죽이고, 손부인과 다음과 같이 대화하게 되었다.

"형수님께서 저희 형님을 중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사사로이 귀가하시려고 하시니 이것이 무례가 아니고 무엇이요!" "제 모친의 병이 중하셔서 심히 위급하시오. 그대 형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다간, 내 일을 그르치고 말 것이오. 만약 나를 놓아 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내 진정 바라건대 강에 빠져 죽겠소!"(가정본: 말하고 베에서 뛰어내리고자 하였다.) 장비가 조운과 상의한다. "부인을 핍박해 죽인다면 신하된 도리가 아니오. 다만

아두를 보호하고, 배들은 통과시켜야겠소." 이에 부인에게 말한다. "저희 형님께서는 대한의 황숙이지만 형수님을 모욕하신 적이 없소. 오늘은 서로 헤어지고 형님의 은의를 생각하셔서 어서어서 돌아오시오."

(張飛曰: "嫂嫂不以俺哥哥爲重, 私自歸家, 這便無禮!" 夫人曰: "吾母病重, 甚是危急. 若等你哥哥回來, 須誤了我事. 若你不放我回去, 我情願投江而死!" (가정본:言訖慾跳) 張飛與趙雲商議: "若逼死夫人, 非爲臣下之道. 只護著阿斗過船去罷." 乃謂夫人曰: "俺哥哥大漢皇叔, 也不辱沒嫂嫂. 今日相別, 若思哥哥恩義, 早早回來.")

위와 같이 손부인은 강에 뛰어들어 죽는 결말을 맞이하고자 하였지만, 장비는 유비의 은의를 생각하여 일찍 돌아오라고 말하며 유선을 데리고 돌아갔다. 이에 손부인은 가정본에서는 물에 뛰어들고자 한 것으로 나오지만, 모종강본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손부인의 성격과 결말이 조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평화에서 장비의 말을 듣고 강에 뛰어들어 죽은 손부인의 결말의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손부인은 비슷한 논리로 추격병들을 두 번이나 꾸짖어 물러나게 하였다. 첫 번째는 유비를 보호하며 형주로 돌아오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유선을 데리고 오나라로 돌아가는 일이었다. 이 두 번 모두 손부인은 강한 개인 의지를 보여준다. 대체로 촉나라 편에 선 입장을 취하였지만, 잡극과 같이 오나라를 원망하며 다시는 오나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로 인해 손부인이 복잡한 감정을 가진 인물 형상에 더 가깝다는 것이 소설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손부인은 오나라로 돌아가서 장비와 조운이 주선을 죽이고 유선을 빼앗은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129] 이에 손권은 크게 분개하여, "내 누이가 이미 돌아왔고, 이젠 그와는 친척이 아니니, 주선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130]며 신하들을 불러 형주를 공격할 계획을 상의하기도 하였

129) 卻說孫夫人回吳, 具說張飛與趙雲殺了周善, 截江奪了阿斗. (한편 동오에 돌아간 손부인이, 장비와 조운이 길을 막아 주선을 죽이고 아두를 빼앗아 간 일을 자세히 말했다.) 앞의 책, 757쪽.

130) 孫權大怒曰: "今吾妹已歸, 與彼不親, 殺周善之讎, 如何不報!" 喚集文武商議, 起軍

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손부인이 오나라로 돌아온 뒤 태부인의 병세가 거짓이었던 것, 자기의 혼인이 계책이었던 것, 그리고 병사들에게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 등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점은 앞서 보여준 손부인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앞뒤에서 드러나는 성격적인 모순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소설상에서 전쟁을 일으킬 핑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유비 곁에 머무르지 않게 된 손부인이 더이상 서술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도 있다.

이후 손부인이 왜 다시 형주에 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의 답은 다음 서술에서 찾을 수 있다.

가정본	모종강본
손부인은 유비를 사모하고 만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셨습니다. 이제 오후께서 신을 사자로 삼아 바라건대 부인을 돌려보내고 항장을 결박해 보내고 아울러 형주를 예전처럼 교환해 영구히 맹호를 맺어 함께 조비를 멸망시키고 이로써 찬역의 죄를 바로잡으려 하시기에 ……	손부인도 그동안 돌아올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오후께서 신을 사자로 삼아 바라건대 부인을 돌려보내고 항장을 결박해 보내고 아울러 형주를 예전처럼 교환해 영구히 맹호를 맺어 함께 조비를 멸망시키고 이로써 찬역의 죄를 바로잡으려 하십니다.
(孫夫人久慕陛下, 恨不能見面. 今吳侯令臣爲使, 願交割荊州, 仍還其降將, 送歸夫人, 永結盟好, 共滅曹丕, 以正篡逆之罪 ……)	(孫夫人一向思歸. 今吳侯令臣爲使, 願送歸夫人, 縛還降將, 並將荊州仍舊交還, 永結盟好, 共滅曹丕, 以正篡逆之罪.)

위와 같이 가정본에서 유비에 대한 손부인의 사랑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손부인은 유비와 만날 수 없어서 한스러워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손부인은 유비와 신혼 밤에 달콤한 대화를 나누었고, 오나라를 떠날 때 간절하게 유언을 전하였다. 이에 그녀의 마음 속에는 분명히

攻取荊州. (손권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이제 내 누이가 이미 돌아왔으니 나는 그들과 아무 연분도 없소. 주선을 죽인 원수를 어찌 갚지 않으랴! 손권은 문무 관리들을 불러 모아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취할 것을 상의했다.) 앞의 책, 같은 쪽.

유비에 대한 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부인의 뒷이야기를 밝히지 않고 막을 내린 가정본은, 모종강본과는 달리 손부인이 항상 형주에 돌아가 유비와 함께 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므로 손부인과 유비 사이에 진실한 사랑의 감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설득력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모종강본에서는 손부인이 유비를 옹호하는 데에만 개인 의지를 드러내었지만, 가정본에서는 손부인의 개인적인 감정과 유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함으로써 개인 의지를 더욱 성명하게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종강본에서 손부인의 결말은 다음과 같다.

> 이때 손부인은 동오에 있으면서 효정에서 패전해 선주가 군중에서 죽었다고 잘못 전해진 것을 듣고 수레를 몰아 강변으로 간다.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며 통곡하더니 마침내 강물에 뛰어들어 죽는다.
>
> (時孫夫人在吳, 聞猇亭兵敗, 訛傳先主死於軍中, 遂驅車至江邊, 望西遙哭, 投江而死.)

가정본에서는 손부인의 결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종강본에서는 손부인이 남편의 죽음을 잘못 알고 강변으로 가서 서쪽으로 바라보며 울다가 강에 뛰어들어 죽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시에 있어서는 “천추에 열녀의 이름 여전히 또렷하네”[131]라는 평가로 막을 내렸다. 평화에서 손부인은 장비의 꾸짖음에 창피해서 강에 뛰어들어 죽었다고 밝힌 것과 달리 모종강본에서 손부인은 남편이 죽고 殉情의 의미로 강에 뛰어들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정주 이학의 영향이 크며 작가가 사회교화 목적을 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손부인의 죽음은 유비의 형상을 돋보이게 하고, ‘옹유반조’의 정통론을 강조하게 만든다. 손부인이 유비를 옹호할 때만 개인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러한 점들 때문이다.

---

131) 先主兵歸白帝城, 夫人聞難獨捐生. 至今江畔遺碑在, 猶著千秋烈女名. (선주는 백제성으로 돌아갔는데, 부인은 환난을 듣고서 혼자 목숨을 끊었네. 지금도 강가에 비석이 남아 있으니 천추에 열녀 이름 뚜렷이 전하누나.) 앞의 책, 1027쪽.

제 4 장 삼국시대 관련 서사문학작품의 여성 형상이 가진 의미

본 장에선 삼국시대 관련 서사문학작품 속에서 나타난 여성 형상을 통해 당시 사회 분위기나 여성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문학은 복잡하면서도 풍부하여 몇천 년 동안의 사회생활을 표현한다. 각 시대와 장르의 문학작품 안에는 당시 사람들의 사고와 감정이 반영되기 때문에 앞서 검토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그 의미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본 장에선 특히 잡극, 소설에서 나타난 손부인, 초선, 감부인, 미부인 등의 형상들에 주목하려 한다. 잡극과 소설에서 여성들의 모습은 역사적 자료 및 평화에 비하여 다양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저명한 문학 평론가인 錢谷融은 ≪문학은 人學임을 논하다≫[132]에서 사람은 문학의 현실 반영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문학을 분석하는 핵심은 사람이며, 사람의 진실한 감정과 생활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각 시대, 각 장르에서의 여성 인물들이 존재하는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4.1 주도적 면모의 표출

4.1.1 적극적 태도의 반영

평화의 경우, 강연의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화본이기 때문에 이야기 분량

132) 文學的任務, 主要應該是影響人、教育人. 應該是鼓舞人們去改造現實、改造世界, 使人們生活得更好, 而不在於反映現實. (문학의 사명은 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육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히 사람들을 격려하여 현실을 바꾸게 하고 세계를 바꾸게 하여 사람들을 더 좋게 살 수 있게 해야 하고, 현실 반영에만 머물지 않는다.) 錢谷融, ≪我怎樣寫論"文學是人學"-當時的想法≫, ≪錢谷融文集≫ 卷一, 上海人民出版社, 2013年, 44쪽.

이 적고 주로 남성을 중심으로 한 서사가 많아 여성 인물들은 평면적으로 그려진다는 특징이 있다. 초선은 왕윤의 계책을 실행하는 여포의 아내로서 마치 그림자와 같은 형상으로 나타났다. 감부인과 미부인은 남편인 유비의 안전을 걱정하는 가정주부의 이미지가 강했다. 손부인은 군주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武將의 형상으로 묘사되었다. 즉, 평화에서 서술된 여성 인물들은 주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예외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여성들이 있기는 하다. 손부인이 유비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후세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133]

다음으로 잡극의 경우, 여성들이 개인적 의지를 표출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개인의식을 드러내고 반항 정신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혼인 후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는 전통적 여성상과는 거리가 매우 먼 것이었다.[134] 기본적으로 초선, 감부인, 미부인은 남편과 다시 만나 '가정'을 우선시하였다.[135]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개인의 의지를 표출했다는 것인데, 손부인은 남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조건을 분명하게 밝혔고[136] 적극적으로 혼인을 추구하고자 하는

133) 我父破董卓, 今嫁劉備, 暗殺皇叔, 圖名於後矣. (우리 아버지는 동탁을 격파시켰으니 이제 나는 유비에게 시집을 가서 황숙을 암살할 것이고 후세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 ≪三國志平話≫, 北京: 中華書局, 1959.

134) <秋胡戲妻>는 원나라 문학가 石君寶(1191-1276)가 지은 작품이다. 추호는 10년 동안 從軍하고 집에 돌아와 아내인 羅梅英을 만났으나 서로 알아보지 못한다. 뽕나무 밭에서 추후는 나매영을 희롱하다가 욕을 실컷 먹고 집에 돌아가 보니 그 여인이 바로 자기 아내였다. 곧바로 나매영은 추후에게 이혼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135) 爭奈夫主呂布, 不知下落. 我如今在後花園中燒一炷夜香, 對天禱告, 願俺夫妻每早早的完聚咱. (남편인 여포의 행방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집 뒤의 정원에서 밤에 향을 피우며 하늘에 대고 기도하며 우리 부부가 어서 모이게 되길 원합니다.) ≪全元曲≫ 第八卷 <錦雲堂暗定連環計・第一折>, 徐征、張月中 (編),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8, 6025쪽.

(小旦云)姐姐, 俺想玄德公何日相見也? (소단)언니, 현덕과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앞의 책, 第八卷, <關雲長千里獨行・第二折>, 5864쪽.

136) 也則要門當戶對該如此. (가문이 격에 맞아야 해요.) 앞의 책, 第九卷, <兩軍師隔江鬪智・第一折>, 6734쪽.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 결혼 후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나라에 대한 반항 정신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는 '오나라 세력'이 지니고 있는 '가정'에 대한 반항이었지만 어떤 대상에 대한 것이든 여성들이 반항 정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1.2 정절에 대한 관념 변화

삼국시대는 여성의 결혼 및 이혼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관대했던 시기로 여겨진다. 따라서 여성들은 "결혼이든 이혼이든 자유롭게(結婚自由, 離婚自由)"[137] 선택할 수 있었다. ≪胡笳十八拍≫을 창작한 문학가 蔡琰도 세 번이나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후한서≫에서 '박학하고 재능 있으며 음률에 뛰어나다'[138]는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과부가 재혼을 해도 비난받지 않았던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알려준다. 그러나 점차 정주 이학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여성들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여성의 정절에 대한 요구도 더욱 엄격해졌다.

다만 원 잡극에 있어서 여성 인물들에 대한 정절 강요가 약화된 것을 초선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다. 초선은 여포의 아내로서 동탁을 모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국군'의 칭호를 받아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를 통해 당시 여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정절 여부에만 의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초선이 비참하게 죽는 결말로 끝낸 극도 있으므로 잡극에서도 여전히 여성의 정절에 대한 평가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명·청 시대에 이르러 정주 이학 사상이 강화되면서 여성들은 더욱 엄격하게 수절을 요구받게 되었다. 여성들은 "집안에서는 부모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는 것으로 종속적인 지위를 부여받았다.[139] 또한 법적 측면에서 "남편은 아내의 지침이 되며, 남편을

137) 張亮采, ≪中國風俗史≫, 上海三聯書店, 1988, 72쪽.

138) 博學有才辯, 又妙於音律. 范曄, ≪後漢書≫八十四卷 ≪烈女傳·董祀妻傳≫, 北京: 中華書局, 2007, 824쪽.

139) 男者, 任也, 任功業也. 女者, 如也, 從如人也. 在家從父母, 旣嫁從夫, 夫死從子也.(남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르면 인간의 도리가 끊어지게 된다"[140]고 규정되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소설 속 여성 인물들 역시 자연스럽게 종속적인 지위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잡극에서 지혜롭게 활약했던 감부인이 소설에서 그저 관우의 용맹함을 돋보이는 배경이 된 이유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봉건사회에서도 여성 정절에 대한 요구는 계속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절을 강요하는 사회 풍토는 관대하였다가 다시 엄격해지고를 반복하였다. 이런 정절에 대한 변화는 여성들이 사회적인 지위를 방증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여성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원 잡극에서 여성 인물들이 개인의식과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성 지위가 낮은 명·청 시대에서는 소설 속 이야기 전개를 위한 여성 인물로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4.1.3 대의를 위한 실천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득한 삼국시대에서는 張松, 法正와 같은 謀士들이 현명한 군주를 선택하여 섬기는 행위(擇主而事)[141]를 종종 볼 수 있다. 忠義에 대한 행위에 있어 여성 인물은 부속적인 지위에 처하기 때문에 직접 군주를 선택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여성 인물은 오히려 한결같은 충의를 표현하는 데에 적합한 대상이 되었다.

소설에서는 여성 인물이 가정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국가 차원에서 생

자는 맡는 것이다. 맡는다는 것은 공과 업적이다. 여자는 따르는 것이다. 따른다는 것은 남을 따르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 陳立(清), ≪白虎通疏證≫ 卷十≪嫁娶≫, 北京: 中華書局, 1994年, 462쪽.

140) 婦人義當從夫, 夫可以出妻, 妻不得自絶於夫. 夫爲妻綱, 棄夫從人, 人道絶矣. (아내의 의는 마땅히 남편을 따르는 것이며, 남편은 아내를 내보낼 수 있지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스스로 인연을 끊을 수 없다. 남편은 아내의 강령이 되기에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르면 인간의 도리가 끊어지게 된다.) 姚雨薌(清)纂, 胡仰山增修: ≪大清律例會通新纂≫ 卷九≪男女婚姻≫, 沈雲龍主編: ≪近代中國史料叢刊三編≫ 第 22 輯, 臺灣:文海出版社, 1987, 1086쪽.

141) 장송과 법정은 처음에는 익주목(益州牧)인 유장의 謀士였다가 유비에게 넘어갔다.

각하고 일을 행한다. 초선은 연환계의 계책을 듣고 왕윤의 대의에 보답하지 못하면 스스로 난도질하여 죽겠다고 말한다.[142] 여기에서 나랏일을 근심하고 대의를 위해 실천하는 초선의 의지가 드러난다. 소설에서는 충의를 칭송하는 핵심적인 사상이 작품 안에 포함된다. 초선처럼 직접적으로 충의를 드러내지 못한 감부인과 미부인도 간접적으로 관우, 조운의 충의를 돋보이게 하였다. 千里獨行하는 과정 속에서 관우는 두 부인을 보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장판파에서 조운은 감부인을 구하고 미부인도 구하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두 부인은 관우의 충의과 조운의 忠勇을 더 돋보이게 한 존재이다.

한편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대의를 실천하는 여성들도 없지 않다. 姜敘의 어머니가 좋은 예시다. 강서의 어머니는 馬超를 함께 도모하자는 楊阜의 말에 주저하는 아들을 꾸짖으며 자신을 걱정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하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죽는다 해도 충의에 따르는 것이 가치 있다는 말로 忠義를 몸소 실천한 사람인 것이다.[143] 馬邈의 아내인 이씨 또한 그러하다. 鄧艾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에도 마막은 방비를 소홀히 하였고 항복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씨는 매우 노하여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불충불의한 태도를 꾸짖은 뒤 목을 매어 자살했다.[144] 이로 보아 이씨는 대의를 충실하게

---

142) 貂蟬曰: “大人勿憂. 妾若不報大義, 死于萬刃之下!” (초선이 말하기를 “나리께서 염려 마십시오. 첩이 대의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난도질을 당해 죽고 말겠습니다.”) 魯玉川、宋祥瑞等(輯校), ≪三國演義會評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87쪽.

143) 誰不有死, 死於忠義, 死得其所也. (사람은 누구나 죽는 법, 충의에 죽는다면 참으로 죽을 자리를 얻는 일이니라.) 羅貫中, ≪三國演義(上下冊)≫,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73, 532쪽.

144) “그날도 군마를 훈련시키고 귀가한 마막은 아내 이씨와 더불어 화로를 끼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내가 묻는다. “변방의 형세가 매우 급하다고들 하는데 장군은 아무 근심이 없으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마막이 말한다. “강유가 있어 큰일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 내가 무엇을 더 하겠소?” “비록 그렇다 해도 장군은 이 성을 지켜야 하니, 이보다 더 막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황제께서는 황호의 말만 믿고 주색에 빠져 계시니, 내 보기에 머지않아 큰 화가 닥칠 것이오. 위군이 쳐들어오면 곧 항복하는 것이 상책인데, 무얼 근심한단 말이오?” 마막의 아내는 크게 화를 내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당신은 남자가 되어 싸우기도 전에 불충불의한 마음을 품고서 지금껏 헛되이 나라의 녹을 받았단 말씀이오? 내 무슨 면목으로 당신을 다시 보겠소!” 마막은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했다.” 나관중, 황석영 역, ≪삼국

위하는 여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씨의 이야기는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예법과 대의가 상충하는 경우에 대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4.2 작가들의 여성관 반영

한 작품 안에서 여성 인물에 대한 관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 초선의 경우에도 앞뒤 형상의 차이가 크다. 평화와 잡극 등에서는 여성 인물에 대한 서술이 간략하거나, 극본이 전해지지 않는 작품도 많아 작가의 여성관을 탐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여성관을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두 판본의 소설을 연구 자료로 삼고, 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여성 인물들의 사례도 살펴보면서 작가의 여성관을 다루고자 한다.

4.2.1 "擁劉反曹"의 정통론에 기반한 여성관

앞서 언급했듯이 모종강이 쓴 <삼국지 읽는 법>에서는 촉나라만이 정통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를 모종강이 처음으로 규명한 것은 아니다.

우선, ≪삼국지≫는 진나라가 기록한 사서이다. 위나라는 진나라를 계승하기 때문에 위나라를 정통으로 삼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위나라를 정통으로 삼는 사상은 당나라 때까지도 널리 여겨졌다. 이는 두보의 시 <丹靑引贈曹將軍霸(단청인 조패 장군에게 주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將軍魏武之子孫	장군은 위무제인 조조의 자손이고
於今爲庶爲靑門	이제 서민이 되어 가난한 집안이 되었다.
英雄割據雖已矣	영웅은 할거하던 시대는 비록 끝났어도
文采風流今尚存	문채와 풍류는 아직 남아있다.

지≫ , 창작과 비평사, 2003, 164-165쪽.

제1구에서 시인은 조조를 위무제로 칭하고 제3구에선 영웅으로 인정하였다. 당나라 때에는 조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위나라의 정통 지위를 보편적으로 인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북송에 이르러 蘇軾이 쓴 ≪東坡志林≫에서는 조조에게 이미 부정적인 형상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왕팽이 일찍이 말한 적이 있다. "골목의 아이들은 장난이 심하고 훈육하기 어려웠기에, 부모들은 돈을 주고 또래와 함께 앉아 고대 이야기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삼국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이들은 유비의 패배 소식을 들으면 눈썹을 찌푸리며 슬프게 울고, 조조의 패배 소식을 들으면 기쁨과 행복에 겨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로써 군자와 소인의 영향은 백세를 넘어서도 끊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 (王彭嘗云: "塗巷中小兒薄劣, 其家所厭苦, 輒與錢, 令聚坐聽說古話. 至說三國事, 聞劉玄德敗, 顰蹙有出涕者; 聞曹操敗, 即喜唱快. 以是知君子小人之澤, 百世不斬.")

위의 인용문을 통해 북송 시대에 이미 삼국시대의 이야기가 널리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들마저도 조조를 멸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조조를 반대하는 사회 분위기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南宋 시대에는 朱熹가 편찬된 ≪資治通鑒綱目≫에서 蜀漢이 정통임을 밝혔으며, 이후 남송부터는 촉한정통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옹유반조' 라는 사상이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송부터 정착된 '옹유반조'라는 사상은 문학작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평화, 잡극, 두 판본의 소설에서 이러한 정통론이 대략적으로 담겨있으며, 작은 차이는 있지만 정통론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작가들은 여성 인물을 창작할 때에 이러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보인다.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손부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손부인은 가정본에서 유비의 죽음 소식을 듣고 강으로 뛰어들어 자살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종강본

에서는 모종강이 이 부분을 추가하여 '옹유반조' 사상을 더 깊게 보여주었다. 모종강은 <삼국지 읽는 법>에서 언급한 대로, 촉나라가 유일한 정통이기 때문에 손부인이 유비와 함께 죽어야만 유비의 인성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고, 진정한 군주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조의 여동생인 曹皇后의 입장 변화도 마찬가지로 정통론과의 연관성이 있다. 두 판본의 소설에서는 조황후의 형상이 확실히 달라졌다. 가정본에서는 조씨가 황제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조씨 정권을 지지하였지만[145], 모종강본에서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라를 도모하는 적이라고 꾸짖으면서 옥새를 땅에 던졌다.[146] 모종강은 <범례>에서 이 부분의 수정이 ≪후한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밝혔지만[147], 여전히 전통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45) 曹氏大怒曰: "汝言吾兄爲篡國之賊, 汝高祖只是豐沛一嗜酒匹夫, 無籍小輩, 尙且劫奪秦朝天下. 吾父掃淸海內, 吾兄累有大功, 有何不可爲帝? 汝卽位三十餘年, 若不得吾父兄, 汝爲齏粉矣!" (조씨는 크게 노하였다. "너는 우리 오라버니를 나라를 탈취한 도적이라 말하고 있지만, 네 선조인 한 고조는 단지 풍패현의 술을 즐기는 필부요, 가문도 없는 소인배일 뿐이데 오히려 진나라 천하를 약탈했다. 우리 아버지는 천하를 정리하였고, 우리 오라버니는 여러 번 큰 공을 세웠으니 어찌 황제가 될 수 없겠느냐? 너는 30여 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내 아버지와 오라버니가 없었다면 너는 이미 육체가 가루가 되었을 것이다!") ≪嘉靖壬午本三國演義≫, 羅貫中, 北京: 人民出版社, 2007, 553쪽.

146) 曹後大怒曰: "吾兄奈何爲此亂逆之事耶!"……曹後大罵曰: "俱是汝等亂賊, 希圖富貴, 共造逆謀! 吾父功蓋寰區, 威震天下, 然且不敢篡竊神器. 今吾兄嗣位未幾, 輒思篡漢, 皇天必不祚爾!" (조후는 크게 노하였다. "오라버니가 어찌하여 그런 대역부도한 짓을 한단 말씀입니까?"……조후가 큰 소리로 꾸짖었다. "당신네 난적들이 부귀를 도모하는 모반자일 거요! 우리 아버님은 그 공훈이 세상을 덮고 위엄이 천하를 진동시켰건만, 그래도 제위를 엿볼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셨소! 지금 내 오라버니가 왕위를 이은 지 얼마 안 되어 벌써 찬탈할 생각을 품으니 황천이 반드시 그를 돕지 않으리다!") 魯玉川、宋祥瑞等(輯校), ≪三國演義會評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974쪽.

147) 又曹後罵曹丕, 詳於范曄≪後漢書≫中, 而俗本反誤書其黨惡. ……今悉依古本辨定. (또한, 조후가 조비를 꾸짖는 것은 범예의 ≪후한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속본은 그녀가 악의 쪽을 지지했다고 잘못 기술하고 있다. …… 이제 나는 고본에 따라 이 사건들의 진실을 확인한다.) 앞의 책, <凡例>, 20쪽.

소설에서는 劉安이라는 사냥꾼이 등장하여, 유비를 대접할 고기가 없어서 자신의 아내를 죽여 유비에게 늑대고기라고 속여 대접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은 유비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유비가 대표하는 촉나라 정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魯迅은 이를 두고 '유비를 충직하고 온후한 인물로 강조하려다가 오히려 허위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평가하였다.[148] 이어서 나오는 유비의 반응은 유비가 백성들을 가족처럼 아끼는 인물로 강조한 소설의 형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유비는 고기가 사람의 살임을 알게 된 후에도 아무 대처를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며 말을 타고 가버린다. 이는 유비의 모습을 끔찍하고도 허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나오는 여성 인물은 '옹유반조'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창작된 인물로서 처음부터 불쌍한 운명을 가진다. 이 여성이 사냥꾼인 유안에게 죽임을 당한 후, 조조가 유안에게 황금 백량을 주도록 명령하였다. 모종강은 모종강본에서 이 부분을 첨삭하면서 주석을 달고 평가하는 바가 다음(1)과 같다.

> (1) 유안이 이 금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아내를 맞이할 수 있겠지만 아무도 결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가 또다시 여자를 사냥한 고기로 손님을 대접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
> (劉安得此金, 又可娶一妻矣, 但恐無人肯嫁之耳. 何也, 恐其又把作野味請客也.)
>
> (2) 역아는 아들을 죽여 임금(제환공)을 대접하였으며 관중이 인간적이지 않아 친해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였으니 유안의 일도 이와 같을까요? (모종강이) 말하기를, "다릅니다. 역아는 이익을 위한 거였지만, 유안은 의를 위한 거였습니다. 임금님이 먹을거리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역아가 아들로 요리하는 것은 정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었으나 임금님이 먹을 거리가 없었다면 개자추가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것도 과하지 않습니다. 비록 여포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고, 유안이 아내를 죽이는 것은

148) 欲顯劉備之長厚而似僞. (유비를 충직하고 온후한 인물로 강조하려다가 오히려 허위적으로 보일 수 있다.) 魯迅, ≪中國小說史略≫.

잔인하지만, 오직 유비만이 그 적절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易牙殺子以饗君, 管仲以爲非人情不可近, 劉安之事, 將毋同乎?曰:不同. 牙爲利也, 安爲義也. 君非絕食, 則易牙之烹其子爲不情; 君當絕食, 則介之推自割其肉不爲過也. 雖然, 呂布之戀妻也太愚, 劉安之殺妻也太忍, 唯玄德爲得其中.)

위와 같이 모종강은 유안이 아내를 죽이고 유비를 대접한 행위를 잔인하다고 보지만, 유안의 행위를 전적으로 비판하고 부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유안이 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칭찬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유비를 추켜세우는 평가를 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였다. 모종강은 춘추시대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아내의 입장에서 원통하겠지만 이러한 일이 예전부터 없었던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유안의 행동에 대한 대의를 인정해주면서 유비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유비가 아내를 대한 태도가 어떤지 살펴보자면, 앞서 분석한 감부인과 미부인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비의 아내는 계속해서 유비와 헤어져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또한, 소설의 어느 판본에서든 유비는 '형제는 수족과 같고 아내는 옷과 같다[149]'는 관점을 표현한다. 이에 모종강은 유비의 아내가 형제만큼 중하거나 뛰어나지 못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비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150] 생각한다. 그러나, 모종강이 비참한

149) 張飛要自刎, 玄德向前抱住, 奪其劍而言曰: "古人有云: '兄弟如手足, 妻子如衣服.' 衣服破, 而尙有更換; 使手足若廢, 安能再續乎? 吾三人桃園結義, 不求同日生, 誓願同日死. 今日雖無了城池老小, 安忍敎兄弟中道而亡?" (장비가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려 하니, 현덕이 달려들어 그를 껴안고 칼을 빼앗아 말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형제는 손발 같고, 아내는 의복 같다'고 했네. 의복은 찢어지면 다시 기울 수 있지만, 손발이 끊어지면 어떻게 다시 잇는다는 말인가? 우리 셋은 도원에서 결의할 때 한날한시에 태어나지는 못했어도,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했다. 오늘 비록 성과 가족을 잃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찌 형제를 길에서 죽게 할 수 있겠는가?") ≪嘉靖壬午本三國演義≫, 羅貫中, 北京: 人民出版社, 2007, 102쪽.

150) 玄德見勢已急, 到家不及, 只得棄了妻小. (유비는 형세가 위급한 것을 보자 미처 집에도 들러볼 겨를이 없어 가족들을 내버려 두었다.) 魯玉川、宋祥瑞等(輯校), ≪三

여성의 운명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유안의 행위를 임금께 바치는 충의로 보는 점에는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봉건사회의 주요 사상과 사회적 도덕적 간의 모순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 근원은 '옹유반조'의 정통론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2.2 서사적 요구로 인한 여성관

앞서 삼국 이야기에 남성들이 주로 등장하여 여성에 대한 서술이 간단하게 나오며, 구체적으로 서술된 여성 인물도 앞과 뒤의 형상이 변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을 고려하여 특정 인물을 설정해야 하는 작문 면에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초선은 작가가 이야기의 흥미와 연환계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설정된 여성 인물이다.

연환계 단계에서는 기생인 초선이 두 남자 사이에 여유 있게 계책을 추진하면서 천하무쌍의 용맹과 지혜를 보여주었다. 초선은 기생 출신이라는 것과 계책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 어긋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런 여성 인물이 등장하여 이 계책을 수행해야 하므로 능력과 출신 간 어긋남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연환계를 끝난 후, 여포의 처로서는 울며 전쟁에 나갈 여포를 말렸다. 연환게 이후 장면에서 초선의 형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宋憲 등 부하들도 여포의 실패는 아내와 아내의 말을 따르고 부하들의 계책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초선의 형상은 달라지게 되었다. 여포가 전패한 원인으로 초선이 지목된 것도 이때쯤 연환계와 같이 여포를 전패에 이르게 할 역할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초선의 형상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었고 초선의 앞뒤 형상이 크게 달라진 것도 설명할 수 있다. 모종강은 앞부분에서 초선을 여장군이라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뒷부분에서는 '미인이 재앙의 근원'이라는 여성관을 작품에 담았다는 것을 알

國演義會評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227쪽.

수 있다.

같은 시대, 같은 체재라 할지라도 여성의 정절에 관한 작가들의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잡극 속에서의 초선은 여포의 아내로서 동탁을 모시게 되고도 마지막에 '국군'이라는 명호를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잡극 속에서의 손부인은 오히려 유비를 죽이라는 계책에 대해 '다른 남자에게 재가할 수 있겠는가?[151]'라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두 작가가 초선과 손부인의 정절관에 대해 다르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소설에서 초선에게는 정절에 대한 요구가 없지만, 모종강본에서 손부인이 유비의 죽음 소식을 듣고 강에 뛰어들어 따라 죽은 것에 대해 모종강이 '열녀'라고 표창하였다. 이에 모종강이 여성의 정절 관념을 옹호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다.

한편, 유비가 손부인이 오나라로 돌아간 후 맞이한 새 부인, 즉 吳皇後는 남편인 劉瑁가 죽은 후에 유비에게 재가한 것이었다.[152] 유비도 재혼한 여자를 받아들였으므로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의 정절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없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夏侯令의 딸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딸을 재혼시키려고 하자 그녀가 제 손으로 귀를 베어버리고 재혼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다. 후에 또다시 딸을 시집보내려 했는데, 그녀는 또 자기의 코를 베어버렸다는 이야기[153]가 있었다. 나관중은 이를

---

151) 難道你妹子害了一個, 又好另嫁一個? (너의 누이가 그 사람을 해치고 다른 남자에게 잘도 재가할 수 있을까?) ≪全元曲≫ 第九卷, 徐征、張月中 (編),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8, 6746쪽.

152) 先主穆皇后, 陳留人也……焉時將子瑁自隨, 遂爲瑁納後. 瑁死, 後寡居. 先主旣定益州, 而孫夫人還吳……於是納後爲夫人. (유비의 목황후는 진류군 사람이다. …… 유언은 그 당시 아들 유모에게 자신을 따라오도록 하여 유모를 위해 목황후를 아내로 맞이해 주었다. 유모가 죽은 후, 목황후는 혼자 기거했다. 유비가 익주를 평정한 후, 손부인은 오나라로 돌아갔으므로 ……그래서 목황후를 맞이하여 부인으로 삼았다.) ≪裴鬆之註三國志≫, <二主妃子傳>, (陳壽)裴鬆之註,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9, 511쪽.

153) 時有曹爽從弟文叔之妻, 乃夏侯令女也, 早寡而無子, 其父欲改嫁之, 女截耳自誓. 及爽被誅, 其父復將嫁之, 女又斷去其鼻. (이때 조상의 사촌 동생 조문숙의 부인은 곧

두고 의롭기가 산처럼 높다고 평가하면서 남자들도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154]

이에 작가가 정절관을 갖고 있지만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서 재가에 대한 모순된 관점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모종강은 '재와 절의 결합'이라는 여성관을 제118회 총평에서 언급하였다.

> 삼국시대의 인재들이 성행한다는 것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남자가 재능이 있다는 것은 정절에 제한될 필요가 없으나 여자가 정절을 잃으면 재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남성의 재능에 있어서는 재능과 정절을 분리하고, 여성의 재능에 있어서는 재능과 정절을 결합해야 한다.
>
> (三國人才之盛, 不獨於男子中見之, 又於婦人中見之. 然男子有才, 不必其皆節; 而婦人無節, 即謂之不才. 故論才於男子, 才與節分; 論才與婦人, 必才與節合.)

모종강은 여성의 정절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확인된다. 모종강은 재능이 있는 여성 인물들을 국가별로 나열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초선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才婦에 포함되지 않았다[155]는 이유는 바로 정절함을 잃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손부인이 재부로 뽑힌 이유도 유비를 따라 죽음으로써 정절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후령의 딸이었다. 일찍이 과부가 되고 또 자식도 없어서 그 부친이 개가시키려 하자, 딸은 제 손으로 귀를 베어버리고 개가하지 않을 것을 맹세했었다. 조상이 처형을 당하자 부친은 다시 딸을 개가시키려 했는데, 딸은 또다시 자기의 코를 베어버렸다.) 魯玉川、宋祥瑞等(輯校), ≪三國演義會評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1312쪽.

154) 弱草微塵盡達觀, 夏侯有女義如山. 丈夫不及裙釵節, 自顧須眉亦汗顏. (약한 풀과 먼지 같은 세상을 달관한, 하후씨 따님의 의기가 무겁기 태산 같다. 그 여인의 절개를 장부도 못 따라가니, 수염을 어루만지며 얼굴에 땀 흘린다.) 앞의 책, 1313쪽.

155) 至於權變如貂蟬, 聰慧如蔡琰, 又其下者耳. (초선과 같은 권변의 능력을 가진 인물이나, 채염과 같은 영리하고 현명한 여성이더라도, 그녀들 아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앞의 책, <一百十八回・總評>, 1422쪽.

잡극에서 손부인의 이름을 '손안'으로 밝히는 것은 작가가 혼란에 빠진 사회가 안정을 되찾는 희망을 담고 있으며, 소설에서 '손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군주의 인덕한 품격을 강조하는 목적이었다. 또한, 잡극과 소설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태도를 다르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잡극 "천리독행"에서는 감부인이 등장하여 유비와 정사를 상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관우도 감부인의 조언으로 조조의 계책을 의식하고 피할 수 있게 되는 장면이 있었다. 이는 작가가 여성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여자가 정치하면 안 된다[156]'는 관점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감부인과 미부인의 부분에서 심지어 여성 인물의 입에서 직접 '우리 여자들에게 일을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 심지어 소설 마지막 회에서 '여자들은 정치를 모른다'[157]라는 발언도 등장한다. 이를 통해 소설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작가는 여성의 정치 참여에도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현대에 가지는 의미

각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형상과 작가들의 여성관은 그 당시 사회에 존재하던 여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반영한다. 이를 분석하면 여성이 역사 발전 과정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진보적인 관점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나라 때 여성은 잡극 속에 초선, 손부인, 감부인 등에서 보이는 용기와 지혜를 가진 형상을 보여주었지만, 가정의 화목에 머무는 제한적인 역할에 안타까움을 남겼다. 그러나 당대 여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작가들

156) 我等皆婦人也, 參預朝政, 非其所宜. (저희는 다 부인들이니 정사에 참여함은 옳지 않습니다.) 앞의 책, 23쪽.

157) 吾寡婦人耳, 安知社稷之事? (나는 일개 과부일 뿐, 어찌 사직에 관한 일을 알겠소?) 앞의 책, 1444쪽.

은 시대 제한을 피할 수 없었지만, 문학적인 단계를 거치며 보다 풍부해진 여성 형상을 만들어냈다. 초선이 연환계에서 참여하고 주도하는 과정에서 여성 인물들이 역사 발전과정에서 한 역할을 탐구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시대의 서사문학작품에서 나타난 여성 형상과 작가들의 여성관을 분석하면 작품들에 담긴 후진적, 혹은 보다 선진적인 관점은 참고할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손부인과 같은 원 잡극에서는 여성들이 독립적인 의식을 추구하고 운명에 반항하는 정신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에도 원 잡극의 손부인이 보여주는 정신은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의 여성 형상과 작가들의 여성관은 봉건사회의 예법과 도덕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여성 인물은 항상 남성 옆에 붙어 지내는 지위로 표현되며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오늘날 여성 인물이라도 여전히 문화콘텐츠에서 부속적인 지위에 처하고, 정절의 여부로 인물이 평가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유교 문화사회에서 주된 가치관으로 인정받아온 정절에 대한 관념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여성 형상에 대한 분석은 시대를 막론하고 여성들의 지위와 가치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여성 형상에 대한 분석은 역사 발전의 필연적인 규칙을 탐구하는 데에 오늘날에서도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 5 장 결론

지금까지 내린 분석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서술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는 역사적 기록과 평화, 강연 목적이 강한 잡극에서는 여성 형상이 제한되어 있다. 역사 기록은 짤막한 기재로 중요한 사건들을 연결시켜야 하므로 개인적인 성격보다는 남성화된 형상을 도출하게 된다. 잡극에서는 여성다운 형상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에 힘을 쓰는 한편 인물의 강한 개인의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체재의 한계로 인해 전면적인 여성 형상을 충분히 보여주기보다 단일적인 성격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소설은 편폭이 길어 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므로 보다 풍부해진 형상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역사 기록이나 잡극에서는 단편적으로 여성 인물의 형상을 도출하게 되었지만, 소설에서는 여성 인물의 성격을 보다 전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며, 때로는 남성다운 면이 드러났고, 때로는 여성다운 면이 드러나며, 이를 합쳐서 비교적 충실하고도 매력적이며 균형 잡힌 여성 인물의 형상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여성 인물의 개인 의지 표출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잡극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성 인물이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는 것은 당시의 독특한 사회 문화 배경 속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의지 표출은 소설에 이르면서 노골적으로 표현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명 말부터 인물의 형상이 정형화되는 과정에서 인물의 개성이 비교적 약화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인물이 개인의 의지를 표출하는 일이 다소 드물게 되었다.

삼국시대를 다룬 작품 중 정통론에 관한 논쟁은 빠질 수 없다. 여성 인물에 대한 표현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통론 입장을 도출할 수 있다. 또 어느 시대의 작품에 따라 정통론에 대한 입장이나 지지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화에서는 촉한정통론의 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잡극과 소설에서는 '옹유반조'라는 정통론에 대한 입장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모종강본에서는 '옹유반조'라는 정통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작가들이 여성 인물을 다룰 때 정통론을 기반으로 결말이나 입장을 바꾸기도 하고, 유비를 강조하기 위해 여성 인물의 비참함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여성 형상을 모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절관에 대한 태도도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시대의 배경을 고려할 때, 부정적인 관점으로 여성 인물을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러한 작품들은 여성에 대한 관점이 다양해진 오늘날에 검토하고 분석할 가치가 크다.

본고에서는 삼국시대를 다룬 평화, 잡극, 소설 등의 작품에서 여성 형상이 보다 풍부하게 표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 의식의 발전과 정통론의 영향으로 여성 형상이 어떤 변화를 걸쳐왔는지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여성 형상들이 가진 의미와 작가들의 여성관도 각 작품에서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여성 인물의 형상을 살피는 일이 앞으로 보다 활발하게 탐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연구가 여성 인물과 관련된 후속 연구를 이끄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참 고 자 료

[단행본]

나관중(1-6권), ≪삼국지≫, 김광렬 외 역, 서울: 삼성출판사, 1994.

양회석, ≪중국희곡≫, 서울: 민음사, 1994.

관한경 외, ≪원잡극선≫, 김우석・홍영림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15.

이수웅, ≪중국문학사≫, 다락원, 2010.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1989.

김호동 역주, ≪동방견문록≫, 사계절, 2002.

(陳壽)裴鬆之註, ≪裴鬆之註三國志≫,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9.

≪三國志平話≫,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59.

徐征、張月中 (編), ≪全元曲≫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8.

臧懋循(編), ≪元曲選≫, 中華書局, 1979.

羅貫中, ≪三國志通俗演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羅貫中, ≪嘉靖壬午本三國演義≫, 北京: 人民出版社, 2007.

范曄,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1987.

王象之, ≪輿地紀勝・卷65≫,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魯玉川、宋祥瑞等(輯校), ≪三國演義會評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宋濂, ≪元史・百官志≫, 北京: 中華書局, 1976.

≪元典章≫, 天津古籍出版社, 北京: 中華書局, 2011.

≪明會典≫, 北京: 中華書局, 1989.

章學誠, ≪章學誠遺書≫, 文物出版社, 1985.

易中天, ≪品三國≫,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06.

譚邦和, ≪明淸小說歷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張亮采, ≪中國風俗史≫, 上海三聯書店, 1988.

范曄,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2007.

陳立, ≪白虎通疏證≫, 北京: 中華書局, 1994.

沈雲龍, ≪近代中國史料叢刊三編≫, 臺灣: 文海出版社, 1987.
≪官修・清實錄≫, 中華書局, 1985.
孫希旦(清), ≪禮記集解≫, 北京: 中華書局, 2009.
張延玉, ≪明史・列女傳≫, 北京: 中華書局, 1974.
王頲點(校), ≪元婚禮貢擧考≫, 浙江古籍出版社, 1992.
≪中國古代婚姻史研究≫, 廣東人民出版社, 1998.
呂坤, ≪閨範≫, 中華書局, 1984.

[학위논문]
楊鑫, ≪三國演義女性形象研究≫, 長沙理工大學, 2013.
高燦, ≪<三國演義>中的女性形象和女性觀研究≫, 天津師範大學, 2015.
張競丹, ≪<三國演義>女性形象新論≫, 山西大學, 2016.
杜小琴, ≪三國文藝作品中孫尙香的演變≫, 華中師範大學, 2011.

[학술지]
이민경, ≪여성형상 분석을 통한 <三國演義> 서사전략 고찰≫, <中國學> 第72輯, 2020.
謝文學, ≪論孫夫人≫, 許昌師專學報, 第一期, 1987.
康俊平, ≪論元雜劇<隔江鬪智>中孫夫人形象的文化內涵≫, 平頂山學院學報, 第21卷, 第1期, 2006.
王麗娟, ≪貂蟬'連環計'故事的源流演變≫, 明淸小說研究, 2005, 第4期.
劉永濤, ≪論三國文藝作品中貂蟬形象的演變≫, 成都大學學報, 2018.8, 第4期.
金霞, ≪三國志通俗演義中甘夫人形象分析≫, 小說論叢, 2013.
王瑩雪, ≪論三國演義中女性的陽剛美≫, 文學研究, 2013, 第8期.
王理超, ≪元雜劇中叛逆女性形象的文化解讀≫, 文史論苑, 2018.

中 文 摘 要

迄今为止，在以三国时代为背景的叙事文学作品的比较研究中，男性人物的形象变化研究一直在持续进行，相对而言，女性形象的变化研究却未受到学界充分的关注。但这并不意味着文学作品中的女性形象是一成不变的，亦或是变化幅度微乎其微的。因此，有必要对史料、平话、杂剧和小说等作品中各个女性形象的变化趋势进行深入研究，以揭示随着时代变迁所呈现的特点。

本文通过对貂蝉、甘夫人、糜夫人和孙夫人在各种体裁中女性形象的变化研究，深入分析了女性形象所蕴含的意义。在这一过程中，我们观察到女性角色呈现出积极主动的形象转变。同时，我们对女性必须遵循的贞节观念的变化，以及女性角色为了维护大义而做出的选择进行了探讨。对于女性形象的变化分析有助于我们理解作家们或基于叙事需求，或基于正统论立场而展现的女性观。以往的文学作品中，女性角色往往被视为推动故事发展或服务男性形象的存在，时至今日的女性人物在各种文化作品中也常常处于附属地位。因此，对女性形象的深入分析不可或缺，需要重新界定女性角色在叙事文学作品中的地位，并发现女性形象在作品中所承载的意义。通过对女性形象的研究，我们还可以探索文学作品随着历史发展而变化的必然规律。因此，对叙事文学作品中的女性角色进行深入研究在文学作品的比较研究中具有广泛的意义，这也是本文的价值所在。

關鍵詞: 貂蟬，甘夫人，糜夫人，孫夫人，女性觀，正統論

學　號: 2018-23065